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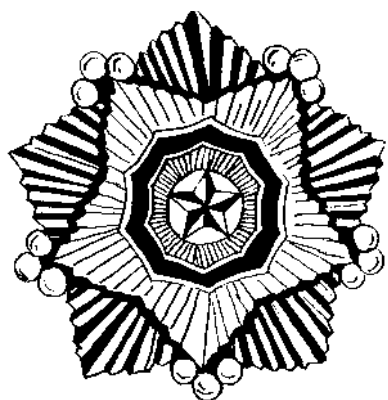


4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4호

(루계 제786호)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정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김 정 은

차 례

만민의 태양찬가(시)	문 동 식(4)
수령님을 못 잊습니다(가사)	심 재 훈(4)
미래가 보이는 곳 외 1편(시)	김 덕 선(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백두령장짜라 열병대오 앞으로!(시)	오 동 규(6)
붉은기에 어려있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에 대한 찬가(평론)	김 용 부(7)
김일성장군찬가(시)	리 찬(11)
혁명시인 리찬과 《김일성장군찬가》(평도자와 작가)	최 언 경(11)
주체문학의 대강	(27)
단편소설 전선의 밤	리 영 환(14)
◇ 경치를 받으시라	박 정 철(25)
오 그날의 총대	김 용 엽(25)
시 외물아 너는...	위 명 철(26)
지통전 화기	리 창 혁(27)
◇ 한해	박 현 철(29)
뜻깊은 4월의 그날에(혁명일화)	(28)
◇ 강종암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조 광 철(31)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황 명 성(31)
시 미워의 별망을 신고한다	한 광 춘(30)
◇ 우리는 해록음을 올렸다	주 광 일(32)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김 정 은

달리는 못살아 (단막희곡)	김 자 경(40)
단편 소설	은행나무 김 창 림(50)
	공회당주인 박 성 진(65)
수	화원이여 만발하라 박 혜 란(33)
	별고도 가까운 사람들 김 은 희(38)
필	나의 동심을 두고 전 이 련(62)

시

총대찬가	리 명 근(36)
그는 오늘도 우리앞에 있다	주 경(36)
저 모습 저 열풍속에	함 영 주(37)
병사의 서정	김 영 남(39)
우리 세포비서가 온다	한 원 희(48)
란이여 너를 사랑한다	박 상 민(48)
나는 아들과 그림을 그린다	김 진 주(49)
모교는 보증한다	리 진 협(63)
류다른 이해의 봄이야기 (단시 초)	김 충 기(64)
평양용의 산물에 감지전 봉건사회비관정신(소개)	김 진 국(79)
상식	(61)

표지3면: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선전화)

만민의 태양찬가

문 동 식

4월의 봄
이 땅에 태양절이 오니
산과 들엔 꽃바다
극장과 광장마다 춤바다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엔
기쁨과 환희 웃음의 바다

송이송이 꽃송이 헤아려보면
인민이란 아름다운 꽃송이들
깊이 뿌리내린 이 땅은
억만송이 꽃송에 하나라도 상할세라
불비와 눈비 찬바람 다 막아주신
우리 수령님 사랑의 대지입니다

광풍이 불고 격랑이 밀려와도
은혜로운 그 품에서
세월따라 더 활짝 피어나는 꽃송이들
그것은 해와 달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 열렬히 칭송하는
온 세상 만민의 한모습입니다

수령님 계시여
피눈물의 세월만이 흐르던 이 땅우엔
억압받던 사람들 나라의 주인되어
믿음과 사랑의 무릉도원 노래하는
창조와 변혁의 대교향악

격변하는 21세기의 지향과 열망안고
여기 만수대언덕으로 파도쳐오는
만민의 끝없는 꽃물결 꽃바다
자애로운 눈길로 굽어보시며

가 사

수령님을 못 잊습니다

심 재 훈

반만년력사로 자랑찬 조국에
만민의 환호성 울려잡니다
백두의 혈통을 이어준 수령님
꿈결에도 못 잊는 인민입니다
아 태양절 이 아침
인민은 수령님을 못 잊습니다

일심단결 한모습 선군조국에
환희의 꽃물결 설레입니다
주체의 락원을 펼쳐준 수령님

수령님께선 오늘도 손길 높이 드시고
자주의 진로를 펼쳐주교계시나니

세기와 세기를 이어
인민이 헤치고 만민이 겪어야 할
온갖 암초와 모든 풍파를
언제나 먼저 헤치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선 그것을 언제나 락으로
여기신듯

백두의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 펼쳐시여
천만년세월이 가고 또 가도
대양과 대륙넘어 끝없이 빛발치는
주체의 태양 우리 수령님 자주의 봄빛이어

따사로운 그 빛발을 안고
고마움과 감사의 꽃물결은
이 행성에 끝없이 펼쳐지고
수령님은 만민의 그 꽃바다에
더 광휘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이날은 우리의 태양절 인류의 큰 명절

오, 우리의 태양절 4월 15일
이날은
명절중에도 최대의 명절
경사중에도 만민의 대경사
아, 이날은
세세년년 인류앞에 대통운이 열린 날로
무궁세월 길이길이 빛나고있습니다

끝없이 우러르는 인민입니다
아 태양절 이 아침
인민은 수령님을 못 잊습니다

원수님 높이 모셔 찬란한 조국에
그리움의 노래는 넘쳐잡니다
조선의 영광이신 김일성동지
길이 모셔 행복할 인민입니다
아 태양절 이 아침
인민은 수령님을 못 잊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곳 외 1편

김 덕 선

만민이 그리움안고 달려와 안기고
세계가 흠모의 정 안고 우러르는
만수대언덕
여기에 수령님과 장군님 계시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여기서 사랑하는 인민들을
한품에 안고계시다

그 모습엔 어려있구나
눈부신 창전거리 행복의 집
릉라인민유원지와 평양산원
류정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을 바라보시는
대원수님들의 기쁨이

그 모습엔 어려있구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장쾌한 핵시험성공을 두고
원수님과 기쁨에 넘쳐 나누시는 이야기

들려오는것만 같구나
이것은 내가 인민들에게 주고싶었던것인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다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

후더워지는 가슴
깊어지는 생각
어디선가 문득 들려와라
수령님과 장군님 함께 걸으시는 발자욱소리
바람에 옷자락 날리는 소리

그 발걸음에 원수님 발걸음 함께 맞추시며
수령님과 장군님 뜻 꽃피우시나니
선군의 내 조국은 올라섰구나
우리의 《광명성》이 하늘을 날고
핵보검으로 원썩의 숨통을 조이는
존엄높은 내 조국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이 땅 끝까지 울리는
만수대언덕이여
너는 내 조국의 미래가 보이는 곳
너는 자주화된 세계가 가까이 보이는 곳

그 미래를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여기 계시다
그 미래 펼치시며 우리 원수님
여기에 인민의 충정의 꽃바구니를
수령님과 장군님께 삼가 드리신다

조선의 모습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여
장군님 목메여 부르며 쓰러져 올 때
그이께선 인민을 안고계셨다
조국을 안고계셨다

장군님과 헤여지던 눈내리는 그날
그이께선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시며
조선이 인민이 가야 할 그 길 향해
앞장서 걸으시였다

수령님 한평생 념원이였고
장군님 필생의 리상이였던
강성국가!
그것을 인민에게 안겨주셔야 했기에

그것은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를
그것은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할
전인미답의 길

세계여 무심히 보지 말라
그 나날 그 길에서
군대와 인민과 팔을 끼고 어깨결은 그 모습은
수령과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모습

그 어깨성은
인민을 사랑하시는 그이의 정과
그이를 받드는 인민의 충정으로
그이와 인민이 하나가 된 조선의 모습

그 성벽으로 조선은
이 세상 온갖 불의와 전쟁을 막고
강성국가로 빛을 뿌릴 조선을
이 행성우의 기념비로 우뚝 세워놓으려니

오, 천년가도 변함없고
만년가도 변함없을
팔을 끼고 어깨결은 그 모습은
영원한 조선의 일심단결의 모습
영원한 조선의 일심단결의 성새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항일혁명 전 로정을 관통해온 승리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과 정에는 우리 대원들의 도덕의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발양되었습니다.》

《동지애로 뭉친 집단,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된 대오는 필승불패한다는것을 우리는 그때 다시한번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칠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에게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지원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백두령장파라 열병대오 앞으로!

오 동 규

나간다 척척

백두산강군 열병대오 나아간다

서리발총검 번쩍이며 나아가는

무적강군의 대오앞엔

태양기가 날린다

태양기가 날린다

절세위인들의 선군위업을

총대로 반들어가는 열병대오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눕힐

천하무적의 철갑대오에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답례를 보내신다

오, 최고사령관의 축복을 받으며

보무당당히 나가는 무적의 저 대오

이 로병은 눈굽이 젖어 바라본다

수령님품에 태어난 우리 군대의 장한 걸음

그 위력의 역사를 새겨보노라

백두의 밀림을 떠나 천만리

전승의 열병광장을 지나 천만리

수령님따라 장군님따라

백승의 줄기찬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군대의 성스런 80여성상이 아니라

힘이 약해 억눌렸던 민족의 수난사가

어떻게 끝났던가

두자루의 권총에서 시작된 우리 무력이

어떻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강군의 무력으로 올라섰던가

백승의 힘이 실린 저 총대로

이 땅은 자위의 성새로 존엄높거늘

항일선렬들의 혁명정신으로

전화의 영웅들의 피더운 숨결로

선군의 우리 세월은 줄달음쳐왔나니

척척 발걸음 높이

세계를 향해 보란듯이 나아가는 대오

백두산위인들 그대로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따라

세계의 복판으로 조선이 나아간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축복속에 나아간다

오, 승리에서 더 큰 승리 향해

오늘의 열병광장은 이어지리

최후승리의 그 광장을 향해

이 로병도 마음의 총대 억세게 잡고

천만대오와 함께 가리니

승리가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백두령장파라 나아가는

무적의 열병대오 앞장엔 언제나

태양기가 날리리라

태양기가 날리리라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

무적필승의 상상봉에 올라선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

백두의 그 위업 누리에 떨쳐가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따라

무적의 열병대오여 앞으로!

붉은기에 어 려있 는 절 세 위 인 의 성 스 러 운 한 생 에 대 한 찬 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 《영원한 기발》에 대하여—

김 용 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과 원쑤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파감히 짓부시며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과 작가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글줄마다에 뜨겁게 어 려있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 《영원한 기발》.

단편소설집의 갈피마다에는 백두에서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한생토록 높이 드시고 만난을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력사, 인민들과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 백두에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붉은기, 혁명의 붉은기. 그 기발은 오늘도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력사를 전하며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펄펄 나뭇기고있으며 자주로 존엄떨치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내 조국의 무궁번영한 력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영원토록 휘날릴것이다.

영원한 기발, 우리의 붉은기는 무엇으로 영원한 것인가. 이 물음에 단편소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해답을 주고있다.

붉은기의 영원성에 대한 철학적해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아무리 복잡하고 간고하다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붉은기는 우리 혁명의 상징이다.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자기의 색조를 잃지 않고 더욱 거세차게 나뭇기는 우리 혁명의 붉은기.

우리의 붉은기는 무엇으로 영원한가.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자주정신과 주체의 신념이 그 붉은 색조에 어 려있 기때문이며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생의 자욱과 불멸의 업적이 그 기록에 깃들어있 기때문이다.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 철석의 맹세를 담아 화전의 언덕에서 높이 추켜드신 붉은 기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고수해오신 신념과 향심과 의리의 상징이었다.

단편소설 《영원한 기발》(김익철)의 형상세계가 이것을 확증하고있다.

적들의 포위에 든 남패자로 찾아온 화성의 숙때 기숙사에서 침식을 같이하던 동창생, 《E.C》를 결성할 때 붉은기앞에서 누구보다 열렬히 맹세를 다지던 립석중, 하지만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자 《생명이 있구야 인생도 있》다며 가련한 생명을 부지하려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졌다.

보천보전투때 주재소에서 구원되어 혁명군에 입대한 리재석, 그도 적 《토벌》대 3개 사단이 포위하자 겁을 먹고 붉은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시련앞에서 좌절을 느끼신것이 아니라 붉은기에 새겨진 아버님과 어머님의 당부를 생각하시고 붉은기를 지켜 희생된 동지들을 추억하시며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사명을 가슴깊이 새기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남패자를 떠나 고난의 행군길에 오르신다.

단편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붉은

기는 《혁명선배들의 뜻과 동지들의 피가 물든》, 혁명가들이 한생토록 간직하고 지켜야 할 인생철리가 깃든 신념의 기치, 량심과 의리의 기치임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붉은기는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떨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기치이다.

단편소설 《계승》(김통연)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계주봉으로 된 총대계승의 철학을 형상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62돐을 맞으며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에게 《백두산》권총을 수여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수여하신 《백두산》권총, 여기에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총대로 끝까지 계승완성해야 한다는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가 담겨져있었다.

단편소설은 권총수여식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하여 우리 혁명의 준엄한 력사, 총대계승의 성스러운 력사를 의미깊게 펼쳐보이고있다.

1920년대 무용에서 아버님으로부터 《빠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 1949년 9월의 그 비통하던 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애용하시던 권총을 유산으로 넘겨받으신 위대한 장군님, 준엄한 전화의 나날 김형직선생님 탄생 58돐이 되는 뜻깊은 날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할 때까지, 전세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혁명의 계주봉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권총을 넘겨주신 아버지수령님.

작품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만경대혈통, 백두산총대혈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우리 혁명의 총대계승의 력사를 펼쳐보이고있으며 이 성스러운 계승이 있어 우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총대계승의 전통이 우리 혁명의 붉은기에 뜨겁게 어렁기기에 붉은기는 선군조선의 창공에 영원히 휘날릴것이다.

우리의 붉은 기폭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동지애의 력사가 빛나게 수놓아져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최대의 기쁨으로 되는것, 그것은 곧 혁명동지를 얻게 되는것이

다.》는것을 한생의 신조로 삼으시고 혁명적동지애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권정웅)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사랑의 력사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집필에 대한 구상을 하시던중 김책동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리움에 젖어 꺼내보신다.

진실하고 순결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는 총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온 김책동지, 원동의 하바롭스크코외에서 그를 처음 만나던 때로부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슴치며 그와 영결하던 때를 추억하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김책이, 그의 이름은 동지! 혁명동지! 나의 회고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회고인 〈세기와 더불어〉의 총적주제는 동지로 되어야 한다. 동지이외 그 어떤 다른것으로는 결코 될수 없는것이다.》라고 뜨겁게 뇌이신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눈앞에는 시련많은 혈전만리를 헤쳐오던 나날에 뜻과 정으로 맺어진 수많은 혁명동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위대한 동지사랑의 서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하신 후 어느날 수령님의 집무실 금고에 있는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을 보시며 걱정애 넘쳐 뜨겁게 말씀하신다.

《참말 감격적입니다. 혁명의 그 모든것이 함축집약된 친근한 부름 동지! 이보다 더 뜨거운 부름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고귀한 호칭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며 또 그것이 영원한... 혁명의 핵이고 혁명의 진리... 우리가 언제나 찾고있는 혁명의 변증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입니다. 나는 이 뜻을 영원히 가슴속깊이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렇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뜨겁게 이어져 우리 혁명은 영원한 동지애의 력사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우리의 붉은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천만사람모두를 굳게 묶어세우신 일심단결의 력사가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고 믿음에는 차별이 없었다. 혁명전사로부터 애국적인 기업가, 지어 반공을 일삼던 완고한 민족주의자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주시어 혁명대오, 일심단결의 대오에 세워주시었다.

단편소설집에는 유격근거지에 왜놈 《토벌》대가 달려들 때 심한 부상을 당한 창룡이를 자신의 백마에 태워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전설을 담은 단편소설 《크나큰 사랑속에서》(진재환)도 있고 유격대원들을 보내어 이제 날이 밝으면 왜놈들에게 몽땅 총살당하게 된 오대희로인의 가족들을 구원해주시고 해방된 조국땅으로 불러주시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 《봄의 축복》(박혜란)도 있다.

또한 굉장히 큰 범을 잡아 범가죽과 함께 메돼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녀성포수 복덕의 부부를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으로 사냥총도 안겨주시고 축배잔도 손수 부어주시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 《인간세상》(신태일)도 있고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속을 헤치고 전선사령부에까지 나가시어 처벌을 받을번 한 김윤복대대장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신랑이 없이 그의 편지를 놓고 잔치상을 받은 전선사령부 제1응급처치소 간호원 서미영을 부르시어 저녁식사를 차려주도록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그린 단편소설 《수안보》(조수희)도 있다.

꼭절 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한 기업가를 천길 나락에서 구원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친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김명익).

단편소설 《태동하는 봄날에》(강현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던 김구를 진정한 애국, 애족의 길을 견도록 이끌어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장군님, 러놓고말해서 난 정치를 찾아왔다가 인덕의 기둥을 만났습니다. 인덕으로 배달민족을 묶어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이라는 기둥을 말입니다.》

이것은 편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북으로 온 김구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에게 러놓는 진정의 웨침이었다. 여기에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천만사람모두를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고 진정

한 애국, 애민, 애족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가 함축되어있다.

우리 혁명의 붉은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의 력사가 어려있다.

시련많은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도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피어날 태일을 그려보시며 힘을 얻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

단편소설 《마지막휴식》(신용선)은 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나날인 1994년 7월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의 깊은 의미를 해명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제부문일군협의회 휴식시간에 항일무장투쟁시기 기관총소대장이었던 최달호의 증손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그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이 애는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새 세계의 주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진군을 앞두고 최달호의 안해가 해산을 했을 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신다.

최달호소대장이 조국진군을 눈앞에 두고 한시가 바쁜 때 안해가 해산을 했다고 면구스러워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요. 면목이 없는것이 아니라 동무들은 온 부대에 커다란 힘과 기쁨을 가져다주었소.

〈미래를 사랑하라!〉 우리 전우들은 단두대우에서도 웃으며 이렇게 웨치군 했소. 미래란 무엇이겠소? 그것은 여기 눈덮인 밀영에서 오늘 아침 태어난 동무의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란 말이요. ...》

후대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이렇듯 숭고하고 뜨거운것이였다. 그것은 붉은기를 이어받아 조국의 미래를 꽃피워갈 혁명의 피줄기, 혁명의 계승자들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신념이고 의지이고 맹세였다.

이처럼 단편소설집에 실린 모든 작품들에는 백두에서 높이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뜨거운 심장에 안으시고 우리 조국과 혁명,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자욱자욱들이 숭고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형상되어있다.

붉은기에 어려있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의

자욱,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고 그 길에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 부딪친대도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을 굳은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 영원한 원천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붉은기는 영원한 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우리의 붉은기는 선군조선의 푸른 하늘가에 영원토록 휘날릴것이다.

이것이 단편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열렬한 호소이고 강렬한 충격이며 신념의 메아리이다.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안겨오는 절세위인의 형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5) 《영원한 기발》의 높은 사상은 숭고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더욱 부각되고있다.

희상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해방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희로인의 일가에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단편소설에 담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친 《봄의 축복》이 보여준 집약화, 집중화된 재치있는 구성조직, 눈물속에서 우리 수령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절절하게 체험하게 하는 단편소설 《따뜻한 보금자리》의 서정시와도 같은 질은 서정세계... 모든 작품들이 높은 형상수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 품모를 감명깊게 그려보이고있다.

단편소설집 《영원한 기발》에서 주목되는것은 위대한 인간의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 아버지수령님의 친근한 모습이 안겨오도록 형상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마지막휴식》의 술방울팔랭이세부를 보자.

기관총소대장 최달호의 안해 정옥의 생남, 그것은 눈덮인 밀림속 밀영의 환희였고 기쁨이었으며 랑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으로 어린이의 출생을 축하해주실가 생각하신다. 눈덮인 밀림속이라 아무것도 없었다. 빈손으로 갓난애기를 찾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밀림속을 거니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눈우에 떨어진 술방울로 술방울팔랭이를 만들어 갓난애기에게 안겨주시며 《사랑관이

너에게 줄것이란 이것밖에 없구나.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마.》 하고 약속하신다.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생활적으로 진실하고도 친근하게 그려져있는가.

철과 철이 맞부딪치고 불과 불이 엉켜돌아가는 준엄한 전쟁시기 손수 토끼들에게 먹이풀을 주시고 우리에서 빠져 달아난 토끼를 대원들과 함께 잡으시는 수령님.(단편소설 《높은 하늘》 리민탁)

전쟁전 은파산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와 한번도 사진을 찍지 못해 얼굴도 잘 모르는 한 평범한 전사의 마음속 그들을 가져주시기 위해 그의 중대를 또다시 찾으시여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구 찍으라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단편소설 《기념사진》 김정민)

한 기업가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의 세계를 그린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성태판에게 가까운 친구가 하는 부탁처럼 눈에 맞는 안경을 잘 만들어달라고 세번씩이나 부탁하시는 생활세부가 있다.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도 레사로운 세부이다. 그러나 이 세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부탁에는 성태판이라는 한 기업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수령님의 뜨거운 믿음의 철학이 깔려있는것이다.

이처럼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밝혀낸 진리만이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진실하고도 감명깊게 그려낼수 있으며 수령형상문학의 수준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절세위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탐구형상하여 수령의 위인적이면서도 한없이 자애로우며 친근하고 인자한 품모가 확 안겨오게 그려야 한다는것이 단편소설집 《영원한 기발》이 주는 귀중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5)는 주체의 붉은기, 혁명의 붉은기에 어려있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의 력사를 감명깊게 새겨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이어 우리 조국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고계시는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해줄것이다.

김일성장군찬가

리 찬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의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
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만고풍상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된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따사로운 초양은 이미 령세한 눈발우에
드리우고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주체35(1946)년 4월

령도자와 작가

혁명시인 리찬과 《김일성장군찬가》

최 언 경

4월의 따사로운 봄빛이 하늘땅에 넘치는 태양절
의 이 아침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해방직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신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높이 울려퍼졌던 헌시
《**김일성**장군찬가》를 가슴뜨거이 회고하고있다.

헌시 《**김일성**장군찬가》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혁명시인 리찬의 시
문학의 훌륭한 대표작이며 해방후 수령송가문학을
빛나게 장식한 명작의 하나이다.

그것은 시에 담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시인의
충정과 송축의 감정과 열도가 강렬하고 절절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경지가 완벽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창작은 고도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사업

이다. 지시나 의무감에 의해서는 수량을 진정으로
우러르는 좋은 작품을 쓸수 없다.》

헌시 《**김일성**장군찬가》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
해방의 밝은 빛을 안겨주시고 민족재생의 넓은 길
을 열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르고 흠모하는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열렬한 분출이였다.

헌시 《**김일성**장군찬가》의 창작에는 가슴뜨거
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35(1946)년 4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는 탄생일도 새
조국건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멀리
함흥땅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환영을 굳이 사양
하시고 소문도 없이 밤차로 함흥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른새벽 찬이슬을 헤치시
며 동흥산에 오르시여 함흥시의 건설전망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홍남지구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어 홍남비료공장 로
동자들앞에서 《새 조국 건설에서 모두다 로동영웅
이 되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소문도 없이 그리고 조용히 오시였건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시었다는 꿈같은 소식은 삼시
에 온 함흥땅에 퍼져갔다.

시인으로서 함흥에서 기자생활을 하고있던 리찬
은 꿈결에도 그리고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
옵고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러던 4월 19일 저녁 시인이 것처럼 절절히 바
라고바라던 소원이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뜻밖에
이루어졌다.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
이한 크나큰 감격을 안고 도안의 인민들이 뜨거운
감사의 정을 안고 소박하나마 지성다해 마련한 연
회에 참가하라는 초청을 받았던것이다.

흥분된 심정을 가가스로 누르며 시인이 연회장
으로 달려가니 거기에는 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
체 일꾼들과 기업가, 상인, 종교인대표들이 수많
이 모여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존안으로 환히 웃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였
다. 순간 연회장은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로
떠나갈듯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빛같이 밝
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었다.

시인 리찬의 심장은 너무도 세찬 걱정으로 하여
높뛰고 설레었다.

아, 저분이시구나. 암흑속에 헤매이던 그 나
날 오매불망 그리고그리던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

아, 얼마나 젊고 림름하신분이신가! 만주광야
설한풍속을 헤치시며 일제 백만대적을 때려부시
고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조국을 찾아주
시고 희망찬 밝은 앞날을 마련해주신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

아, 그렇게도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이렇게
뵈옵게 되다니. 정녕 꿈인가, 생시인가!...

온 장내가 조용해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
령우령하신 음성으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수령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참가자들모두가 뜨거운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이때 청년 한명이 불쑥 일어나 수령님앞으로
다가가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그가 바로 민족의
태양을 만나뵈온 감격과 흥분을 누를수 없어 일어
선 시인 리찬이었다.

이윽고 시인은 걱정으로 높뛰는 심장을 통채로
쏟아내는듯 열정적으로 즉흥시를 읊기 시작했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그 시가 바로 리찬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아니,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진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린 《**김일성장군찬가**》였다.

시랑송이 끝나자 장내는 또다시 《**김일성장군 만
세!**》의 환호와 박수갈채로 떠나갈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을 들어 따듯이 답례하
시고 시인의 앞으로 걸어오시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순간 리찬은 솟구치는 감사의 정, 행복의 걱정을
금치 못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마음
껏 흐느껴울었다. 그것은 진정 설음닿던 식민지청
년시인으로부터 혁명시인으로서의 운명전환을 알리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참으로 《**김일성장군찬가**》는 우리 인민이 해
방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인사
였다.

현시 《**김일성장군찬가**》는 우리 주체문학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는 위대한 태양의 노래
이며 명작중의 명작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
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열정이 최상최고의 높이
에서 뜨겁게 차넘치고있기때문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리울수 없는 우리
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만민의 령장》, 《인류
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의 심장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스
스로 우러나온 진정의 토로이며 수령님께서 가리
키시는 길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충정의 맹세
이다.

몸서리치는 서대문형무소의 차디찬 감방에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뵈옵고싶은 그리움에
심장을 불태우며 잠 못들던 시인이었다. 그리하여
출옥한 후에는 백두산에 태양을 그려넣은 조선지도
를 가슴에 품고 장군님 올리시는 항일의 총성이 가
까이에서 들려오는 압록강연안으로 달려와 두메산
골 귀틀막 광술불아래서 《눈내리는 보성의 밤》,
《국경의 밤》과 같은 시들을 창작한 시인 리찬이
였다.

태양, 위대한 태양, 이 부름은 수령님을 흠모하
며 그리던 그 나날에 벌써 그의 심장속에 빛나고
차넘치던 부름이었다.

《**김일성장군찬가**》가 명작중의 명작으로 되는
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절절하고
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기때문이다.

인민의 열렬한 환영에 《장군이 아니신دت》,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틈》 굳이 사양하지는 위대한 수령님.

진정 이 짙막한 두줄의 시구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의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위대성이 빛발치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사소한것도 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면서도 인민우에 서는 그 어떤 특전도 완강히 거절하시는 인민의 진정한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우리 수령님의 가장 고결한 위인적품도인것이다. 시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이 위인적품도를 간명하면서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김일성장군찬가》가 명작중의 명작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셨을뿐 아니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기때문이다.

시에서는 해방직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민주개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장군의 파사로온 초양은 이미 령세한 논밭우에 드리우고》,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는 구절은 아버지수령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는 구절은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서고야말 민주조선의 새 모습, 온 세계에 존엄떨칠 우리의 태일을 심장으로 확신하고있다.

《김일성장군찬가》는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선 명작중의 명작이다.

시에서는 절세의 위인의 위대성에 매혹된 서정적 주인공의 뜨거운 감정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짧은 시구절속에 담아 독특한 시적표현으로 펼치고있다.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

짧은 이 시구절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토록 젊으신 나이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 여기에 우리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존엄이 있고 무상의 궁지가 있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이다.

이 구절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만년 젊어계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영원무궁토록 부강번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과 념원, 희망과 기대가 뜨겁게 어려있다.

...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

우리 수령님은 바쁘시다. 만주광야 피어린 길을 헤치시던 항일전의 준엄한 나날 단 하루밤만이라도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대원들에게 조국이 해방된 다음 꼭 쉬시겠다고 말씀하시던 수령님, 하건만 해방된 오늘은 건당, 건국, 건군으로 더욱 바쁘시다.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마음 하늘에 닿았건만 우리 수령님께 새 조국건설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가 달려있기에 서정적주인공은 우리 수령님 바쁘셔야 한다고 눈물속에 목메여 웨치는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시인의 뜨거운 심장의 열렬한 분출인 《김일성장군찬가》.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주체59(1970)년 10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으시여 《김일성장군찬가》가 실린 당시 신문을 보아주시면서 20여년전 함흥에서 청년시인 리찬을 만나셨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1(1982)년 2월 리찬이 함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삼가 드린 시 《김일성장군찬가》를 시인의 사진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하신 수령들의 추억속에 남아있는 시, 근 7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사랑하고 읊는 위대한 태양송가, 명작중의 명작을 창작한 시인보다 더 궁지롭고 행복한 시인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 혁명시인 리찬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우리 주체문학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긴 명작 《김일성장군찬가》와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들을 충정으로 노래한 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한 선배시인들의 창작경험을 본받아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온동지를 심장으로 노래하는 훌륭한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리영환

1

멀리서 들려오는 둔중한 포성, 어둠을 찌는 탐조등빛, 자지러진 총소리, 실실 연기를 내뿜는 불타버린 나무그루터기들… 격전의 혼적인양 여기저기 파헤쳐진 흰눈덮인 산고지는 얼룩소의 잔등처럼 보였다.

매캐한 화약내가 떠도는 전호가에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 서계시였다.

대한의 맵판 눈보라가 매연이 뒤섞인 먼지기둥을 말아올리며 고지를 휩쓸었다.

장령들과 나란히 서있던 부판이 몹시 추운듯 목을 움츠리며 장군님께 말씀올렸다.

《장군님, 날씨가 참니다. 갯도안으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적들이 싸울린 조명탄불빛이 어룡어룡 아군진지에까지 미쳐왔다.

수행원들속에 서있던 부판이 장군님께 다시금 간청올렸다.

《장군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궁하시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전선을 굽어보시는 그의 안광에는 근엄하고도 불가항력적인 강철의 의지가 번뜩이였다.

류별나게 키가 크고 어깨가 짙 벌어진 임찬렬사단장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께서 무슨 일로 저녁늦게 자기 사단에 찾아오시였으며 어이하야 떠날줄 모르시는지 그 깊은 심중을 헤아릴수가 없어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요즘 정세는 몹시도 긴장하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감투를 쓰기 바쁘게 조선전선에 날아들어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와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를 비롯한 살인장군들을 모아놓고 원자탄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영예로운 정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이른바 신공세를 모의하였다. 이리하여 전선동부와 중부에 수백대의 탱크와 비행기, 수천문의 포가 집결되었으며 추종국가군대들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였다.

전선형편은 엄혹해졌다.

최후의 결사전으로 부르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의 존토를 사수하자는 전투적구호밑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으시는 장군님께서서는 불사신처럼 일떠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몹소 전선으로 나오시였다. …

그이께서는 전선사령부 참모장과 임찬렬사단장에게 적들의 《신공세》를 짓부실 구체적인 전법을 가르쳐주시였다. 갯도에 의한 적극적인 방어와 함께 적들의 지휘부와 비행장, 탱크와 포진지, 교량과 요충지들을 습격하여 적들이 정신을 차릴수 없게 수세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주실수 있는 가르치심을 다 주시였건만 그이께서는 선뜻 고지를 떠나지 못하신다. 과연 그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것인가?

전호가에는 더질듯 한 정적이 깃들었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 임찬렬에게 물으시였다.

《사단장동무, 지금 문성룡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문성룡은 사단정치일군인데 장군님께서 잘 아신다.

임찬렬은 뜻밖의 물음에 자못 긴장해졌다.

《문성룡동무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임찬렬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문성룡은 지난해 10월 땅크습격조에 자진하여 나갔다가 그만 특공에 판통상을 입었다. 부득불 갑비뼈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와서 수술 자리는 다 아물었으나 얼굴이 하얗고 버쩍 마른 야전병원 원장은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다고 감정을 썼다. 제대라니 웬말인가? 문성룡은 펄쩍 뛰며 원장과 해보았지만 뻔뻔한 원장은 굽어들지 않았다. 아무래도 원장과는 안되겠는지 문성룡은 병원을 뛰쳐나와 임찬렬만 딱하게 하였다.

《사단장동지, 지금 당에서는 우리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결사전에 나설것을 호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늘 리수복이나 조곤실영웅처럼 싸워야 한다고 앞장서서 웨치던 정치일군이 말입니다.… 전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고지를 떠나지 않으렵니다.…》

《당분간 화선휴양소에 좀 가있소. 그동안 내 대책을 세워보지.》

임찬렬은 무슨 아이들처럼 때질을 쓰는가고 하면서 적당히 둘러쳤다.…

작풍이 불어왔다. 눈가루와 재티와 흙먼지가 전호안으로 확 쓸어들어왔다.

적진속에서 때아닌 고동소리가 울렸다. 아군의 습격을 두려워하는 놈들의 공포에 질린 고동소리였다.

임찬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장군님께서서는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었다.

《문성룡동무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래 사단장동무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찬렬은 나직이 한숨을 들이그었다.

《사실 군모를 벗기기엔 아까운 동무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복무가 불가능합니다. 병원원장은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총참모부에 보고하겠다고 올려댑니다.》

적진속에서 신호탄이 울랐다.

장군님께서서는 신호탄에는 개의치 않고 가볍게 룡말을 하셨다.

《그것참 야단났구만. 총참모부에서는 나한테도 보고할텐데 그럼 난 어쩐다?》

허허… 눈감아주면 원장이 가만 안있겠지?》

부관이 쟁도안으로 들어가시자고 장군님께 다시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시퍼렇게 얼어든 장령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사단장감시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다.

저벅저벅… 발자국소리들이 쟁도안을 울리었다.

저 멀리 쟁도 한끝에서 통소소리가 울려왔다. 구성지면서도 부드러운 통소소리는 얼어든 몸을 녹여주는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추억을 불러오는것 같기도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따르는 총정치국일군에게 말씀하셨다.

《통소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화선오락회를 하는게 아닙니까?》

총정치국일군은 그렇다고 말씀올렸다.

《병사들의 노래소리는 들을수록 새힘이 솟습니다. 가서 쟁도가 들썩하도록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오. 노래소리가 높아야 사기가 나서 싸웁니다.》

총정치국일군이 달려가자 그이께서는 감시소안으로 들어서시었다. 잠망경 2대가 설치된 감시소안에는 수류탄탄피로 만든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윽하여 병사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임찬렬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그냥 열어놓으라고 하시었다.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조용히 물으신다.

《그래 사단장동무 문성룡동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임찬렬은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라 말씀올렸다.

《장군님, 전번에 외무성의 한 일군이 문성룡을 ×나라 대사관 무관으로 보내는것이 어떠냐고 문의해온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무관으로 내보낸단 말이지요? 그럼직한 방책이긴 한데… 풍채 좋고 외국어에 능하고 리론수준이 높은데다가 언변이 좋으니 대사관 무관으로서는 참 제격이요. 그런데 그가 무관으로 가겠다고 할가?》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당사자가 있어야 의논이라도 해볼것이 아닌가?

문성룡의 일을 그냥 놔두시고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장군님입니다. 임찬렬사단에 오시면 그를 만나보겠거니 했는데 그는 화선휴양소에 가고 없다. 언젠가 문성룡과 전선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그가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더구나 그이의 품속에는 문성룡에게 주자고 가지고오신 그의 딸애사진이 간직되어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신문을 펼쳐드셨다. 신문기사를 읽으시는 그이의 뇌리에 문성룡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리후리한 키, 굵실굵실한 머리카락, 어글어글한 두눈… 그이께서는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보신다.

(문성룡!)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해방직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서울에서 청년운동을 하

고있던 문성룡은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곧 서울에 입성하신다. 우리는 새 나라의 군대가 되어 장군님을 옹위하자.》

언변 좋은 그의 선동력은 불길과 같이 애국으로 피를 끓이는 수많은 청년들의 심장을 달구었다. 잠간사이에 수백명의 청년들이 집결되었다. 허나 미제의 탄압으로 민족군대가 되겠다고 모여왔던 청년들이 하나둘 철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문성룡은 급기야 핵심적인 청년 100여명을 골라 평양으로 보낸다는 기별을 보냈으며 그 100여명을 데리러 온 임찬렬의 손목을 붙잡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장군님 군대가 되는것은 저의 필생의 소원입니다. 지금 당장 장군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더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야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면 보초병이라도 좋으니 저를 꼭 입대시켜주십시오.》

임찬렬이로부터 문성룡의 소행을 보고받으셨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꼭 한번 만나보고싶으셨다.

문성룡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토록 총을 잡고 싶어하던 사람일진대 과연 군복을 벗길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임찬렬과 장령들에게 결상에 앉으라고 하셨다.

신문을 읽으시는 그의 심중에 느닷없이 추억의 한페지가 떠올랐다.

2

1947년 2월.

문성룡이 평양에 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를 저택으로 초청하시였다.

눈이 내렸다.

어슬어슬해울 때 발을 텅텅 구르며 임찬렬과 문성룡이 마당에 들어섰다.

음식상을 앞에 놓고 기다리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을 열고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셨다.

두눈이 어글어글한 문성룡은 보기 좋게 물결처럼 넘어간 고수머리우에 내려앉은 눈을 털고 뚫어앉아 인사부터 올리였다.

《장군님, 남쪽에서 별로 한일없는 문성룡이 장군님을 뵈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의 손을 따뜻이 잡아 일으키시였다.

《어서 일어나시오. 한번 만나보고싶었었는데 만나보니 구면같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문성룡의 잘생긴 얼굴을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참 미남자로구만. 어서 들어갑시다. ... 우리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모두들 소박한 음식상앞에 마주앉았다.

김정숙녀사께서 도글도글한 경단을 담은 낫사발을 들고들어와 문성룡의 앞에 놓아주셨다.

《황해도사람들이 경단을 좋아한다기에 만들었는데 문동무 입맛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어서 드세요.》

문성룡은 다심한 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백두산의 녀장군으로 소문난 녀사를 이렇게 만나뵈울줄은 정말 몰랐다.

《황송합니다.》

녀사께서는 사양말고 많이 들라고 하시였다.

문성룡은 갑자기 찾아온 행복앞에 어리둥절하여 두눈만 습벽이였다.

장군님께서 손수 문성룡에게 수저를 들려주시였다.

《자, 우리 천천히 음식을 들면서 문성룡동무가 살아온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문성룡은 목이 메어 먹을수가 없었다. 마실수도 없었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무엇인가 자꾸 터져나오려고만 했다. 그는 울먹울먹하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뢰이듯 아이적 목소리로 가슴속 사연을 다 말쑤드렸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령리한 고수머리소년은 한문을 잘하여 신동으로 소문났었다. 소학교시절 학교게시판에는 그가 지은 작문이 늘 걸려있군 하였다. ... 커가면서 문필가가 되고싶은 향학열을 꺼버릴수 없어 도교로 건너가 고학살이를 했다. 우유배달, 샷집운반... 아무리 코피를 쏟으며 밤늦도록 공부를 하여도 나라없는 식민지청년의 설움은 커만가고 문필가가 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태평양전쟁바람에 까딱하면 징병에 끌려가 왜놈의 대포밥신세가 되어야 했다.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몰래 웅진으로 되돌아왔으며 변성명하고 《매일신보사》기자로 일하면서 유격대공작원인 임찬렬의 영향을 받아 등사기로 뼈라를 찍어냈다. 나라가 해방되기 몇달전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였다. 왜놈들은 조직의 비밀을 대라고 악착스럽게 고문하였다.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앙갚음으로 징용에 끌려갔다.

해빛도 한점없는 습기차고 먼지 낀 야마구찌현의 군수공장굴간에서 고된 노동과 영양부족으로 결핵에 걸려 결레처럼 던져졌다. ...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문성룡은 조국이 해방되자 고향을 향해 현해탄을 건너왔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생의 활력이 솟구쳐올랐다. 이제는 해방된 내 땅에서 마음껏 글을 쓰며 희망을 꽃피우리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그의 두번째 갈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어떻게든 문필가가 되고싶었지만 미제를 그냥 놔두고서는 희망을 실현할수 없음을 알았기에 눈물을 머금고 붓을 꺾었다. 그는 투쟁에 나섰다.

...민족군대가 되려고 서울에 찾아오는 청년학생

들을 묶어세웠으며 먼저 100여명의 청년들을 평양으로 떠나보냈다.

김질긴 추적, 때없는 저격... 탄압의 칼부림은 갈수록 세차졌지만 문성룡은 주저앉지 않고 반미항전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방안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문성룡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어 말씀하셨다.

《동문 어린 나이에 너무도 많은 곡절을 겪었구만.》

그랬었다. 지나간 세월은 문성룡의 희망과 청춘을 모질게도 매장해버렸다. 이룰래야 이룰수 없었던 문필가의 소원, 어찌하여 그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자그마한 꿈마저 실현할수 없었더라 말인가? 그것이 문장에 대한 신비한 매혹으로 가슴을 들먹이던 감상적인 청년을 왕청같이도 항거하는 투쟁의 불덩어리로 돌변시켜놓았다. 그 어지러운 세상을 들부셔보려고 잠인들 변변히 잤으며 더운 음식인들 제대로 먹어보았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남비안의 송어국이 식을세라 더운 국물을 부어 문성룡의 앞으로 밀어놓으시었다.

《예로부터 소문이 난 평양송어국이요. 식기 전에 좀 드요.》

장군님께서서는 차디찬 사회에서 열대로 얼어든 문성룡의 몸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바라시었다.

문성룡의 두눈에서 후더운것이 풀렁 국사발에 떨어져내렸다. 그는 꼭 고향집에 온것 같다고, 친부모님을 만나뵙는 심정이라고, 많이 먹겠다고 무릅없이 말씀올리며 송어국을 곱배기하였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달아오른 문성룡은 격동되어 즉흥시를 읊었다.

태양이 없는 삶은 추웠습니다
따뜻한 해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나는 너무도 얼어서였던지
해님만을 해님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문성룡의 한생의 총화이면서 새로운 결의이기도 하고 엄숙한 맹세이기도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박수를 치시며 화제를 돌리셨다.

《나는 성룡동무가 문학에 취미가 있다는것을 압니다. 그래 문동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성룡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생활로 굳어진 마음속 결심을 서슴없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는 군복을 입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이 심분 리해되시었다. 망국에 울고 학대에 몸부림치며 반항의 주먹을 틀어쥐었던 울분의 사나이, 시위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이 미제의 총탄에 가슴쥐고 쓰러질 때 그가 깨

달은것은 과연 무엇이였겠는가? 맨주먹으로는 총을 이길수 없다, 총에는 오직 총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군님군대가 되겠다고 버르고버르던 불같은 사나이.

《장군님, 저를 군대에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문성룡의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고여올랐다.

얼마나 군복을 입고싶으면 저러랴.

장군님께서서는 혼자말처럼 뇌이시었다.

《소원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흥분한 문성룡의 마음을 달래이려고 더운물을 한잔 따라주셨다.

《자, 너무 심각해서 그러지 말고 물을 들면서 천천히 의논해봅시다.》

참으로 지금 장군님의 심중은 착잡하시었다. 문성룡의 요구대로 군복을 입히고싶으시었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있는 천성적인 재능과 소원을 찾아내어 이루어주는것이 아니겠는가? 문성룡은 지휘관으로서의 품격도 나무랄데 없지만 그보다 언론인으로서 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이 더 값있고 보람찬것이 아니겠는가? 그이께서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차잔을 입으로 부시고 목을 추기시었다.

《성룡동무, 내 알기엔 동무가 어려서부터 문필가가 되기를 희망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장군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속에서 잠자고있던 희망에 세찬 불꽃을 튀겨주었다. 그 불꽃은 못 잊을 어린시절의 추억과 그 시절의 소중한 꿈을 생생히 되살려주었다. 정녕 얼마나 글을 쓰고싶었겠는가?

...우편배달부로 일할 때 고수머리소년은 글씨종이가 없어 신문테두리의 여백을 오려 엄지손가락만 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다니면서 잠시간이 나는대로 깨알같이 글을 써넣곤 하였다. 어느날 밤 일을 끝내고 생각나는것이 있어 전주대에 매달린 전등밑에서 급히 글을 써넣던 성룡은 그만 왜놈주인에게 들키고말았다. 놈은 다짜고짜 수첩을 빼앗아 발로 비벼대며 으르렁거렸다. 《우리한테 글쓰는 기계보다 힘쓰는 인부가 필요하다. 계속 글을 쓰고싶거든 우편국에서 당장 나가.》

짓이겨진 수첩을 보는 성룡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자기의 꿈이 짓밟힌 억울함에 주먹이 떨렸다. 우편국에서 나가면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이었지만 글을 쓰고싶은 소원은 더 강렬한것이어서 분연히 왜놈주인을 둘러메치고 우편국을 나와버렸다. 갈길없는 소년은 그러고도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항학열을 이길수가 없어 고학의 짐을 걸머지고 현해탄을 건너갔다. 이국의 차디찬 하숙방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오로지 문인이 될 꿈을 안고 밤을

지센적은 그 얼마였던가?...

성룡은 그 시절을 정녕 잊을수 없었다. 이어 억눌렀던 희망에 불이 달렸는지 못 견딜 충동이 가슴속에서 끓어번졌다. 새는 갇혀있어도 날기를 잊지 않는다고 글을 쓰고싶은 욕망은 때없이 그의 심신을 괴롭혔었다. 쓰고 쓰고 또 쓰고싶었다.

《장군님, 솔직히 전 꿈속에도... 글을 쓰고... 싶었...했습니다.》

문성룡의 고백을 들으시고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것 보오. 동무한테 군복도 제격이지만 붓대가 더잘 어울릴거요. 난 그렇게 생각하오.》

문성룡의 차잔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내렸다. 언제 그 누가 자기의 자그마한 희망을 알았거나 했던가? 사람들은 그를 운동가로만 알고있지 문필가로는 생각지도 않는다. 자기자신마저 잊어버리고 포기했던 천성적재능을 오로지 장군님께서만이 알아보시고 꽃피워주려 하신다. 아, 꽃망울은 해님이 있으면 피어나기마련이 아닌가!

차잔을 권 손이 가볍게 떨렸다. 차잔속에서는 대양처럼 격랑이 일었다. 그는 마시었다.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마시었다. 그것은 얼어든 몸을 녹여주는 파스함이었다. 말라터진 가슴을 적셔주는 단비였다. 사랑이였고 정이었다.

장군님의 말씀은 북소리처럼 그의 온몸을 뚫뚫 흔들어주었다.

《문성룡동무,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도 〈3.1월간〉과 〈종소리〉, 〈서광〉을 발간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붓대의 위력이 총포탄 못지 않게 중요했기때문입니다. ... 오늘도 우리앞에는 청년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러일으킬 힘있는 출판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무를 청년출판사에 보내여 글을 써우려고 합니다. 동무는 기자생활경력도 있으니 집필사업을 잘해낼겁니다.》

문성룡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망을 성취한 궁지로 움이 빛을 뿌렸다. 억눌리고 굳어졌던 희망과 열정이 분화구를 찾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장군님, 장군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기쁘시었다. 환희로움에 잠긴 문성룡을 바라보시노라니 불쑥 백두산에서 《종소리》를 담당하였던 최경화의 모습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대학생시인으로 불리우던 최경화도 문성룡에게 짝지지 않는 멋쟁이였다. 그는 싸움도 잘했지만 기사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막힌데가 없는 재간둥이였다. 아까운 재간을 남겨둔채 너무도 일찌기 우리의 결을 떠나간 문필전사.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이도 최경화처럼 쟁쟁한 필진으로 혁명에 복무하리라고 믿어마지 않으시었다.

김정숙녀사께서 벽장문을 여시고 새까만 모직양복 한벌과 하얀 와이샤츠, 밤색의 구두, 반짝거리

는 가죽가방을 꺼내오시었다.

《이제 기자생활을 하려면 외모가 단정해야겠기에 제가 뭘 좀 준비했어요. 이 옷이 맞겠는지 모르겠군요.》

문성룡은 영각소리처럼 사나이의 울음을 터뜨렸다. 나서 언제 이런 사랑의 열풍이 자기를 휩싸안은 적이 있었던가? 그는 비로소 자기의 희망이 나래칠 가없는 하늘과 인생이 제 궤도를 따라 줄달음칠수 있는 크나큰 세계가 펼쳐져있음을 보았다, 두팔벌려 안아주는 아버지품을.

장군님께서서는 흐느껴우는 문성룡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었다.

《언제한번 울음인들 마음놓고 울어보았겠소. ... 난 동무를 믿소. 동무는 우리가 준 과업을 꼭 해낼거요.》

문성룡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경건히 맹세를 다졌다.

《고맙습니다. 장군님말씀대로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쥐겠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방안에는 뜨거운 사랑의 열풍이 감돌았다.

3

밤은 바닥없이 깊어간다.

총소리가 도간도간 정적을 깨뜨릴뿐 전선은 파괴하였다.

이밤 장군님께서서는 임찬렬사단장과 함께 감시소에 앉아계셨다. 갱도벽에 걸어놓은 서류탄탄피로 만든 등잔불이 쉬임없이 타오르고있었다.

이제는 병사들도 잠들었는지 갱도에서 들려오던 노래소리도 몇어버린지 오래되였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무드기 쌓여있는 신문들과 전투소보들을 하나하나 보아나가지였다. 문성룡이 쓴 신문기사들은 내용까지 다 읽어보시었다. 신문을 보시다가는 깊은 사색에 잠기여 일어나 거니시었다.

얼마나 밤이 깊었는지 부판이 들어와 말씀올렸다.

《장군님, 이제 돌아갈 시간이 지났습니다. ...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판이 왜 조급해하는지 잘 아신다. 래일 평양에서 열리는 내각사무국회의를 지도하셔야 한다. 그러니 전선에서 지체하는 시간만큼 휴식을 잃게 된다. 자칫하면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하실수도 있다. 그이께서는 웃음으로 부판을 달래이였다.

《조금만 더 참소. 인차 떠나지요.》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바쁘셨다.

늘 바쁘신 그이이시다. 전선에서 돌아가시면 국

립연극단에서 창조하는 연극의 시연회도 보아주고 새로 나온 예술영화의 작업필름도 보아주어야 한다.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열리고있는 병사들의 군무자축전도 꼭 보고싶으시었다. 할일은 중중첩첩 겹쌓이고 가셔야 할 길은 많고도 많으시다. 속으로는 늘 바쁜 시간을 안고계시면서도 걸으려는 언제나 태연하고 침착하신 장군님이시다.

부관이 나가자 이번에는 작전국의 장령이 들어와 보고드렸다.

《장군님, 미래평양 7함대가 조선동해를 향해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장령에게 해안방어부대를 증강하며 해안포들이 근거리타격을 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라고 이리시면서 다시금 책상을 마주하시고 신문을 펼쳐드셨다.

임찬렬은 다시 한번 놀랐다. 어쩌면 장군님께서 그토록 태연자약하고 대범할수 있으실가?

사실 장군님께서 마추선 천만대적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시었다. 겹쌓이는 중하도 무겁지 않으시었다. 다만 지금 그이의 심증을 괴롭히는것은 문성룡이문제때문이다. 《고향과 병사》, 《결전의 시각에 살라!》, 《어머니의 당부》 등 문성룡이 쓴 기사들은 하나같이 사색이 깊고 생활적이면서도 격동적이었다. 이처럼 병사들에게 힘을 주는 글을 써내는 문성룡에게서 군복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저이기 마음이 허전하시었다.

정녕 문성룡을 위해 기울으신 그이의 사랑과 배려는 남다른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문성룡이 청년출판사에서 일할 때가 힘이 있는 사본설을 써낼 때면 꼭꼭 보아주시고 고무의 말씀을 해주곤 하셨다. 그가 일을 더 잘하라고 청년출판사가가이에 새집과 가장집물을 마련해주고 김정숙녀사와 함께 가정방문도 하시었다.

그날 집에 찾아갔을 때 만나본 문성룡의 딸 윤희의 모습이 생각나였다. 5살나이에 비해 퍼그나 숙성해보이는 잘생긴 소녀애였다. 흰 살결, 쭉 뻗힌 목, 함박꽃같이 탐스러운 얼굴... 윤희는 사뿐히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이어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바재이더니 갑자기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달아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놀라시었다. 왜 저 애가 울면서 달아나는것일까?

문성룡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웅진에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윤희에게 아버지가 오지 않았는가고 물러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어린것은 담차고도 야무지게 대답했다. 놈들은 아버지가 간 곳을 대지 않으면 쏘죽이겠다고 공포

를 《짱》, 《짱》 쏘냈다. 이때 너무도 놀라서 인지 윤희는 말을 잃어버렸다. 병어리가 된것이다....

이것은 문성룡에게 있어서 무겁게 지고가야 할 걱정의 집이었다. 오늘만이 아닌 래일의 딸의 운명이 우러되었다. 장차 저 애의 앞날을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윤희의 정상이 가슴아프시었다.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릴수 없는 소녀애의 안타까운 마음이 속속들이 헤아려지였다. 오죽하면 눈물지며 달아나겠는가?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딸애가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는데 불행하게도 실어증에 걸렸구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고쳐봅시다. 선천성이 아닌것만큼 얼마든지 언어기능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그 애의 병을 고칠 명의가 꼭 나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후 장군님께서서는 윤희를 큰 병원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해주였다. 그리하여 윤희는 말을 좀 더듬을망정 언어를 되찾게 되었다.

이처럼 품들여 애지중지 키운 문성룡과 그의 딸 애여서 더더욱 정이 쏠리고 잇을수 없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신문속에서 문성룡이 쓴 기사를 찾아내어 임찬렬의 앞으로 내미였다.

《이 글은 문동무가 전투의 썸시간마다 써서 신문사에 보냈다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가 보시오. 글줄마다 포연이 스미고 진실이 맥박칩니다. 읽을수록 새힘이 솟구치고 열정이 끓어번집니다. 우리의 전선에는 총포탄과 함께 이런 격동적인 글이 필요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이 곁에 있으면 칭찬해주고 싶으시었다. 그의 글에는 확실히 개성이 있고 철학이 있다. 기지가 번득이고 호소성이 불같은 그의 글은 병사들을 승리로 불러일으킬것이다.

그이께서는 신문을 흔들어보이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병사들을 위훈어로 부르는 이 신문들을 보면서 새힘을 얻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출판물은 총포탄 못지 않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그랬었다. 실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혁명적출판물발간에 큰 힘을 넣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저 멀리 혁명의 첫 기슭에서 발간한 《새날》 신문을 비롯하여 《불세비크》, 《3.1월간》, 《종소리》 등 얼마나 많은 출판물들이 혁명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왔던가. 그 시절 당당하게 문사로 이름떨치던 김혁, 리동백, 최경화, 최일천이들이 하도 귀중하여 혁명동지로서 내세워주시고 온갖 믿음과 사랑을 다 돌려주였다. 그 한사람한사람의 문제들이 더없이 소중하여 아끼고 보살펴주였다.

아, 불시에 최경화가 쓰러졌을 때의 슬픔이 사무치게 살아오르시었다. 꽃다운 젊음을 바친 그를 못 잊어 장군님께서서는 눈내리는 밀영의 밤 고깔불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몸소 추도문을 쓰시었다. 홀려내리는 눈물이 추도문을 다 적시었다. 그 절통감과 애석함, 그날에 밀림속에 메아리치던 조총소리, 목메인 추도가의 선율... 그것은 아까운 문필가를 잃은 목메인 력사의 호느낌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르기 격동된 음성으로 임찬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밤 이 신문들을 보면서 출판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론을 읽어보면 심장이 뿡뿡 울립니다. 우리의 병사들과 인민들은 이런 글을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신문들에 힘있는 정론들을 더 많이 써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임찬렬의 심장이 쿵쿵 울리었다.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죽음도 각오하고나선 우리 인민에게 필요한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갱도안을 울렸다. 《지금 문필가들이 종군을 하면서 좋은 글을 많이 써내고있습니다. 특히 전사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고있습니다.

노래의 역할은 현대전에서 더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힘있는 노래와 글은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노래, 이러한 글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신다. 인민들에게는 힘을 주고 적들에게는 전율을 주는 이런 노래는 누가 짓고 이런 글은 누가 써야 하는가?

이런 노래, 이런 글이 많을수록 적들의 군사적우세를 정치사상적공세로 짓부셔버릴수 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임찬렬을 바라보시며 확신성있게 말씀하셨다.

《나는 문성룡동무를 사상전선의 제1선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에게 글을 씌웁시다.》

임찬렬은 이밤 장군님께서서 신문을 보시며 모대기신 사색이 문성룡과 이어져있는줄을 똑똑히 알았다. 어이하여 그이께서 병사들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한 전사가 쓴 글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그이께서는 신문을 차곡차곡 접으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오늘 밤 문성룡동무때문에 잠들것 같지 못합니다. 그 동무의 일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 동무에게 전해야 할 말에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부판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안타깝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머지않아 새날이 시작됩니다. 문동무는 후날에 만나시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싶습니다. 인간인 까닭에 그 동무의 얼굴이 더 그립습니다.》

임찬렬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을 우려했다. 문성룡이 이것을 알고나 있는지?...

4

사실 문성룡은 자정이 넘도록 잠들수 없었다.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화선휴양소에는 피자누룩한 정적이 깃들었다. 이따금 불어치는 바람소리에 숲속의 나무들이 우수수 설레이군 하였다.

문성룡은 쭈서나는 허리의 아픔을 참으며 눈을 감은채 무척 착잡한 생각속을 헤매었다. 화선휴양소의 생활은 즐겁고 유쾌하였지만 바늘방석에라도 앉은듯 불안스럽기만 하였다.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가? 사단장은 휴양소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이것이 더 큰 실망감과 고민을 안겨주었다.

휴양의 한때를 즐기는 화선병사들이 배구를 치고 화선악기도 다루며 웃고 떠들었지만 문성룡은 나날이 울적해지고 괴로웠다.

더구나 오늘 그는 등산을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산에서 굴러떨어졌다. 골짜기의 눈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고하여 눈사태를 헤집고 나오니 그만 허리가 푹 부러지는것처럼 아프다. 아마도 수술한 자리에 타격을 받은것 같았다.

문성룡은 아픔보다도 먼저 겁부터 났다. 이를 살펴보고 발걸음을 옮겨보니 걸을수는 있었으나 동통은 참을수가 없었다. 눈앞이 새까맣았다. 이것이야말로 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말없는 선고가 아닌가.

그는 입맛도 없어 저녁밥을 번지였다.

정녕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것인가?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온 전선이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결사의 향전을 벌리고있는 이때 전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빠져버렸다. 야속하다. 이 무슨 꼴인가? 내가 군복을 벗어야 하다니?

극심한 좌절감이 온몸을 휩싸안자 자기가 어떻게 군복을 입었던지 새삼스럽게 돌이켜진다.

...전쟁이었다. 전쟁의 승리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과 희망에 앞서 보다 숭고하고 정의로운 위업으로서 각자에게 총을 들고 피를 바칠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량심이며 스스로가 택하는 결심이다. 하여 행복한 나날에는 미처 몰랐으나 이 땅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누구를 속여 본적 없는 소년들이 나이를 불구어 군대로 나갔으며 총 한번 쥐여본적 없는 심심산골 농군들이 나이

를 줄이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하여 공민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에 문성룡은 서슴없이 발을 내짚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이 군복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몸소 그를 부르시었다.

언제나 뵈고싶던 장군님! 문성룡은 어떻게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섰는지 몰랐다.

견장우에서 빛나는 별, 어깨로부터 사선으로 가쁜 내려드러운 꼭 졸라맨 가죽혁띠, 번쩍거리는 장화, 한껏 흥분된 문성룡의 얼굴은 더 젊고 싱싱해 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군복입은 문성룡의 림름한 모습을 바라보며 몹시 만족해하시었다.

《마치 동무는 군복을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소. 군복이 참 잘 어울리요. 대단한 멋쟁이요. 미남자가 많다고 하지만 군복입은 동무한테는 대비도 안되겠소. 정말 멋있소. 아마 미국것들이 동무의 풍채만 보아도 뉘이 나 같것 같소.》

문성룡은 칭찬을 받은 아이처럼 으쓱해서 힘차게 말쑥드렸다.

《장군님, 저를 전선으로 내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장군님께서서는 껄껄 웃으시었다.

《전선에 내보내달란 말이지? 그래서 내 동무를 불렀소. 나는 동무에게 특별임무를 주자고 하오.》

문성룡은 저으기 긴장하여 차렷자세를 취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의 긴장을 풀어주려는듯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주시었다.

《다름이 아니라 알아보니 청년출판사동무들이 아직 소개를 못하고있소. 그래서 난 그 출판사에서 글을 쓰던 동무가 내려가서 소개사업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문성룡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군복 입고 처음으로 받은 특별임무가 출판사소개사업 일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그는 출판사업이 얼마나 중하면 군인을 파견하겠는가고 머리를 숙이였다.

《알았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과 점심식사라도 한끼 나누고싶으셨지만 복잡한 정황은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성룡동무, 설비들의 소개사업은 적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운수기재들에 위장을 잘하고 야간행군을 많이 해야겠소.》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다.

《출판사를 소개하여 신문을 찍는 일은 전선에서 싸우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요.》

언제나 문필가들을 혁명동지로 내세워주시는

위인의 믿음에 꼭 보답하리라고 문성룡은 속다짐하였다.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문성룡은 그이의 곁을 떠나는것을 몹시 아쉬워하였다.

《성룡동무,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 최경화동무를 잃었을 때 며칠동안 끼니를 잊었다고... 제발 목숨을 함부로 내대지 마오.》

그이께서는 진심으로 문성룡에게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끼 식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보내는것이 몹시 가슴아프신듯 전사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흔드시다가 화제를 돌리시었다.

《참, 윤희가 아버지와 헤어지기 몹시 서운해했겠소. 그 애의 언어장애가 좀 어떻소?》

《예, 그전보다 썩 나아졌습니다. 윤희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혼났습니다.》

사실 문성룡은 팔애가 말을 하게 된것이 천만번 다행스러운 일이였지만 떠듬거리며 글을 읽을 때면 다시금 걱정에 잠기곤 했다. 다 자라서도 저러면 어떻게 시집을 보내랴?

장군님께서서는 병신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문성룡의 심정을 들여다보신듯 떠나는 전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싶어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전선으로 나갔으니 내가 그 애를 돌봐주어야 하겠구만. 어떻게 하든 유능한 의사를 찾아내어 윤희의 병을 깨끗이 고치도록 합시다.》

문성룡은 전쟁이라는 무거운 중하를 걸머지고계시는 장군님의 어깨우에 자꾸만 덧짐을 얹는것만 같아 진심으로 부락울렸다.

《장군님, 더는 저의 딸에 대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뇌이시었다.

《이 세상에 자식들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소. 난 윤희를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소.》

그이께서는 불쑥 주머니에 꽂은 만년필을 뽑아 문성룡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거라도 가지고가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놓일것 같소. ... 손에서 펜을 놓으면 인차 글이 무딘다는데 짹짹 글씨를 쓰도록 하오. 자,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전선에서 만날것을 약속하지요.》

...문성룡은 장군님과 이렇게 작별하였다.

감회깊은 그날을 되새겨볼수록 더 죄스럽고 송구스럽기만 하다.

그는 장군님을 전선에서 뵈올 날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만약 전선에 나오신 장군님께서 자기가 제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는가? 전선에서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까지 했는데... 부상을 당한 자기의 육체가 죽도록 미워났다.

아, 정말 어쩌면 종단 말인가?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뿜으며 가슴에 품은 만년필을 꼭 그러쥐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만년필이다. 늘 호신부처럼 주머니를 만들어 품에 넣고 다닌다. 이 만년필로 전투의 짝시간마다 글을 썼다. 장군님의 체취가 스며있어서인지 만년필만 쥐면 활력이 넘치고 사색이 풍부해지곤 하였다. 그는 만년필을 꼭 그러쥐고 속삭였다.

(만년필아, 네가 한번 말해보렴. 군복을 벗어야 하느냐?)

이밤은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자신의 운명이 걱정될수록 장군님이 더 그리워졌다.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하실가?

장군님이 그리워질수록 얼마전에 딸에게서 받은 편지생각이 난다. 윤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학교에 다닙니다. 제일 속상한것은 동무들과 자유롭게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기뻐하십시오. 며칠전에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의사가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 의사는 제 말더듬이를 깨끗이 고칠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지 마시고 성한 몸으로 잘 싸워주세요. ...》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문성룡은 울었다. 철부지 딸의 앞날을 녀려하여 그토록 바다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메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왜 이밤 딸애 생각이 더 나는것일까?

그 애의 병을 정말 깨끗이 고칠수 있을까?

윤희한테서는 왜 소식이 없을까?

5

기승스런 바람소리도 찾아들고 밤새마저 잠들어 숲속은 한껏 고요하였다.

복두칠성도 졸리는듯 깜빡거리는 깊은 밤 장군님께서 화선휴양소에 찾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구름노전을 깬 따뜻한 온돌방에서 휴양소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어 문이 열리며 기쁨에 넘친 문성룡이 들어섰다. 한밤중에 너무도 뜻밖에 장군님을 뵈게 된 그는 환희와 걱정애 넘쳐 군인이라는것도 잊고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다.

《장군님, 불민한 문성룡이 뵈을 면목이 없습니다.》

《아, 탈주병이 왔구만. 그새 잘있었소?》

장군님께서 일어서서 문성룡의 어깨를 두손으로 꼭 잡아주신 후 상처자리를 어루만져주시었다.

《그래, 상처자리가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소?》

《장군님, 이제 다 나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문성룡에게 결상을 권하며 가볍게 핀잔하였다.

《웬걸, 아파도 참겠지. 그 성미를 모를라구. 아무리 병원원장이 보기 싫다 해도 도망쳐서야 안되지.》

문성룡은 얼굴을 붉히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죄송스럽습니다. 전 그저... 군복을 벗지 않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장군님께서 부드러운 표정을 바꾸시며 엄하게 책망하였다.

《규률은 군대의 생명이요. 최고사령관인 나도 군률을 어긴데 대해서는 용서할수가 없소. 동무같은 도망병이 어떻게 군사복무를 계속 할수 있겠소. 난 동무에게서 견장을 떼겠소.》

문성룡의 얼굴은 금시에 킁킁하게 질리며 머리가 푹 숙어졌다.

결에 앉아있는 임찬렬이도 가슴이 한줌만 해졌다. 장군님께서 성난척 하시지만 그 기상이 엄엄해서 정말 책벌을 주실것만 같았다.

이어 수그러졌던 문성룡의 머리가 천천히 들리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내뿜었다. 그는 말라터진 입술을 감빨며 간절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장군님, 전 그 어떤 책벌도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군적에서만은 제명하지 말아주시시오.》

장군님께서 여전히 근엄하게 되물으시었다.

《그러니 제대되지 않겠다는거요?》

《그렇습니다. 전 죽어도 군복만은 벗고싶지 않습니다.》

문성룡은 부대의 돌격로를 열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최경화동지처럼》 하는 말이 솟구치는것을 삼켜버렸다. 정말 것처럼 살고싶었다.

장군님께서 말없이 방안을 거니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씀하였다.

《...그래, 정말 옆구리가 결리지 않소?》

문성룡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피어올랐다.

《일없습니다. 어제 산꼭대기까지 등산을 해보았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그는 쫓겨보여보려는지 발뒤축을 들었다가 쓱스러운듯 그만두었다.

《허허, 또 거짓말하는구만, 제대시킬가봐.》

장군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넌지시 물으셨다.

《성룡동무, 재외대표부 무관으로 동무를 보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어떻소? 그러면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되지 않소.》

문성룡의 얼굴은 좀처럼 어두워졌다.

《수술도 했겠다, 몸도 돌보면서 무관사업을 해보오. 그 나라의 기후풍토가 동무의 병치료에 적

합할거요.》

바재이며 서있던 문성룡이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는 당원입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가 간직되어있습니다. 최후의 결사전을 앞둔 이 시각 정말이지 다른 나라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문성룡의 눈에는 간절한 소원이 불타올랐다. 마사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라는 전선에 남아 당원구실을 하고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의 마음이 이해되지였다.

그렇다. 지금 온 나라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결사옹위의 성새로 솟아올랐다. 그가 누구이든 목숨을 내대고 이 땅을 지켜싸운다. 나 어린 전사도 아바이병사도 서슴없이 적화점에 가슴을 내대고 적땅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뛰어든다. 그러니 문성룡인들 피어린 전장을 떠나자고 하겠는가?

그이께서는 문성룡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듯 부판이 책상우에 가져다놓은 신문들을 가리켜보이시였다.

《이 신문들을 보니 청년출판사 소개사업을 책임지고 한 문성룡동무 생각이 나더군. 그때 힘들었지?》

힘들었다. 어렵고 간고하여도 문성룡은 소달구지를 얻어다가 인쇄설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개지까지 신고갔다. 적들의 공습에 소가 쓰러지면 달구지체에 어깨들을 들이밀고 사람의 힘으로 명문고개를 넘었다.

고요를 깨트리며 멀리 전선에서 둔중한 포성이 울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포성에는 개의치 않고 감회깊이 말씀하셨다.

《새로운 반공격작전을 구상하고있을 때 나는 문성룡동무가 쓴 사설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결사전에 결기한 우리 인민의 최후승리는 확고부동하다〉 그 사설을 보았을 때 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문성룡은 장군님의 파분한 치하에 황송스럽고 먼 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였다. 어이하여 그이께서 그때일을 그토록 못 잊어하시는지 그 깊은 세계를 알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신문을 펼쳐드시고 문성룡에게 다가오시였다.

《성룡동무, 이 정론도 동무가 썼지?》

신문 1면 상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그날은 멀지 않았다》라는 제명이 크게 안겨왔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 주시였다.

《그렇소. 이 정론은 동무가 입원생활을 하면서 쓴거요. 침상에 누워서 썼단 말이요. 이처럼 동무는 천성적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요. 동무의 필력엔 나도 감탄하오.》

장군님께서서는 이 한마디 말로 문성룡의 성격과 재능을 규정지으시였다. 오직 어머니들만이 말 못하는 자식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볼수 있는것이다. 문성룡이 글을 잘 썼으면 얼마나 잘 썼으랴. 오로지 그의 천부적인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문필전선에 내세워주셨으니 그가 오늘처럼 쟁쟁한 문필가로 자라날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전쟁이라는 막중한 짐을 지고계시면서도 한 전사의 자그마한 기사까지 다 읽어주셨으니 이러한 스승,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형장이 어디 계시랴.

장군님께서서는 걱정을 담아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는 침상에 누워서도 전투를 계속한셈이요. 동무가 쓴 글은 돌격으로 나가는 전사들에게 천백배의 용기를 북돋아주었소. 동무 정말 큰일을 했소. 그러니 동무가 전쟁승리를 위하여 어디에 있는게 더 중요하겠소?》

수사학적인 이 물으심은 질문이기에 앞서 명백한 대답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결심하도록 설득력있게 말씀을 이어나가지였다. 우리는 적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공세로 꺾어버려야 한다, 아이젠하워가 원자탄으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상한 정치사상적공세로 적들을 놀려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붕대의 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한편의 글은 천만말의 포탄을 대신한다, 최후의 승리는 확고하게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니 문성룡동무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

문성룡은 가슴이 벅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승리, 승리는 눈앞에 다가왔다. 그것을 위하여 장군님께서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고계신다.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대학으로, 파학원으로 불러주시고 파괴된 도시와 공장들을 새롭게 일떠세울 휘황한 설제도를 펼치고계신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고 선전공세를 들이댈 새 작전을 무르익히신다. 그이의 작전적방침을 받들고 우리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산악같은 힘으로 일떠서서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둘러앉은 수행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군대에서는 모범중대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반미교양입니다. 영화와 연극, 문학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각종 신문, 잡지들에 기사를 써서 미제침략자들의 교활성

과 추악성, 악랄성과 야수성을 날날이 폭로하여야 합니다.

이런 영화, 이런 글을 많이 쓰고 출판보도사업을 강화하여 승리의 노래가 힘차게 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성룡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자각과 활력이 움 솟아올랐다. 그는 말씀올렸다.

《장군님, 이제 제 할바를 알겠습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글을 쓰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비로소 한밤의 시름이 다 가셔지는 듯싶으셨다.

《동무가 그렇게 결심하니 내 마음도 다 가볍구만.》

그이께서는 웃으시었다. 문성룡의 일로 얼마나 마음쓰시었던가. 그것을 문성룡이 스스로 깨닫고 말아나서니 전사에 대한 애정이 갑절로 커지신다. 그래서 더 크게 믿으시고 더 큰 사랑을 주고 더 보람있게 해주셨으시었다.

《나는 동무가 전투원들을 고무하는 글을 더 많이 쓸수 있게 군대출판기관으로 보내려고 하오. 그러면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되오. 다만 다른 초소로 옮겨갈뿐이요.》

문성룡은 행복에 북받치여 눈물이 글썽해졌다. 1947년의 그날 장군님의 저택에서 받아안았던 그 영광, 그 기쁨이 다시금 온몸을 휩싸안은 환희를 느꼈다. 혁명동지로 품어주시고 한결음이라도 떨어질세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온갖 소원을 다 헤아려주시니 이 은혜에 어떻게 다 보답할수가 있을까?

《나는 문성룡동무가 해방후처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처럼 혁명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고나가기를 바라오.》

그 순간 문성룡의 눈앞에는 붓대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왔다. 백두의 붉은기에 어려있는 위대하고 숭엄하고 신성한 그 무엇이...

그는 새 결의를 담아 씩씩하게 대답올리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최경화동지처럼 마지막까지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쥐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전사에게 쏘리는 애뜻한 정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시었다.

《내 이번에 여기에 올 때 윤희사진을 가지고 왔소. 애가 얼마나 멋지게 번졌는지 한번 보오.》

사진을 받아든 문성룡은 달라진 딸애의 모습에 어리둥절해졌다. 학생복을 입고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 된 딸애의 모습, 윤희는 주먹을 쥔 오른손을 추켜들고 뭐라고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헤어진지 두해동안에 몰라보게 숙성한 딸이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전번에 어느 한 고사총부대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글썽 소년단원들이 위문공연을 왔더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속에 윤희도 있었소. 그 애는 자기가 쓴 구연 〈승리하고 돌아오세요〉를 읊어 전투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소. 목소리가 얼마나 포랑포랑 여물었던지 전사들이 재청을 하더군. ... 내 그래서 그때 기념으로 사진 한장을 찍어두었었소. 이게 바로 그 사진이요.》

아! 문성룡은 금시에 무아경속에 잠겨드는것 같았다. 내 딸이 군인들앞에서 구연을 하다니?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안고오신 장군님! 그이께서 정녕 우리 윤희에게 랑랑한 목소리를 돌려주셨구나.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듯 눈물이 옷걸이를 적시며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늘에서 저릉저릉 행복의 종소리가 울려오는가싶다.

《윤희도 이제는 군인들을 고무하는 선동원이 되었소. 이 애에게 앞으로 무얼 시키면 좋겠소? 이제는 방송원을 시켜도 나무랄데가 없소. 구연을 쓴것을 보니 아버지처럼 글을 씌워도 될것 같소. 멋진 녀성일군감이요.》

윤희에 대하여 걱정만 하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장군님께서 딸애를 다 말아 키워주신다. 그 애의 앞길에 희망의 하늘이 창창히 펼쳐졌다.

장군님의 전사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주실것은 다 주셨는데도 문성룡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고만싶으신듯 뜨겁게 말씀을 이으신다.

《글을 잘 쓰자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문성룡동무는 이제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갑시다. 출판사로 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치료해야겠습니다. 건강한 아버지를 보아야 딸애도 좋아할게 아닙니까.》

문성룡은 또 한차례의 감격에 목메여 흐느꼈다.

휴양소소장도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임찬렬사단장도 뜨거움에 눈시울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서는 한 전사를 위하여 전선의 밤을 지새우신것이 아닌가!

정녕 문성룡은 그이의 사랑에 떠받들려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긴 우리 전사들을 당할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전쟁은 결코 총포탄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전선의 이밤에 정치사상적공세로 적들을 타승하는 위대한 전략이 더 심화된줄 아는지 과연 몇이나 될가?

얼마후 장군님께서서는 문성룡을 야전차에 태우고 화선휴양소를 떠나시었다. 그이 가시는 굽이굽이 전선길 저 멀리에 바야흐로 동이 뜨기 시작하였다. 선명하게 밝아오는 노을빛은 찬란한 승리의 려명이었다.

경례를 받으시라

박 정 철

경례를 받으시라
김일성대원수이시여
김정일대원수이시여
건군절의 이 아침
혁명무력이 삼가 드리는
경례를 받으시라

선군의 무한한 힘을 펼치며
우주를 날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에선
이 아침도 울려 퍼진다
불멸의 태양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최고사령관기 창공높이 휘날리는
영웅한 근위사단들
351고지와 대덕산의 일당백초병들
하늘 땅 바다의 천만장병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격정의 눈굽 뜨겁게 적시나니

오, 최고사령관기
거세찬 그 퍼덕임이여라
수령님의 군대
장군님의 군대
영광의 그 부름 목메어 터치는
일당백병사들의 이 환희는

기폭에 빛나는 원수별
눈부신 그 빛발이여라
백승을 펼쳐온 전통을 이어
세월 끝까지 승리만을 펼쳐갈
천만장병들의 철의 신념은

백두산총대우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엮으신분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신
백두령장 **김정은**장군

근위땅크병들을 찾아가신
새해의 그 눈보라길
작은 목선으로
서해의 최전방 섬초소를 찾아가신
8월의 그 날바다길
병사들을 찾아 견고걸으신 그 길은
대원수님들의 선군길 이어가는 길

만나주신 병사들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사랑을 뜨겁게 이어주시며
생사운명 같이할 전우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헤쳐가신 그 자욱우에
천하무적강군으로 억세게 다져졌나니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령장의 그 부름안고
백두산총대는 서리발친다
그이께서 수표하신 조국통일작전도우에
멸적의 번개가 친다 승리의 우뢰가 운다

조국통일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진군로도
총대로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
당이 안겨준 그 믿음을
총대높이 추켜든 강철의 대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
김일성대원수이시여
김정일대원수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선군령장 **김정은**동지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영원히 담보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경례를 받으시라!

오 그날의 총대

김 용 엽

그날도 흐르고있었다
봄이건만 왜적의 칼부림에 토막나
버들개지마저 피지 못하던 이 강산엔
원한에 사무친 이 나라 인민들의 피눈물이

바로 그날에 울려 퍼졌다

뒤동산 진달래꽃잎을 펼치며
피멍든 가슴들에
자주의 불빛을 안겨주는 만세소리
안도의 밀림을 흔들며 강토에 메아리쳤다

지원의 뜻 새겨진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김일성**동지
해빛같은 그 모습 우러러
만세높이 추켜들었던 그날의 총검들

만장약되어있었다
열혈투사들이 받아안은 그 총검들엔
강도 일제를 쳐부실 멸적의 기상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조국과 민족이
새 조선 펼쳐갈 성스러운 위업이

하기에 어버이수령님 이 총대로
펼치시지 않았던가 해방조국 3천리를
쳐부시지 않으셨던가 미제침략자를
일떠세우지 않으셨던가 사회주의락원을

귀기울이면 지금도 송엄히 울려와라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총대로 이어주신듯
전화의 날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장군님께 그 권총 넘겨주시며
혁명의 계주봉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

울려와라 가슴찌릿이
대를 이어 그 총대 선군의 기치로 높이 드신 장군님

미제의 핵몽둥이 꺾어버리며
강성국가 대들보 하늘가에 없으시며
전선길 천만리에 찍으시던 그 발자국소리

아, 그 총대 떠받들려 솟은것 아니더냐
이 땅의 나무잎새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 세상 가장 위력한 무력으로
침략의 소굴 단숨에 박살낼 필승의 강국이
하늘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엔 만복이 꽃피나는 내 나라가

오, 수령님 안겨주신 혁명의 그 총대는 정녕
영원할 이 조선의 기상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운명
무궁번영할 백두산대국의 억센 기둥
세계평화를 지켜선 지구의 강력한 보루

천만군민들이여 달리자
그날의 총대 백두의 보검을 틀어쥐고
또 한분의 백두의령장 **김정은**장군님따라
신심드높이 폭풍쳐달리자
통일강국 령마루로!

쇠물아 너는...

위 명 철

수령님 그리움이 불타는 4월
백팡 눈부신 쇠물아
너 마치도
꽃바구니에 담긴 꽃만 같구나

금방 로심을 빠져나온 전국도
뜨겁게 달아 빛살 뿌리니
그건 더우기 꽃술인듯싶어

장패하구나
출강전 순간이여
더해만 가는 그리움 그리움을
쇠물로 잘 익은 쇠물로 펼쳐보이는 때여

그렇다 쇠물은
수령님께 아뢰는 우리의 마음
4월에 정히 드리는
우리들의 꽃

우리 수령님
한생에 제일로 사랑하신 쇠물이어서
한생에 제일로 아껴주신 우리들이어서
한생토록 드리고싶은 간절함으로
한마음되어 마련하는 꽃

다름바 있으랴
4월을 마중해
향기로운 꽃을 피워가는 마음들과
4월을 마중해 끓이는 우리의 쇠물과

삼가 드리노라
변색 모르는 이 쇠물
영원히 드리리라
지지 않는 이 아름다움을

수령님 그리움으로 불타는 4월
티없는 우리 마음 담아
백팡 눈부시다
또 하나의 꽃바구니로 엮어진
우리의 마음인 쇠물

경애하는 원수님 불러주신
강철전선의 친구에서
수령님 우러러
강선의 용해공들 삼가 드리노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철의 도시의 쇠물꽃바구니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몇몇 문학형태에만 매달리는 편향을 없애고 역사적으로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났을뿐만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인민의 요구에도 맞는 문학형태를 전면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작가가 수필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릴수 있다.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것으로 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문학형식을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기성형태나 새로 창조하는 형태나 할것없이 모든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살려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롭게 장식하여야 한다.》

직통전화기

리 창 혁

저 하늘의 붉은 노을
쇠물빛으로 더 붉게 물들이고
돌아온 이 저녁
나는 습관인듯
우리 집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본다

수수한 전화기 한대
보물처럼 가슴에 안고서
작업복차림그대로인 노동자들
어깨걸고 울고웃으며 찍은
할아버지의 색바랜 사진

사진에 깃든 추억
나는 잘 알고있어라
철없던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부터
그리고 로장인 아버지의 곱씹는 이야기를 거쳐...

얼마나 준엄했던 1956년이었던가
얼마나 크나큰 믿음 받아안았던 1956년이었던가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자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서슴지 말고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자신과

한혈맥으로 이어주신 직통전화기

오, 그 믿음으로 하여 쇠물이 끓었다
압연기가 돌아갔다
충정의 불길이 용암되고
수령결사옹위의 철의 기둥 솟아
6만톤에서 12만톤이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 솟았거니

아, 그때 그 나날
용해장에서 압연장에서
수령님만을 그리며 일터를 못 뜨던 사람들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 어서 올리자며
사랑과 믿음의 전화기 서로서로 품안고
울며웃으며 찍은 자랑스러운 모습들이여

나의 아버지도
이 사진을 보며 자랐더라
직통전화기 가슴에 안고서
천리마속도 창조한 할아버지처럼
장군님품에 운명의 피줄을 이어놓고
천리마의 봉화 더 활활 지켰나니

사랑과 믿음의 직통전화기
마음속에 안고 우리 강선사람들
오늘도 그날처럼 보고드리네
—원수님,
강선의 로동계급이 있는 한
강철은 넘려마십시오!

뜻깊은 4월의 그날에

년대와 세기의 언덕을 넘어 세월은 많이도 흘러 어느덧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맞이한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5년전 그날 영광스럽고도 시련에 찌든 나날들을 회고하시며 선군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본다.

주체97(2008)년 4월 9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때로부터 15돐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1960년 8월 25일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는것으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 50년동안 인민군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있다고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완성과 관련한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은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날이라고, 그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감회깊이 지난날을 회고하시었다.

그이의 회고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며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성스러운 중임을 넘겨받으신 후 15년세월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총대를 틀어쥐고 공화국의 국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민족사적, 인류사적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19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면서 국방공업발전에 더욱 큰힘을

넣어 국방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시었다.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정녕 감동이 커질수록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열화와 같은 흠모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격동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불패의 혁명무장력과 튼튼한 국방공업은 수령님께서 자신에게 물려주신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강위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선군정치를 펴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고 하시었다.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 그 모든 공적을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으로 높이 칭송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일군들의 가슴은 더더욱 뜨거움에 젖어 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적들의 그 어떤 시도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높이 펼쳐갈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뜻깊은 4월의 그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회고와 결심의 말씀은 그대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담력이고 배짱이였다.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사는 궁지와 행복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한 해

박 현 철

벌써 한해가 흘렀구나

한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그날의 그 영광이

하늘땅에 메아리치던

아, 기쁨과 감격의 4월로부터

길었던가 짧았던가 너 한해여

해마다 맞고보낸 그런 날과 달이라면

너를 노래하는 이 가슴

이다지도 뜨거움에 젖지는 않으리

이다지도 걱정애 설레이지 않으리

김정은동지!

뵈옵는 첫순간에 벌써

그이는

따뜻한 봄날이었고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었나니

그이 아니시면 그 누가 인민을 이끌고

풍파많은 이 세계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번영의 상상봉에로 이끌어주랴

그래서 우리 수령님처럼

그래서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가 높이 받은 **김정은**원수님!

그러나 그때에도 진정 우린 다 몰랐다

이제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담력과 배짱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선군조선을

얼마나 높은 존엄의 단상에 올려세워줄지

이제 그이가 펼치시는 이 땅의 정치가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하는 우리를

얼마나 높은 영광의 상상봉에 받들어 세워줄지

노래하자니 고마움과 감격에 눈곱이 젖는다

6.6절 그 아침에 울려퍼진

우렁우렁하신 음성이어

비행기로 렬차로 소년단원 꼬마들을

제일가는 귀빈들로 평양에 불러

순간에 아, 순간에

온 나라 가정을 한품에 안아주신 사랑이여

말해보자 작은 배를 타시고 그이

서해의 최대열점지역을 또다시 찾으시던 날

레사로이 웃으시던 그 모습 우러르며

우리 과연 무엇을 생각했던가

백두의 행군길 앞장에서 헤치시던

항일의 빨찌산 김대장 모습이었던가

초도의 풍광을 맞받아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그날의 우리 장군님 그 모습이었던가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작은 간격과 허물도 없이

자신의 진심을 터놓으시며

팔을 끼고 어깨를 결으실 때

친혈육처럼 피가 통하고

정이 흐르던 한해였다

찾으시는 곳마다

하시는데 말씀마다

심장을 울리는 불같은 시갈아 걱정애 노래같아

또 한번 매혹되고 다시 한번 우러르며

인민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던 날과 달이었다

아, 우리 원수님

자신의 넋과 숨결을 부어주시며 쓰다듬어주신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가

저 우주로 솟구칠 때

지나온 나날처럼 우리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리라는

그 믿음 그 배짱이 저 하늘에 닿았으니

지구를 발밑에 굽어보며 사는 인민의 이 마음

너무도 꿈같은 날과 날들이

우리를 놀래우며 찾아오고찾아왔기에

가는지 모르고 지나간 한해였건만

받아안은것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많고많아서

밤마다 잠 못들며 보내지 못하던
날과 날들이었다

진정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높이 모시고 살아온 한해여!
인민은 그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한해를 살았어도
배푸신 그 사랑 쌓으신 그 업적
너무 크고 위대하여

한해가 아니라 십년, 백년
그이를 모시고 산것 같구나

한해여, 조선의 한해여
이제 또
우리가 맞고보낼 날과 날들은
그 얼마나 크고
그 얼마나 거대하고
그 얼마나 가슴벅찰것이나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아, **김정은**원수님 높이높이 모시여

미제의 멸망을 선고한다

한 광 춘

통패하여라
우리의 강렬한 핵폭음이
천길지심을 뒤흔들었다
미제의 아성을 뒤흔들었다

천만번 정정당당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겹고들며
감히 《제재》를 떠드는
미제의 정수리를 향해
선군조선의 참을수 없는 분노가 터진것이다

오, 하늘에선 주체의 위성이 날고
땅속에선 핵시험의 성공으로
무진막강한 힘을 떨치는 이 땅
가슴가득 차오르는
무한한 공지여 자랑이여

불덩어리처럼 뜨거웁다
걱정과 환희속에 마주잡는 손들이
달아오른 심장의 열기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에
일만산악이 움썽움썽 파도친다

백두의령장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나의 조국
그대는 또다시 보여주었구나
결심한 그 모든것을
마음먹은 그 모든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선군강국의 본때를

미제에 의해 인류가 핵참화를 강요당한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하여
꿈많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그 꿈이 꽃피우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미제—악의 본거지에
정의의 핵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렸다

이는 정의의 승리
천출명장의 슬하에서
억척불변으로 다져지고다져진
신념과 의지의 분출
무한대한 국력의 폭발

위성발사도 핵보유도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
설사 이 행성의 자리길은 변한다 해도
흔들릴수 없는 철의 의지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원썬들의 핵에는 핵으로!

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일심의 대오
백두산총대의 불을 가슴가슴에 재웠나니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정의의 핵폭발로
미제의 멸망을 선고한다

당 중 앙 은 위 성 발 사 를 승 인 한 다

조 광 철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제재》란 천만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한차례 지하핵시험을 하였다
배심은 든든하다

오히려 두려워하는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
그 기나긴 《제재》속에서도
우리의 위성이 경도와 위도를 누비며
다름아닌 네놈들의 머리위에 돌고있기때문

명심하라 미제야
우리는 《제재》를 전쟁으로 생각한다
네놈들은 들었으리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네놈들은 똑똑히 알아야 하리
우리의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가 어떤것인가를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추종세력들의 궤변도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대변하는 원수님의 친필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배심든든하다
허리띠 조이며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불패의 군력이 있음에야
여기에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데야

조선과 미제—승자와 패자
이것이야 불보듯 명백하지 않는가

때는 왔다 참고참아온
세기와 세기의 피맺힌 분노를 터칠
미제와 전면대결전의 그 순간
네놈들은 맛보게 되리라
우리의 강력한 핵무기의 불맛을

동서해 위성발사장파
우주관제종합지휘소
미싸일발사대들과
멸적의 총대 서리발치는 진지와 전호
마치와 낮을 틀어진 공장과 전야들에서
일제사격의 명령과도 같이 새겨안았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만일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힘이
흐르는 세월을 멈춰세운다 하라
허나 우리 당중앙의 의지를 가로막을 힘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들으라 정의와 평화만 있게 될 세계여
목숨과도 같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목숨을 내대고 용약 펼쳐나선
선군조선의 불변의 선언을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위 대 한 어 머 님 의 사 랑 은

황 명 성

저 멀리 백두산너머
안도의 푸른 숲을 그러볼 때면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축복해주시던
강반석어머님의 모습 어려와라

우리의 첫 무장대오가 태어나던 그날에
가슴에 서렸던 온갖 시름 다 잊고
환히 웃으시던 어머님의 모습은
혁명승리의 영원한 축복이었다

눈석임물 내리는 토기점골등판에
산새들 우짖는 이갈나무 분비나무숲에

대오앞에 힘차게 날리던
반일인민유격대 붉은 기발의 필력임소리
진격의 퇴성인양 산발을 흔들며
백두밀림에 메아리치던 만세의 환호여

름름한 어깨마다 번쩍이는 총창들은
어머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유훈을 지켜
수령님께 혁명유산으로 넘겨주신
두자루의 권총에서 시작된것!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때없이 어머님을 정답게 부르며

소사하의 작은 집에 들어서던
열혈청년들이
수령님 받들어 반일인민유격대원이 되었나니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던가
창문가에 등잔불을 켜놓고
부녀회원들과 함께 군복을 지을 때도
군모에 별을 새길 때도
어머님 간절히 바라신 그 념원

그 념원 안으시고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
대오를 이끄시고 싸움길에 오르실 때도
어머님의 마음도 따라섰고

눈보라 혈전만리 그 길우에
어머님의 지성고인 달비

마안산의 전설로 꽃핀 돈 20원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버려주어
유격대원들의 용맹의 나래가 되고
필승의 신념과 힘이 되었나니

아, 강반석어머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의 그 힘을
세월너머 오늘도 우리는 보고있다
대원수님들이 품에 안아 키워주신
백두산강군의 신심높은 그 기상에서
주체무력의 무진막강한 그 위용에서

안도의 그 봄날처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그 봄날처럼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은
영원한 사랑의 밝은 미소로
내 조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여라

우리는 핵폭음을 울렸다

주 광 일

전승의 보도인양
환희와 걱정으로 가슴설레었다
백두산대국이 터치는 불의 퇴성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의 소식

세계가 들썩한 이 장거는
《제재》의 죄사슬로
우리를 칭칭 얹매려드는
미제에게 내리는 정의의 철추
한다면 하교야마는 선군조선의 타격

그렇다
우리는 핵으로 대응했다
이 땅우에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기 위하여

불타는 지구가 아닌
푸른 행성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원자탄을 가졌다

원썩들은 두려워하라

상상을 초월하는
백두산대국의 핵위력을
정의의 성전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분노를

감히 선불질한다면
절대로 무사치 못하리라
위싱턴과 뉴욕이
태평양 건너 있다고 해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넓다고 해도
우리의 불소나기를 피할
단 한평방의 땅도 없거니

《제재》에는 전면대결전으로
압살에는 핵섬광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
선군조선의 의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오, 우리는 지하핵시험의 폭음을 울렸다!

화원이여 만발하라

박 혜 란

봄의 거리에서

사계절중에서도 봄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그것은 봄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선물하기때문일것이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꽃이 만발하는 봄날을 그려보느라하면 가슴속에도 그 봄이 옮겨오는듯 금시 마음이 따스해진다.

옛 전설이 떠오른다. 머슴소녀가 눈속에서 따온 산딸기를 한알도 남김없이 먹어치운 지주놈이 돌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전설에도 겨울산딸기를 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눈속에서 꽃을 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니 신비로움을 창조하는 자연도 겨울에 피는 꽃만은 인간에게 선물하기 힘들어서이리라.

그러나 오늘은 세기를 두고 존재해온 이 자연계의 법칙이 인간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변화되는 놀라운 현실이 이 땅에 펼쳐지고있으니 눈덮인 겨울에도 꽃바다를 이룬 만수대언덕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서리꽃편 2월의 거리마다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화단들을 바라보시라. 그러면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풍치아름답게 변모되어가는 평양의 새 모습에 눈곱이 젖어오리라.

정녕 오늘의 평양은 꽃과 함께 날과 달이 흐르는 모습이다.

이 시각 살구꽃, 개나리꽃이 만발한 봄의 거리로 꽃물결이 흐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청신한 꽃무음을 안은 사람들이 끝없이 물결쳐오르는 만수대언덕. 그뿐이라. 꽃매대들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갖가지 꽃들은 자연이 움틔워준 계절꽃이 아니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그리는 충정의 마음들이 한겨울에 정히 키워낸 꽃들인것이다.

간절한 그리움이 그대로 토양이 되고 정성어린 손길이 따스한 해별이 되어 꽃을 피운 거리에서 반겨주는 꽃들을 바라보느라니 중학교시절에 시를 외우던 생각이 난다.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

이른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

찬바람에 떨고있는 봄의 선구자 진달래의 모습이 수난당한 민족의 모습같이 눈물을 쏟던 진달래시인의 그 절절한 웨침.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피타게 절규하던 시인의 그 웨침...

해빛밝은 교실에서 이 시들을 외우던 시절 나는 행복밖에 모르던 소녀였다.

그때 나는 이 시의 런던에 우리 민족의 불행한 력사가 그처럼 빠져리게 스며있는줄 미처 몰랐었다. 그리고 이 시들에 바로 나의 할머니의 설움랐던 옛시절이 깃들어있는줄도 알지 못했었다.

꽃에 대한 추억

—나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북관오지인 온성땅의 깊은 산골에는 처마낮은 초가 한채가 있었다. 나라를 침략한 왜놈들의 꼴을 보기 싫어 심심산골로 들어온 이 집에는 어린 두자매가 있었다. 앞집도 심리, 뒤집도 심리라는 인가드문 산골짜기의 좁은 울안에서 꽃을 키우는 일이 두자매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봄이 오면 산나리며 패랭이꽃을 마당에 심어가꾸었고 겨울잠에서 깬 봉선화꽃씨를 울안에 뿌리곤 하였다.

달이 흘러 여름철이 오면 오막살이집은 꽃속에 묻히곤 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의 발길은 여기 산골에도 닿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을 약탈해가려고 온성골안에 협궤철길을 놓았던것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왜놈군수렬차의 기적소리가 숲통을 조이듯 산골짜사이로 들러올 때마다 두자매는 집울안에 갇혀 한숨을 쉰곤 하였다.

그러던 두자매에게 작별의 날이 왔으니 그날은 언니가 낫설은 고장으로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그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며 봉선화꽃잎을 뜯어서로의 손톱에 빨간 물을 들여주었다.

어머니는 첫날웃차림도 못한 큰딸의 머리우에 비녀대신 어여쁜 꽃 한송이를 꺾어 얹어주었다.

새각시를 태운 가마가 산너머로 멀리 사라질 때

어린 동생은 두손을 입에 모아 목청껏 소리쳤다.

《언니, 부디 행복해-》

그러나 그날이 언니와 영리별하는 날이 될줄 어
이 알았으랴.

새각시를 태운 가마가 철길이 놓인 곳에 당도했
을 때 불쑥 산굽이로 뺨뺨이차가 나타났다.

(이 일을 어찌누?)

가마꾼들은 마주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려고 서둘
러 철길을 건넜다. 바로 그 순간 《땅!》 하는 총소
리와 함께 가마안에서 《아!》 하고 비명소리가 터
져나왔다. 기관차에 있던 왜놈장교가 새각시의 가
마를 향해 권총을 쏘아댔던것이다.

새각시의 머리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하얗없이
땅바닥을 적시는데 가마밑으로 빨간 꽃송이가 툭
떨어져내렸다. 딸의 앞길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어머니가 없어준 꽃송이었다.

왜놈들의 기차를 앞질러갔다는 죄아닌 죄로 청
춘의 고운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운명을 마쳐야 했
던 언니.

...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락화로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

그날 언니의 묘앞에 이 노래를 남기고 식구들과
함께 두만강의 배전에 몸을 실었던 나의 할머니...

비단 할머니의 옛시절만이 아니다. 앓는 어머니
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산에 핀 꽃을 꺾어 부자님들
에게 팔아야만 했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의 눈물겨운 생활을 우리는 무대우에
서만 알지 않았다.

인간의 생활속에 존재해온 꽃은 오랜 세월 인간
을 위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었으련만 꽃의 아
름다움을 향유하며 살아오지 못한 꽃분이, 그는 바
로 옛시절의 나의 할머니였고 어제날의 우리 민족
이었다.

예로부터 인간의 향유물로 되어왔던 꽃, 하지만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롭다 한들 태양의 빛
을 받지 못한 땅에 뿌리내린 꽃은 사람들에게 기쁨
이 아니라 설움을 낳게 한다는것을 력사는 꽃을 통
해서도 보여주고있다.

꽃이며 마음껏 망울을 터쳐라

—원예학자와 나는 이야기—

락원역에서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한 도로를 따
라 내려가다가 민속공원쪽으로 좀더 올라가느라

무연한 벌판에 수십호동의 온실을 거느린 평양화초
연구소가 자리잡고있다.

지난 겨울 이곳을 찾았을 때 한 온실에서는 유리
집의 따스한 요람에 뿌리를 내리운 만복화들이 한
창 망울을 터치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3월 평양화초
연구소를 찾아주셨을 때 어느 한 온실에서는 심비
디움과에 속하는 새 품종의 화초들이 저저마다 파
란 움을 띄우고있었다. 자연이 피운 꽃들중에서 가
장 아름다운 심비디움종의 꽃을 골라 연구재배하고
있는 화초였다.

이제 태어날 새 품종의 화초에 이름을 달아주시
였으면 하고 청을 드리는 연구사들을 자애롭게 바
라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제 저 화초들에 꽃
이 피게 되면 그때 자신께서 꼭 이름을 달아주시겠
다고 약속하시었다. 그런데 어버이장군님께서 뜻밖
에도 우리결을 떠나실줄이야.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그해 12월 이곳 온실에서
는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인양 은빛바탕에
붉은색을 띤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지난해 9월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깃든 이 꽃에
친히 만복화라는 이름을 달아주시었다.

신통히도 12월에 망울을 터쳐 다음해 4월까지의
기간에 소담한 꽃을 피운다는 만복화! 정녕 만복화
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랑을 세상에 전하려고 태어난 로
동당시대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선군조국의 강산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만복화며
갖가지 이름모를 꽃들을 바라보느라니 꽃의 시대적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따스한 날을 골라 망울을 터치는 꽃에 봄이라
는 계절이 없다면 과연 꽃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대자연의 봄계절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
다. 한계를 모르는 영원한 봄이 있으니 그것은 꽃
에 기울어진 절세위인들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하여 이 땅에는 영원한 봄의 력사가 흐르고있다.

그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린 내 조국의 꽃의 력사
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연구소의 한 원예박사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해 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모란봉에 꽃구경하
러 가자고 하시였다고 한다. 나라일에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 하루의 휴식이 차례진것이 너무 기
뻐 일군들은 다투어 그이의 뒤를 따라 모란봉에 올
랐다. 그러나 그 걸음이 나라의 화초발전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정도의 자옥으로 력사의 한갈피에 길이 남게 될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모란봉의 원림공원을 조선식으로 꾸밀데 대한 문제와 갓 일떠선 사회주의강산의 풍경을 꽃으로 가꾸어가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그 봄날과 더불어 전후 재더미를 헤친 땅에는 원추리며 붓꽃류, 나비꽃류와 같은 화초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정하고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사랑의 이야기는 그뿐이 아니었다.

유서깊은 만경대와 모란봉기슭, 거리의 공원과 파 유원지마다에 화초들이 곱게 피었던 어느 봄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길을 멈추시고 어느 한 유원지에 들리신적이 있었다. 색고운 꽃들이 무수히 피어난 유원지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팎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될 4월의 봄풍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드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화초연구사들에게 도시미화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경축하는 평양시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조국강산에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하시려고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화초연구집단은 령상조건에서도 망울을 터치는 효성화를 새로 육종해냈고 아름다운 삼색제비꽃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꽃으로 훌륭히 재배해냈다.

행복이 넘쳐나는 거리에 꽃이 많아지니 꽃을 가꾸는 사람들도 나날이 많아졌다. 그 나날 꽃은 사회주의체도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가슴에도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후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찬바람이 불어치던 고난의 행군시기 살림집창가들에서는 꽃화분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거리와 마을의 화단에서 풍겨나던 꽃향기도 점차 자취를 스러뜨렸다.

그 시련의 나날에 빛을 잃어가던 꽃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어버이장군님 가시는 현지도의 길에서 조용히 피어나 반겨웃던 코스모스꽃.

그이께서는 바쁘신 길을 가시는 속에서도 그 꽃을 무심히 보지 않으시었다. 찬바람속에 꺾꽂이 서있는 코스모스의 억센 기상은 승리한 조국의 모습이었고 시련을 이겨낸 인민의 모습이였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꽃이 자리잡고 있었다. 땀뻘 추위에 차의 기관마저 땡땡 얼어터지던 그 겨울날 그이의 심중에서 울리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노래여!

그리고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맞

고 바래드리며 고운 꽃잎 살랑살랑 설레이던 코스모스여!

화창한 봄날이 오면 찬바람을 이겨내던 코스모스를 정녕 잊을수 없으시여 3.8절을 맞는 녀성들에게 《봄향기》화장품을 안겨주시고 일 잘하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코스모스보석빈침도 안겨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자옥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영원한 봄향기를 풍겨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인간들의 화원을 가꾸어주신 우리 장군님께 대를 이어가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난해 9월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못 잊어하신 코스모스의 재배정형에 대해서도 료해하시었다. 세계각국에 널려있는 수십종의 코스모스종자를 몽땅 들여다가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꽃으로 재배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계 여러 나라의 꽃들도 우리의것으로 개량하여 식물자원을 보호하고 꽃생산을 다양화함으로써 금수강산 내 나라를 하나의 꽃밭으로 만들자고 절절히 말씀하실 때 연구사들은 하나의 꽃을 보시면서도 인민이 향유할 꽃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으로 완성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큰뜻이 가슴에 안겨와 눈굽을 뜨겁게 적시었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꽃은 그 나라 인민의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인듯 자기의 지위를 건듯 올려세웠다.

행복이 커가는 내 조국땅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어찌 한두 페이지의 글줄에 다 담아낼수 있으랴.

이 봄의 거리에서 나는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의 페이지에 꽃을 위해 기울인 위인들의 사랑이 기록된적 있었던가.

그 어느 나라의 화초발전력사에 위인들의 업적이 칭송된적 있었던가.

이는 오직 절세의 위인들을 태양으로 모신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거니.

복받은 시대에 피어난 꽃이여, 그 꽃의 향유자인 인민이여.

태양의 품속에서 더욱 아름다와지라! 더욱 향기를 풍기라!

더더욱 만발하여라! 내 조국의 화원이여!

총대 찬가

리 명 근

오, 력사의 그날
1932년 4월 25일!

빼앗긴 조국을 해방할
짓밟힌 민족을 구원할
자기의 사명을 안고
운명의 주인들이 들어선
혁명의 총대가
백두의 하늘가에 솟아올랐다

지금도 우리러 그러보면
우리의 눈앞에 거연하시다
첫 무장대오를 사열하시던
젊으신 수령님의 그 모습이

항일전의 눈보라를 헤치며
혈전만리 준엄한 싸움길에
승리의 세월을 수놓아온 총대
설한풍속에 억세게 버리어지고
불길속에 더욱더 강해진 총대

그 총대로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인민의 머리에 해방의 하늘을 열었다
민족재생의 기쁨과 환희를
이 땅위에 한껏 펼쳐놓았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장장 천만리
우리는 그 총대로
침략의 검은구름도 쳐갈겼다

자위란 무엇인가를 누리에 시위하며
총대는 이 땅을 영원히 수호할
철의 성벽이 되었다

4월의 봄언덕에서 시작된
위대한 선군의 진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조선의 신념으로 굳어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간직되었거니

정녕 총대여
너 없이는 우리도 없다 조국도 없다
진정 총대는 자주적인민의 삶
무진막강한 조선의 힘

총대가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부흥하고
총대가 강해
최후승리의 그날도 담보되나니
총대로 시작한 혁명
총대로 영원히 승리하리

오, 사랑하노라 우리의 총대
미더웁구나 백두의 총대
위대한 평장들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백승을 펼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
우리의 총대여 더욱 빛나라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라!

그는 오늘도 우리앞에 있다

—당세포비서였던 김금수동무를 노래함—

주 경

나는 지금 듣고있다
귀중한 동지들을 구원하려
시한폭탄의 신판을 틀어잡은
그의 심장에서 울린
마지막생명의 박동소리를

한초... 한초...
그것은 너무도 짧은 순간이여도

한생이 다 비낀 순간이었다
터지는 폭탄을 몸으로 덮어
우리결을 떠난 그 시간은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는것은
우리들의 제1생명이라고 늘 외우며
그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해제하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영웅적최후를 빛내이었거니

그는 이렇게 자기를 바쳤다
향기로운 꽃다발과 명예의 자리에는
동지들을 내세워주고
가장 위험한 순간들은
서슴없이 한목숨 내대며
격전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내려쏘리는 폭탄을
동지들보다 먼저 한몸으로 막아
사선의 고비를 넘긴적은 그 얼마
포연에 끄슬린 전투복이
파편에 찢긴적은 그 얼마

순간순간을 목숨을 내대야 하는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진
결전의 초침소리에서 그는 들었다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단풍이 곱게 물든 산천아
소리쳐 말하여다오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더운 가슴으로 품어안고 사랑한 사람을

그는 평범한 나날에도
전화의 그날에 살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한길로
세포당원들과 대원들을 이끌며
자기 생명을 다 바치었거니

아, 그는 비록 우리결을 떠났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 세포비서대회 높은 연단에서
그는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세포비서라고
우리 당대오에 높이 세워주신 삶으로
그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

저 모습 저 열풍속에

함 영 주

바라보면 온 나라가
여기서 승부를 겨루자 약속한듯
제고장 이름들을 새긴 붉은기
보란듯이 펄펄 날리며
경쟁바람 세차게 일으키는 땅
멋이로구나
앞을 보면 초원을 갈아엎은 쇠물집식솔들
돌아보면 방풍림을 심어가는
철령마을 청춘들
어디를 보아도 자신만만한 저 기상앞에
환희로운 그날을 펼쳐보이는 세포등판이여

수도의 하늘높이 창전거리를 일떠세운
건설의 명수들 아닌가
가공공장기초를 다지는 저 모습은
주체의 위성을 싸울린 그 본때로
등판을 가로질러 뻗어가는
은빛고압선이여

넘치는 정 오가는 사랑
동지를 위해 아낌없이 기울이면서도
일판에선 양보를 몰라서나
우리가 주인이라는 강원땅의 웨침에
온 건설장 돌격대원들

정신력폭발로 화답해나섰거니
기계소리 노래소리 바람소리여
너는 그대로
총진군으로 부르는 선동의 함성
레루가 휘도록 차판가득 실려오는 물동량은
얼싸 반겨맞는 전선의 탄약!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양이며 젖소떼 몰아가는 방목공처녀들
줄지어 들어서는 우유차의 행렬
어서 오라 반길 그날까지
승부를 못 가를 치렬한 경쟁

아, 어느 한쪽도 짝지지 않는 저 모습 저 열풍속에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
눈부신 현실로 꽃피날
환희로운 그날이 더 뚜렷이 안겨오거니

어머니조국은 우승의 금메달인양
대축산기지를 일떠세운 승리자들에게
가슴벅차게 안겨주리라
아,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볼
내 나라 강성국가의 새생활을 새 기쁨을!

멀고도 가까운 사람들

김 은 희

평범한 한 농장원녀인에 대한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었다.

나 역시 《로동신문》의 지면에서 눈길을 떼고서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있었다.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났다.

지평선과 맞닿은 하늘가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새물새물 눈을 간지럽히고있었다. 바라보이는 지평선끝은 아득한데 다가오는 한 녀인의 자태만은 점점 선명하게 가까와온다.

멀고도 가까운 사람...

불현듯 선명하게 떠오르는 먼 추억...

...한여름의 장마철, 무섭게 불어오른 강물, 바람소리인지 강물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포효하는 우우-소리...

20여년전 나는 동해안의 한 협동농장에서 3대혁명소조원생활을 하고있었다.

간밤에 내린 무더기비로 자그마한 강이 높지 않은 강둑을 위협하며 시시각각 불어나고있었으나 나와 다른 한 처녀소조원은 종전과 같은 새벽일과대로 강건너 담당작업반포전을 돌아보고있었다.

뒤시간남짓이 포전을 돌며 간밤에 무너져내린 논둑들을 다시 손질하고 포전길어구에서 만난 우리는 즐거운 기분으로 손잡고 다리쪽을 향했다.

하지만 강가에 다달은 우리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새벽에 건너올 때만 해도 있던 자그마한 나무다리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는 더욱 기승스러워진 강물만 용용 흐르고있는것이였다. 아마 강상류쪽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산사태물이 합류된 모양이였다.

《어마! 이놈의 강물 먹새도 좋네. 나무다리까지 흠뻑 먹어치운걸 보니...》

《애, 이판에서도 룡이 나오니?》

천진한 처녀들은 까르르 웃어댔다.

하지만 처녀들은 인차 난감한 표정을 짓고 서로 마주보았다.

그때 지방에서 나서자라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온 나의 동무는 정황판단에 기민했던것 같다. 강가를 오르내리며 무엇인가 찾아보던 그는 풀단들을 나르면서 바줄을 건너매느라 동쪽에 박아놓았던 꺾쇠를 발견해냈던것이다.

비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하늘은 좀체로 견딜상 싶지 않았다.

그 처녀는 무작정 나무터 건너보냈다.

《은희동무, 바줄을 꼭 잡고 건너가, 무서워말

고.》

《아니 영희동무, 왜 내가 먼저 간단 말이야? 동무가 먼저 건너.》

그는 평상시에 언제나 자그마한 체격의 나를 동생취급을 했다. 무엇이든 나에게 먼저 양보했고 무슨 일에서든 나를 보살피려들었다. 하지만 이런 정황앞에서는 나도 양보하고싶지 않았다. 싱강이질끝에 종내 내가 저서 먼저 건너게 되였다. 건너편기슭에 발이 닿는 순간 나는 웨쳤다.

《영희동무, 빨리 건너와.》

우우- 하는 바람소리, 물결소리에 찢기여 건너편에 내 목소리가 가닿았는지는 몰랐으나 잠시후 가냘픈 웨침소리같은것이 들리고 바줄이 팽팽해지는것 같더니 영희가 등등 물살에 밀리어 떠오르고있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불안고 지켜보는데 이젠 거의 강기슭에 닿았는가싶던 찰나였다. 불어난 강물에 꺾쇠가 박혀있던 독이 뭉청 물살에 씻기워 떨어져나갔다.

《영희동무! 영희야-》

동무를 먼저 건너보낸 마음고운 처녀소조원은 물살에 떠밀리워 십여메터나 떠내려가다 그때 출근하던 농장원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다.

둘이 불안고 영영 울던 그때의 광경이 지금도 새록새록하다.

내가 20여년전의 한 세부를 장황히 그려내는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구원한다는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때 그 처녀소조원은 동무를 먼저 건너보내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한것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그는 위급한 시각에 자기 동무를 먼저 건너보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선포 바친다는것은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용단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봉산군 읍협동농장의 오영애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름대로 그때의 정황을 상상해보았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기에 의해 정월의 땀뺀 추위도 머리속인가싶은 읍협동농장 3작업반원들이 일하는 갈탄버럭채취장.

버럭더미가 움썰거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밑에서 계속 일손을 놀리고있는 한 녀성.

《영실동무, 비키라—》
 오염애동무는 와락 그를 밀쳐내었다.
 그 순간 버럭더미는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오염애동무를 끌어안고 분조원들이 목터지게 부르는 울음소리, 웨침소리만이 저 물녘의 들판에 오래오래 메아리쳐갔다.
 《영애동무우!—》…
 뜨거운 눈물이 가슴속 그들먹이 차오른다.
 우리 사회에는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만 살고있는걸까.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이야기…
 남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고 강물에 빠진 자기 딸이 아니라 옆집소녀를 구원하고 전사한 대원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친부모로 모시고 부모없는 청년들의 결혼식을 차려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 이제는 어디 가나 보고 들을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있다.
 황해북도 봉산군 읍협동농장 농장원이었던 오염애동무의 소행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시대를 풍미하며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었다.
 리창선, 박태선에 이어 오염애의 이름은 이 나라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성원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생각도 깊다.
 리창선, 박태선영웅들과 마찬가지로 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된 봉산땅의 한 녀성농장원을 나는 전에 알지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었다.
 그들과 나는 멀리에 있었다.

나의 소조시절 녀동무도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멀리로 헤어져 사는지가 십여년도 넘었다.
 먼곳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길에 만날수 있고 직장에서 책상에 마주앉으면 금시 문을 열고 들어와 사업토의를 하는 동지로도 보인다.
 즐겁게 웃으며 저녁을 즐기는 집식구들속에도 친척의 한사람으로 앉아있는것 같다.
 남이 없는 내 나라, 사회주의 우리 제도!
 바로 이것을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이 아닐까.
 신년사에서 온 나라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축원한다고 자애깊게 말씀하신 그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단에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그 누구이든 병든 자식, 상처입은 마음 차별하지 말고 따듯이 품안아주라 사려깊은 말씀도 해주신 그이.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인정과 바다같은 덕망의 몇분의 일이라도 닮아가려 애쓰는 우리 천만군민이다.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여버린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성돌로 사회주의성새, 조선이라는 성새를 쌓아올리고있거니.
 바로 그래서 그 어떤 오만무례하기 짝없는 적대세력들도 감히 우리를 어찌지 못하는것 아니라.
 더없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지는 이 마음.
 먼곳에 있어도 결코 멀지 않은 사람들…
 멀고도 가까운 사람들…

병사의 서정

김 영 남

천리행군길에 흐르는 더운 땀
 산천의 개울가에서 식혀가며
 산새소리 물소리 유정한 정서속에
 병사의 휴식은 꿀맛같은데

문득 안겨와라 저기 시내가 여울목
 채롱스러이 돌다리 건느는 꼬마들
 방금 유치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듯
 잠시도 가만있지 않는 저 모습
 이 산천에 더해지는 풍경이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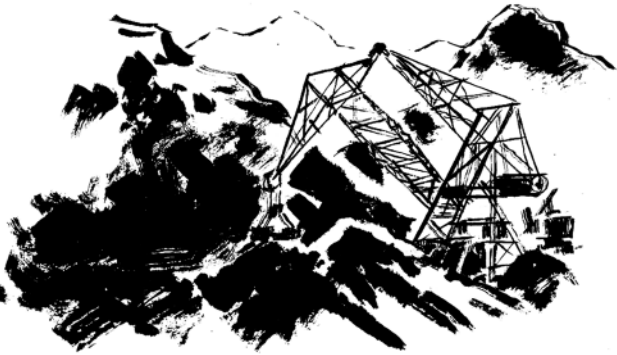
내 마음 어느새 아이되었나
 맑디맑은 개울물에 뛰어들어
 철부지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가재도 잡고 물장구도 치며

동심세계에 빠지고싶어라

허나 나는 병사
 또다시 행군길 이어가야 하리니
 길지 않은 천리행군휴식참에
 병사의 심장에 장약된것
 이는 청신한 산천의 아름다움과
 귀여운 아이들
 이 행복 지켜야 할 수호자의 자각이여

그렇다
 병사가 이 땅을 지키고있는 한
 병사의 서정은 조국보위성전에 있어
 우리의 굳건한 총대우에
 값높은 위훈의 금별로 새겨지리라

달리는 못살아



김 자 경

△때-현재

△곳-어느 로천탄광에서

△나오는 사람

리명진-박토갱 갱장, 45살

박창수-박토갱 대형굴착기소대장, 45살

최금순-리명진의 안해, 가족소대원, 42살

강복실-박창수의 안해, 가족소대원, 44살

고성찬-탄광설비과장, 55살

전래일-탄광지배인, 62살

기타 탄부 1,2,3, 가족소대녀인 1,2,3

제 1 경

△때-어느 여름날.

△곳-로천탄광 현장지휘부 앞마당.

△무대-한눈에 안겨오는 구호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와 속보 《함남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른다!》가 있고 무대 왼쪽에는 현장지휘부가 있다.

뒤쪽에는 박토산과 보수중에 있는 대형굴착기 1호가 보인다.

현장지휘부뒤쪽은 탄광마을로 통해있고 무대우에는 대형굴착기 2호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

△노래 《공격전이다》의 힘찬 울림속에 막이 열리면 현장지휘부안에서 전화종소리 울린다.

△박토갱 갱장 리명진 급히 들어가 송수화기를 든다.

명진-여보시오! 예. 제 금천청년탄광 박토갱 갱장입니다. 기상관측소라구요? ... 예? 많은 비가 온다구요? 예. 미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송수화기를 놓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나온다.) 많은 비가 온단 말이지. 음... 어떻게 비가 오기 전에 저 굴착기를 이동시켜야겠는데...

△탄부 1,2,3 떠들썩 웃으며 나온다.

탄부들-갱장동지! 안녕하십니까?

명진-오, 대형굴착기소대동무들이구만.

탄부1-저, 갱장동지! 그게 정말입니까? 갱장동지가 석탄공업성으로 소환된다는것 말입니다.

명진-석탄공업성? 하! 이거 통신병출신제대군인의 안테나가 꽤 높은걸, 하하...

탄부2-그래 언제 올라가십니까?

명진-오, 그건... 이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다음이요.

탄부들-그렇습니까?

탄부3-그런데 갱장동지가 소환되면 우리 소대장동지가 섭섭하겠군요.

명진-그건 왜?

탄부3-사실 갱장동지와 우리 소대장동진 이 탄광마을에서 함께 태어났구 또 함께 자라난 소꿉시절동무가 아닙니까? 더우기 갱장동지 아주머니와 소대장동지 아주머니 정말 가까운 사이던데 서로 헤어지면 얼마나...

탄부들-정말 섭섭하겠습니다.

명진-참, 그건 그렇구. 그대 동무들은 장마철석탄생산을 넘쳐수행할 방도에 대해 생각해봤소?

이제 많은 비가 온다는데 좋은 수가 있으면 어서들 말해보오.

탄부1-예, 제 생각에는 굴착기가 옮겨갈 채굴계단에 미리 자갈과 통나무를 깔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명진-하지만 비가 내려 채굴계단이 감탕에 묻히면 어떻게 한다? 더우기 그 구간은 붕락구간이거든.

탄부1-제 그것까지는 미처...

명진-생각해야 하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힘과 지혜를 합쳐 굴착기를 이동시키구 또 이달 석탄계획도 무조건 수행하구요!

탄부들-알았습니다! (굴착기쪽으로 나간다.)

△이때 소대장 박창수, 설비과장 고성찬 나온다.

창수-갱장동무!

명진-오, 소대장동무구만.

창수-이제 당장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데 저 위험

한 봉락구간으로 굴착기를 이동한다는건 무슨 소리오? 그러다가 굴착기를 아예 파손시키자구 그러나?

성찬—굴췌 말이요. 갱장동무도 알다싶이 저 1호까지 대보수에 들어갔는데 2호를 어떻게 그 위험한 곳으로 이동시키겠소? 난 설비과장으로서 굴착기이동을 반대하오. (썩— 나간다.)

명진—...

창수—여보게! 자네 저 굴착기를 자네네 철이나 우리 향미가 가지구 놀던 놀이감굴착기루 생각하는건 아닐테지? 보다싶이 저 굴착긴 몸무게가 천톤이 넘구 팔길이만 해도 수십메터가 되는 거물급 특대형기계가 아닌가?

그리구 작업조건이 지금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계획을 조금 미달했다고 큰일 나겠나?

명진—하지만 우리야 공업전선의 생명선을 지켜선 탄부들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석탄을 요구하고있는가를 자네도 모르진 않을테지?

창수—그러나 굴착기가 감탕에 빠지면 생산은 고사하구 우리 아버지들의 피와 땀이 스민 저 귀중한 굴착기까지 잡는다는걸 생각해봤나? 난 그 생각만 해도 음음... (끔찍한 환영을 털어버리듯 눈을 감으며 머리를 짓는다.)

명진—아니, 이거 영웅탄부의 아들답지 않게 왜 이리 울상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굴착기의 조종간을 틀어쥔 탄부의 심장이야 남보다 두세배는 더 커야지? 응? 자, 그러지 말구 우리 힘과 지혜를 합쳐서 다시한번 불가능에 도전해보지요.

창수—도전?

△굴착기쪽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청춘의 희망이 나래펼치는
우리의 탄전이 나는 좋아라
검은금 폭포에 기쁨을 실어
락원의 강산을 꽃피운다네
아
...

창수—(신경질적으로) 여! 철남이!

소리—예!

창수—거 노랜 그만 부르구 굴착기정비나 잘 하라구!

소리—알았습니다!

창수—흥! 뭐가 좋아서... (민망스럽게 흘겨보며 혀를 찬다.)

명진—난 듣기 좋구만. 저 아찔한 머리활차우에서도 랑만에 넘쳐 노래부르는게 얼마나 좋소?

참, 저 동물 보니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나누만.

창수—(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새삼스럽게 어릴 때 생각은 무슨...

명진—왜? 난 지금도 우리 함께 다정하게 뛰놀던

그 시절이 몹시 그리운데...

창수—...

△이때 최금순, 강복실 나온다.

복실—아이구나! 우리 랑군님들이 모두 여기에 계시는군요.

금순—향미 엄만 그저... 호호...

복실—(명진에게) 철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금순—(창수에게) 수고하누만요, 향미 아버지!

명진—이거 오늘도 가족소대에서 지원사업 나왔구만요.

복실—예, 뽕도 딸겸, 님도 볼겸. 랑군님도 만나 보구 또 도로땀기도 도우려구 왔답니다.

명진—그래요?

복실—참, 철이 아버지 언제 올라가시나요?

명진—?!

복실—석탄공업성에 말이예요.

명진—글췌요, 그건 저...

창수—(안해의 옷자락을 당기며) 당신이 그건 알아서 필하오?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복실—당신두 참... 나야 그저 철이네 식구들과 송별식사라도 하자는거예요. 내 그래서 철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시원한 맥주랑, 물 좋은 낙지에 오리고기랑 다 준비해놓았단니까요. 회도 치구 불고기도 하자구 말이예요.

명진—하! 이거 말만 들어두 구미가 동하는데요? 하하...

금순—향미 엄만 정말 마음씨두 곱지만 료리솜씨 또한 기가 막히단니까요.

복실—아유! 어지럽다! 난 말비행긴 딱 질색이니 이다음 평양에 올라가서도 함께 살던 정만 잊지 말아주세요.

명진—예, 그럼시다! 하하... 어떻게 향미 어머니만 오면 이 작업장이 환해진단니까요.

복실—아이구나, 무슨 말씀을... (남편에게 톡조로)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창수—이건 그저 주책없이... (못마땅한 눈길로 흘겨본 다음 현장지휘부로 들어간다.)

복실—여보! (따라들어간다.)

금순—여보! 향미 아버지가 왜 그래요? 혹시 당신과...

명진—됐소. 당신은 그저 제 할일이나 하오. 난 기술과에 가 봐야겠소. (나간다.)

△금순 근심에 싸여 남편의 뒤모습을 지켜본다. △현장지휘부에서 들리는 박창수와 강복실의 목소리.

복실—여보! 당신 철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수—일은 무슨 일?

복실—아니! 녀자의 눈은 못 속여요. 내 보기엔 두사람사이가 심상치 않단 말이예요.

참수-아, 댔다지 않소?

복실-(간청하듯) 여보! 당신 철이 아버지일을 잘 받들어주세요. 철이 아버지야 오래지 않아 탄광을 떠날텐데 제발 다른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참수-됐소, 됐소. 쓸데없는 소린 그만하구 어서 가보요. (굴착기쪽으로 나간다.)

△현장지휘부에서 나오던 복실 금순과 마주친다.

복실-철이 엄마!

금순-향미 엄마! 우리 도로담기장에 가자요.

복실-예, 그러자요.

△금순과 복실 나가려는데 급히 나오는 고성찬.

성찬-갱장동무! (현장지휘부안을 들여다보며) 방금전에 있었는데...

금순-좀전에 기술과에 가던데요.

성찬-기술과에? (나가려다.)

복실-과장동지! (다가간다.) 헌데 과장동지가 이렇게 안타까이 뛰어다니는걸 보니 저 굴착기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지요?

성찬-예에, 말두 마오. 이제 다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갱장동무때문이지요. (나간다.)

금순-저 과장동지! (뒤따라 나가려다.)

복실-철이 엄마!

금순-이거 미안하군요. 우리 세대주때문에 모두 저렇게...

복실-(단호하게) 아니예요! 그건 다 우리 세대주가 소대장구실을 잘못해서 그래요.

금순-아니예요. 원래 끝은목인데다가 고집이 세구 또 넓다 내밀기만 하는 우리 세대주가 이번 에 또 무슨...

복실-(손뼉을 친다.) 그게 바로 사내지요 뭐.

그런데 우리 세대준 체통은 크지만 언제 봐야 대담하구 통이 큰데라곤 눈곱만큼도 없이 늘쌍 돌다리 건너가는 소경같다니까요. 막대기로 한참씩 돌다리를 두드려보구 만져보구... 그래가지구 야 언제 강을 건느겠나요? 차라리 물에 침병 뛰어드는게 낫지.

금순-그래두 침착하구 심중한게 얼마나 좋아요.

복실-예-좋다마다요. 참, 철이 엄마, 난 아무래두 이 장고춤만은 이번 소품공연때 못하겠어요. 좀 보겠어요? (춤을 춘다.)

△가족소대녀인들 나오다가 복실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녀인1-향미 엄마! 거기서 뭘해요?

복실-보구두 몰라? 장고춤 추는거. (계속 춤추며 돈다.)

녀인2-랑군님을 만나보니 춤가락이 절로 나오는 모양이지? 호호...

△까르르-웃음보를 터뜨리는 녀인들.

녀인3-자, 이젠 어서 작업장에 가보자요.

녀인들-그러자요! (나간다.)

△지질도를 펼쳐든 명진 들어온다.

명진-(혼자말로) 현상태에서 다계단으로 박토 처리를 계속하자면 반드시 이 지점을 타고앉아야 한다. 그러자면...

△박창수, 고성찬 함께 나온다.

성찬-갱장동무!

명진-아! 설비과장동무구만. 소대장동무도 마침 왔구만. 자! 이걸 좀 보오. 내 이걸 보니 굴착기이동은 바로 이...

성찬-또 굴착기이동소리요? 내 참...

지금 성에서도 굴착기이동문제때문에 아마 론의가 많은가 보오. 그래서 지배인동지두 어제 아침 성으로 올라갔소.

참수-우에서도 우리 탄광의 석탄생산이 저 굴착기에 달려있구 또 굴착기의 가동률이자 석탄생산이라는걸 잘 알고있으니까.

명진-그렇다구 굴착기를 세워둔채 그냥 있으라는건 아니겠지요?

성찬-이런 참...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갱장동무! 난 갱장동무가 좀 더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구만. 갱장동무야 나나 이 소대장보다 성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할 사람이 아니요?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요.

명진-아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성찬-뭐요?

참수-갱장동무! 그래 갱장동문 우리가 생산은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로 보이오?

명진-그런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석탄생산계획은 무조건 수행해야 하겠는데 굴착기를 이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계획을 한다는거요? 계획을 못하면 그보다 더 큰 최악은 없소.

성찬, 참수-최악?

△이때 최금순 나오다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참수-하지만 저 굴착기를 이동시키다가 파손되는 경우 그건 더 큰 최악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갱장동문 달라졌소! 너무하단 말이요.

(쌍-나간다.)

명진-소대장동무! 참수!

성찬-나도 소대장동무와 같은 생각이요. 그리구 갱장동문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오. (나간다.)

명진-과장동무!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는 최금순.

금순-여보!

명진-오, 당신이요?

금순-(새 장갑을 주며) 자요!

명진-벌써 바꾸어 낄 때가 됐는가? (낡은 장갑을 벗으며 싱긋이 웃는다.)

금순-(한동안 갑자르다가) 여보! 난 지금 당신

마음이 괴로우리란걸 잘 알아요. 또... 석탄생산때문에 애쓰는 그 마음도 잘 알구요. 하지만 난 당신이 소대장과 중대장을 거쳐 갱장이 되었고 더우기 오래지 않아 성으로 소환된다고 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무시하구 어제날의 우정까지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가봐 근심이에요.

명진—그러니 당신도 내가 독단을 부린다는 거요?

금순—글쎄... 그런게 독단인지는 잘 몰라도 난 그저 당신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군이 되었던 해요. 정으로 맺어지구 그 정으로 사는게 인간생활이 아니냐요?

난 지금두 당신이 석탄공업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일을 잊을수 없어요.

그때 향미 아버지인 당신이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대회장에 뿔뿔이 들어서게 해야 한다면서 고속도박토처리경기를 발기하구 낮과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지 않았나요?

어디 그뿐이냐요?

당신이 갱장사업을 잘하려면 집근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째짤이 울타리보수랑 세면장수리를 해주지 않았나요?

명진—나도 그걸 모르는게 아니요.

금순—그렇다면 당신도 그만한 아량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요? 더우기 당신이야 성으로 올라갈 사람이 아니냐요? 그러니 이번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게 어때요?

명진—(머리를 짓는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소.

금순—그러니 당신은 그 귀중한 우정도 의리도 다 던져버리겠다는건가요?

명진—...

금순—너무해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 정말 모질군요! (울먹이며 달려나간다.)

명진—어보!

△명진 괴로움에 모대길 때 음악속에 독백이 울린다.

《내 파연 자기의 발전과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우정도 의리도 다 던져버리는 몰인정한 사람이란 말인가.》

△박토산우에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

△명진 달빛 흐르는 박토산을 바라보며 홀로 거니는데 탄부 1,2,3 떠들썩 웃으며 나온다.

탄부들—갱장동지!

명진—오, 동무들이요?

탄부1—헌데... 여기서 뭘하십니까? 얼굴색이 어두운걸 보니 무슨 고민이라도...

명진—஌소, 내 지금 혼자 모대기는중이었소.

탄부2—그걸 우리에게 더놓으면 안됩니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구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는데...

명진—하! 이거 동무의 말이 그럴듯하구만. 응? 좋아! 내 그럼 다 더놓겠소. (땅바닥에 앉으며) 동무들도 알다싶이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더 많은 석탄을 캐자면 하루빨리 저 굴착기를 이동시켜 탄밭을 마련해야 하요. 그런데 저렇게 위험구간이거든. 게다가 사람들의 의견도 하나 같지 않구...

탄부3—야! 우린 갱장동지가 그런 줄장부인줄 몰랐습시다.

명진—줄장부?

탄부3—그렇습시다! 갱장동지도 범을 잡자면 범이 있는 산속으로 대담하게 들어가야 한다는것쯤은 잘 아실텐데...

탄부2—஌습시다! 우리 탄부들이야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쯤한 일로 주저하십니까?

명진—(탄부들의 손을 와락 잡으며) 동무들! 고맙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러구보니 난 정말 줄장부였소! 줄장부! 하하...

△ 지배인 전태일 나온다.

대일—웃음소리 높은걸 보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구만?

△탄부들 모두 지배인을 반긴다.

명진—성에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일—성에서는 장마철에도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겠다는 동무들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었소.

명진—(기쁨에 넘쳐) 그렇습니까?

대일—문제는 결심이요. 결심만 든든하면 못해낼 일이 없거든.

명진—...정말 그렇습시다.

대일—참, 내 이야기 하나 할가?

탄부들—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일—이제는 수십년세월이 흘렀지... (추연한 눈길로 박토산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 탄광앞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석탄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상부지구에서 박토를 처리하던 굴착기를 탄밭에 진입시켜야 할 긴급과제가 내려졌소. 그런데 굴착기가 채굴계단을 따라 내려오자면 한달이상 걸려야 한가지 않겠소?

그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351고지에서 《호랑이분대장》으로 불리웠다는 한 탄부가 상부지구에서 탄밭까지 직선으로 꿰질러 내려올 대담한 결심을 내리는것이였소.

탄부들—아니, 그 가파로운 곳으로요?

대일—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소. 하지만 그 동무는 굴착바가지로 채굴계단을 정리하구 앞으로 쏠리는 힘을 조절하면서 끝내 일주일만에 탄밭에 진입하구야말았소!

탄부들—히야! 전쟁로병이 다르긴 다르구나!

대일—그날 그 탄부에게 꽃다발도 안겨주고 목마도 태우려고 굴착기걸로 모여왔던 탄부들과 가족들은 그만 오열을 터뜨리고말았소.

탄부들—?!

대일—일주일동안이나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그 사람은 억세게 틀어잡은 운전대를 놓지 못한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소.

탄부1—저, 지배인동지, 그가 누구니까? 예?

대일—그 탄부가 바로 우리 탄광의 첫 영웅인 창수소대장의 아버지요.

탄부들—우리 소대장동지의 아버지라고요?

대일—바로 이런 정신력을 지닌 우리 탄부들이었기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높이 평가하시고 내세워주신게 아니겠소.

탄부들—지배인동지!

대일—동무들! 우리 함께 팔을 끼구 어깨걸구 일어나 합남의 불길 높이 더 많은 석탄을 캐내자구.

탄부들—알았습니다!

대일—갱장동무!

명진—지배인동지!

△그들 뜨겁게 손을 잡을 때 무대 어두워진다.

△사이막이 내려온다.

—억수로 퍼붓는 비! 굴착기의 동음소리!

—국부조명속에 굴착기를 바라보며 불안에 잠겨있는 박창수와 고성찬.

성찬—소대장! 이런 날씨에 굴착기를 이동시키도 일없겠소?

창수—(억증스럽게) 보다싶이 저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성찬—(자라목을 하며) 이크! 무슨 비가...

△굴착기의 동음소리가 멎는다.

△누군가에게 떠박질리운듯 흠칫 물러서며 불안에 떠는 두사람.

△무대밖에서 울리는 소리

《갱장동지! 굴착기가 감탕에 빠졌습니다!》

창수—(무릎을 치며 주저앉는다.) 야! 이젠 다로구나!

성찬—끝내 고집하더니... 아이쿠!

△무대 서서히 어두워진다.

제 2 경

△때—며칠후

△곳—1경과 같은 장소.

△무대 밝아지면 기울어진 굴착기를 끌어내기 위한 전투가 한창이다.

통나무며 자갈마대를 메고 달리는 탄부들과 가족소대녀인들...

명진—(전투를 지휘한다.) 자! 통나무는 모두 굴

착기앞으로 가져오시오!

△급히 나오는 지배인 전대일.

대일—갱장동무!

명진—안녕하십니까? 출장을 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대일—지금 도착하는 길이요. 그런데 얼마쯤 이동하다가 빠졌소?

명진—얼마 전진 못하고 그만...

대일—완전히 넘어지지 않은게 다행이구만. 그 래 현상대는 어떻게?

명진—자체중량에 의해 뒤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대일—뒤쪽으로 기울어진다?

△탄부1 달려나온다.

탄부1—갱장동지! 통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명진—통나무가?

대일—빨리 청년갱에 전화를 걸어 통나무를 실은 차가 떠났는가 알아보오. 난 굴착기에 가보겠소. (나간다.)

△명진 현장지휘부에 들어가 송수화기를 든다.

명진—청년갱! 청년갱에 대오! 아! 마침 갱장동무구만. 다르게 아니구 여기로 올라오는 자동차가 떠났소? 도착할 때가 됐다구? 알겠소. (밖으로 나오며 생각에 잠긴다.) 지금 상태에서 굴착기의 수평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부속품을 가지고 바빠 나오는 박창수.

창수—갱장동무!

명진—오, 소대장동무구만. 공무직장에서 오는 길이요?

창수—그렇소! 참, 당위원회에서 갱장동무를 찾더구만.

명진—방금 연락받았네.

△자동차 경적소리

명진—(밖에 대고) 운전사동무! 그 통나무는 굴착기옆에 부리우시오!

소리—알았습니다.

△지배인과 탄부들, 고성찬 나온다.

대일—통나무를 실어왔소?

명진—예.

대일—헌데 지금상태에서 굴착기가 감탕에서 쉽게 나올것 같지 않은데 동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자! 어디 생각들을 말해보오.

창수—제 생각엔 이젠 비도 멎었으니 며칠 저 상태로 세워두었다가 물먹은 땅이 마른 다음 굴착기를 옮겼으면 합니다.

성찬—예, 방도는 그것뿐입니다.

대일—갱장동무도 같은 생각이요?

명진—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대일—어떻게? 어디 한번 말해보오.

명진—제 생각에는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굴착기의 수평을 보장한 다음 옮길것이 아니라 지금상태에서, 다시말해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냥 굴착기를 이동시켰으면 합니다.

△흥미와 불안이 엇갈리는 눈빛들.

모두—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동시킨다구?

창수—(쓰겁게 빈정거린다.) 이거 참, 또 무슨 일을 치겠군. 음음...

성찬—갱장동무! 갱장동문 기울어진 굴착기의 경사각이 얼마나 아오? 그러다 넘어지는 날엔 다요.

명진—그렇지만 굴착바가지의 힘에 의지하면 십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두—굴착바가지의 힘?

명진—그렇습니다.

탄부3—그럼 어디 이동시켜봅시다. 제가 군사복무할 때 훈련을 하며 운전하던 탱크가 모로 기울어진적이 있었는데 기어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대담하게 탱크를 몰았습니다.

창수—이것 보오. 탱크는 무한케도 리데식이지만 저 굴착기는 걸음발 이동식이란 말이요.

탄부2—어떻든 대담하게 이동시켜봅시다!

탄부들—해봅시다!

래일—자!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말구 좀 더 토론해보지요. 나도 참모부서동무들과 다시 토론해볼테니까. 파장동무! 가지요! (고성찬과 함께 나간다.)

창수—(탄부들에게) 우리도 가서 굴착기정비나 하자구. (부속품을 가지고 굴착기로 간다.)

△모두의 뒤모습을 말없이 쳐다보는 리명진.

탄부2—갱장동지! 갱장동진 지금 동요하는게 아닙니까?

명진—?!

탄부2—난 갱장동지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진—그래 동문 어디에서 가능성을 찾았소?

탄부2—내 생각에는 굴착바가지를 땅속에 깊숙이 박아 중력중심을 유지하게 한 다음 앞으로 전진시키면 얼마든지 저 감탕에서 빠질수 있다고 봅니다.

명진—(기쁨에 넘쳐) 옳소! 바로 그거요. 그거! 어쩌면 내 생각과 그리두 꼭 같소. 응? 하하하...(탄부2의 등을 툭툭 친다.)

탄부1—갱장동지! 우리 지금 당장 이동시킵시다!

탄부2—참! 그런데 이거 운전이 문제구만?

높은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저 운전을 누가 하겠소?

탄부들—(락심하여)...

명진—(탄부들을 둘러보며) 굴착기운전은... 내가 하겠소.

탄부들—(놀란다.) 갱장동지가요?

명진—(흔연히 웃으며) 나도 5년전엔 저 굴착기

의 책임운전공이었소.

탄부들—하지만 갱장동진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명진—이거 왜 모두들 심각해서 그래? 대장부들답지 않게. 참, 동무들을 보니 며칠전 시랑송모임때 생각이 나누만. 그때 동무들은 이렇게 시를 읊었지?

...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탄부들—(뜨거운것을 삼키며) 갱장동지!

명진—자! 그럼 우리 이동준비를 하지요!

탄부들—알았습니다!

△탄부들 신심드높이 나가려는데 박창수 들어온다.

창수—여기서 뭘들 하고있소? 자! 우리 공무직장에 내려가지요. 며칠동안 굴착기가 가동하지 못할텐데 그동안 부속품들이나 착실히 준비해놓아야지?

탄부1—소대장동지! 우린 지금 이동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불에 덴듯 흠칫 몸을 떤다.) 뭐요?

그러니 동무들도 그 무분별한 모험에 참주겠다는거요?

탄부2—이건 결코 모험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해낼수 있습니다!

창수—(주먹으로 허공을 가르며) 됐소! 내 동무들과는 더 말하지 않겠소.

명진—(다가서며) 소대장동무!

창수—(결기오른 얼굴로 마주 다가서며) 갱장동무! 그래 갱장동문 떠나기 전까지 날 괴롭히자는거요? 무엇보다문에 마지막까지 모험을 추동하는가 말이요!

명진—...

△탄부들 하나, 둘 나간다.

창수—(여전히 결기오른 얼굴로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갱장동무야 이 탄광을 떠날 사람이 아니요? 계획을 미달해도 갱장동무에겐 책임을 묻지 않소. 책임을 물어두 우리에게 묻구 벌을 받아도 우리가 받는단 말이요.

명진—그러니 석탄을 캐든말든 남의 일이니 상관말라 이거요?

창수—...

명진—(거친 숨을 몰아쉬며 준절히 말한다.)

알겠소! 내 이제야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단 말이요! 동문 석탄이야 캐든말든 자기 힘에 부치지 않을만큼 적당히 살려는 사람! 아버지들의 위훈을

가슴에 새기기는커녕 그 영웅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지내려는 시대의 속물이요!

창수—날 모욕하지 마요!

명진—아니! 난 더 말해야겠소! 동문 지금 아버지들을 모욕하고있소!

만약 의식을 잃는 그 순간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동무의 아버지가 오늘의 동무를 본다면 뺨을 쳤을거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지 못하는 동무에게 매를 들었을거란 말이요!

창수—뭐라구?

(굳어진듯 서있다.)

△탄부들 나온다.

탄부1—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진 갱장동지에게 모험을 추동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갱장동진 자기가 직접 저 굴착기를 운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창수—(숨이 꺾 막힌듯) 갱장동무가?

탄부2—소대장동지! 우린 소대장동지의 가슴속에서도 불길이 타올랐으면 합니다. 지금 온 나라에 타오르는 함남의 불길이 어떤 불길입니까? 자기 힘을 믿고 만난을 헤치며 진격로를 열어가는 신념의 불길, 공격전의 불길이 아닙니까? 그러구 우리야 함남의 불길을 지퍼올린 함남땅의 로동계급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대장동진...

△탄부들 굴착기로 나간다.

△그들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의자에 풀썩 주저앉는 박창수.

△잠시후 명진, 금순, 복실 나온다.

명진—소대장동무! 여기 누가 왔나 보요.

복실—여보!

창수—오, 당신이요.

복실—저녁식사 가져왔어요. 자요!(밥꾸레미를 남편과 명진에게 안겨준다.) 철이 아버지, 자요!

명진—이거 묵직한걸 보니 평장한 특식을 준비했구만?

복실—(금순에게 눈을 꾀적여보인 다음) 철이 아버지건 다 밥이구 당신건 모두 반찬이에요.

창수—이거 참, 밥과 찬을 따로 꾸리면 어떻게 하오? (다분히 신경질적이다.)

복실—예, 우리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금순을 마주보며 의미있게 웃는다.)

명진—오! 그러니 자네와 내가 꼭 함께 먹으라 이 뜻이구만?

금순—예, 그래요!

창수—음음... 할수 없군.

맨 반찬만 먹을순 없구, 그렇다구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게구. 허허... (허구픈 웃음)

복실—(이때라싶게) 아니! 당신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군요. 난 그런줄도 모르구 웃는 신경이 아

예 고장난줄 알았다니까요. 호호...

창수—(악의없이 흘려보며) 저 사람이 점점 한다는 소리가... 뚱뚱해가지고 호들갑거리긴 허.

복실—(정색한 얼굴로) 내가 어드래서요? 이만 하면 안팎으로 표준형이 아니나요. 예?

모두—하하... 호호...

명진—자, 그럼 저녁식사는 모두 지휘부안에 들어다 놓소.

금순—알겠어요. (지휘부에 들어간다.)

창수—(진정을 담고) 자네 굴착기를 운전하겠다고 했다면서?

명진—(흔연히 웃으며) 음, 난 이미 결심했네.

창수—지금형편에서 굴착기를 운전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텐데... 어떤든 자네야 성으로 올라갈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명진—나를 위하는 자네의 그 마음은 고맙네.

하지만 난 며칠전에 당위원회에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들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이 탄광에서 영원히 탄부로 살겠다고 정식 제기했네.

창수—아니, 그게 정말인가? (놀란다.)

금순, 복실—(억이 막혀 굳어진다.) 어찌면...

명진—사실 난... 소환은 교사하구 별을 받아 마땅할 몸이네.

금순—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때문에 별을 받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예?

창수—여보게! 자네 그건 거짓말이지? 그저 그래 보는 소리겠지. 웬?

명진—소대장! 자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서거하신 그 가슴아픈 12월의 날과 날들을 잊지 않고있겠지? 그때 난 생산조직을 더 짜고 들면 박토처리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고 기름진 탄밭을 더 마련할수 있었지만 빠듯이나마 연간계획을 수행했다는 만족감에 들떠 한껏 탕개를 풀고있었네. 더우기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추워지는 데 새해전투준비나 하면서 쉬엄쉬엄 일하려고 생각했었지.

글쎄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야전열차에서 순직하실때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탄부라는 이 못난놈은 제 기분에 들떠있었으니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또 어데 있겠나?

그 나날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맹세를 다졌네.

내 한생 이 손이 닳도록 석탄을 캐고 또 캐내여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을 석탄생산으로 높이 받들어나가겠다고 말이네.

그래서 성으로 소환되는것도 마다했구 또 오늘 저 굴착기도 운전하려는거네.

창수—갱장!

금순—여보!

명진—나도 지금상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는것

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아네.

하지만 이 땅위에 기어이 강성국가를 세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쏘아지는 폭우와 찬눈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비가 온다고 주저하고 제 한몸의 위험때문에 물러설수 있겠나.

자, 그럼 난... (나가려 한다.)

창수-(명진의 앞을 막아서며) 명진이! 자네도 내 친구가 옳은가?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이렇게 도 날 피롭히나. 응?

명진-날... 용서하라우.

창수-용서? 뭘 용서하라는건가? 저 혼자만 장군님의 유훈을 지키려는걸 용서하라나? 저 혼자만 아버지들의 넋을 이어가는걸 용서하라나? 왜서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이끌지 못하나?

왜서 종아리를 치면서 이끌지 못하는가 말이네.

명진-?!

창수-(애원하듯 간절한 어조로) 날 자네의 보조운전공으로 받아주게. 책임운전공옆엔 반드시 보조운전공이 있어야 한다는걸 잊었나?

명진-창수!

창수-명진이! (뜨겁게 손을 마주잡는다.)

△이동준비를 갖추고 나오던 탄부들도 뜨거운 열을 삼킨다.

탄부1-야! 소대장동지도 함께 운전하겠다는니 우리 마음도 든든합니다. (눈굽을 닦으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명진-자! 그럼 우리 함께 저 무쇠철마를 움직여보자구!

탄부들-알았습니다!

△모두 굴착기로 나간다.

△녀인들 달려나온다.

녀인1-항미 엄마! 저기 갱장동지랑, 소대장동지랑 모두 굴착기에 올라가누만요.

복실-우리두 다 보구있어요.

△다급히 나오는 지배인과 설비과장.

대일-갱장동무가 굴착기를 운전하려는게 아니요?

성찬-그런것 같습니다. 내 당장... (나가려 한다.)

금순-(앞을 막아서며) 저 파장동지! 제발 막지 말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찬-?!

금순-지배인동지! 파장동지! 우리 남편들은 저 굴착기를 기어이 이동시킬겁니다. 믿어주십시오.

대일-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도 든든하구만. 고맙소. 그럼 난 저 동무들의 운전을 지휘할테니 파장동문 지휘부에 남으시오.

성찬-알았습니다.

△둔덕에 뛰어올라 굴착기이동을 지휘하는 전대일.

대일-모든 운전공들과 기대공들은 내 명령을 들

으라! 책임운전공! 내 말이 들리는가?

소리-들린다!

대일-유압공! 조작공! 내 말이 들리는가?

소리-들린다!

대일-목표 경사진 채굴계단을 따라 앞으로!

△거대한 무쇠철마의 웅웅한 전진이런듯 높아가는 굴착기의 동음소리!

△긴장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계의 초침소리!

복실-철이 엄마! 난 심장이... 심장이 막... (눈을 감으며 몸을 뒸다.)

금순-(자기자신에게 이르듯 속삭이며) 항미 엄마! 우리 마음을 크게 먹자요. 남편들이 우리 얼굴에서 힘과 용기를 가다듬게 말이에요.

복실-철이 엄마!

금순-항미 아버지 꼭... 꼭 해낼거예요.

성찬-(굴착기쪽을 보며 응원하듯이) 용타!... 용타!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잘해!

녀인2-철이 엄마! 저기, 저기 굴착기가 나와요.

△탄부들의 환희에 넘친 목소리 울린다.

《굴착기가 올라섰다!》

《굴착기가 나왔다! 만세!》

성찬-(몰래 눈굽을 닦으며) 굴착기가 살았구나, 살았어...

금순-(격정에 겨워)항미 엄마!

복실-철이 엄마! (뜨겁게 껴안으며 울고웃는다.)

△승리자의 기쁨안고 나오는 명진, 창수, 지배인, 탄부들.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가족소대녀인들.

성찬-갱장동무! 소대장동무! 축하하요. 동무들은 정말 강자들이요. 강자! 승리자란 말이요. 하하하...

명진-하! 이거 파장동무에게서 축하를 받으니 마음이 별스럽구만? 하하...

성찬-내 할말은 없소. 하지만 나도 이제부터는 동무들처럼 정신력의 강자가 되겠소.

명진-고맙소, 파장동무!

창수-나도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소.

석탄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던 전세대들의 넋을 이어 석탄생산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드는것이 오늘의 참된 애국이라는걸 이 심장으로 절감했소.

대일-아무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길에서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높이 울리는 기적소리.

탄부1-지배인동지! 저기 석탄을 가득 실은 열차가 떠나갑니다!

△모두 기쁨과 환희에 넘쳐 열차를 바래올 때 음악이 고조되면서 천천히 막이 내린다.

우리 세포비서가 온다

한 원 희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장벌
누구인가 반갑게 소리친다
들 가득 벌 가득
기쁨의 메아리 울려간다
—온다 우리 세포비서가 온다

작업반원들이 마중해 달려간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당세포비서
집에도 들리지 않고 포전부터 찾는다

어서 얼싸 안아보자
머칠 떨어져있어도 그립던 사람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모신 대회
그 높은 연단에서 토론하던 그대 모습
텔레비죤화면에서 우리는 보았다
더워오는 눈시울 저마다 습벅이며

그대가 아니었던가
모내기 첫날에 걸어올렸던 바지가랭이
날알이 무르익는 가을까지 내리우지 못하고
봄내 여름내 벌에서 산 당세포비서

때로는 농사일이 힘들다고
도시를 꿈꾸던 젊은이들도 있었건만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 탓하지 않고
사랑과 정으로 내세워주는
한가정 어머니같은 사랑 다 바쳤지

어머니 있는 집 언제나 정답듯이
그대가 있는 작업반에 정들었다
어머니당부가 소중하듯이
그대가 주는 세포분공이 소중한
흙 한줌 날알 한알 제 살처럼 아껴가며
우리모두 애국의 한마음 키워왔다

작업반원들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논 우리 밭 하나하나가
수령결사옹위의 전호임을 자각케 하는
선동연설도 곧잘 하는 팔방미인
그대가 안겨주는 신념과 랑만을 안고
우리모두 당의 참된 애국농민으로 자랐다

아, 우리 당세포비서가 돌아온다
우리 작업반 한식술의 어머니가 온다
세포가 강하면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무서운것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
심장속깊이에 새겨안은 우리 세포비서

손잡아보자 그리운 사람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믿음
우리 가슴 천이랑 만이랑에 심어가꾸며
알곡의 메부리를 쌓아올려
우리 당을 강철같은 당으로 다져가는
아, 우리 당세포비서가 온다

탄이여 너를 사랑한다

박 상 민

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없이 탄부가 무슨 보람에 살랴
탄이 가는 곳엔 행복이 꽃피기에
나는 탄을 보내는 기쁨속에 산다

콘베아에 실려
웃으며 떠나는 탄아
그 어디에 가도 잊지 말아라
탄부의 가슴엔 네가 짝 차있다
너도 이 땅을 위해 불타야 한다

이 가슴에 펼쳐진 푸른 하늘엔
우주를 정복한 우리의 《광명성》이 난다
과학자들과 어깨걸고 미래를 보며
탄부는 억센 손으로 땅속을 정복해야 한다
오, 꿈과 목표가 커갈수록 내 가슴에선
탄 너에 대한 사랑의 불이 더 세차게 타거니

탄부가 간직한 애국은
탄의 무게에 있기에
더 큰 탄발을 마련하느라
너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간다
경제전선의 최후병답게

탄이여 너는
내 가슴에 타는 불을
저 발전소화실에 지피고
내 가슴에 넘치는 사랑을
주체비료에 담아 베풀기 키우는가

그렇게 바치는것이 사랑인줄 너 알아
그렇게 깡그리 제 한몫 다 태우며
이 땅에 천만재부 마련해가는것이냐
탄부는 저 거목의 뿌리처럼
한생을 땅속에서 살아도 행복하다

동발이 막장을 받든다면
탄부는 조국을 받드는 동발이 되어
탄이여 너를 위해 한생을 바치고싶다
너를 위해 천만품이 들었대도
석탄산만 높일수 있다면 그저그만...

우리 탄광에 오시여
위대한 장군님 정을 담아 바라보신
저탄장의 석탄산은 내 모습인듯
탄에 비낀 나를 보는 조국은
얼마나 크나큰 믿음을 주고있는가

애국자라 불리움이
나에겐 너무도 송구하다
어머니를 위해 작은 노력 바친것을
자랑할 자식이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탄을 캐는것은 나의 본분일뿐인데...

아, 인민의 행복에
밑거름으로 살고싶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가꾸시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초석이 되고싶어
나는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사랑을
높아가는 석탄산우에 꽃피우고있다!

나는 아들과 그림을 그린다

김진주

해빛이 유난히도 따사로운
4월의 이 봄날
나는 대동강기슭에 앉아
행복에 겨워 바라본다
봄을 그리는 아들의 그림을

어머니된 궁지
가슴뿌듯이 느끼며
나도 기쁨에 잠겨 그려본다
희망의 푸른 하늘 훨훨 날으는
사랑하는 아들의 밝은 래일을

나는 아들과 그림을 그린다
우리 장군님 총대로 가꿔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이 봄 이 행복을
아들은 화판우에
나는 마음속에

그러도 그러도 끝이 없을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그린다
담아도 담아도 다 담지 못할
눈부신 래일과 그 미래를 그린다

아, 얼마나 좋은 이 봄인가
총대로 안아온 승리의 봄
오직 행복과 기쁨만을 그리며
나는 아들과 그만 시간을 잊고말았거니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이 생활 이 제도 이 조국
선과 색으로 어이 다 담으랴만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리고싶다
사랑과 정을 깡그리 부어
우리 장군님 한평생 가꿔오신 선군의 내 조국을

장군님의 념원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내 아들의 가슴엔 언제나 꿈과 희망만이 있어라
그 맑은 눈동자엔
언제나 승리로 빛나는 조국만이 있어라

나는 아들과 그림을 그린다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할
귀중한 장군님의 조국을 그린다
목숨바쳐 지켜갈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를 그린다



김 창 립

1

휘어든 멍기오리처럼 구불구불 뻗어간 산골짜 도로를 따라 쾌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병풍처럼 둘러막힌 봉우리를 가까이 하면서 벗어났다.

차에서 내린 로인이 허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주위를 둘러보다 감회깊은 어조로 띄엄띄엄 혼자소리로 말했다.

《산봉우리들은 예대론데 수림이 더욱 우거지구… 대체 몇년만인가.》

해마다 추석이면 어김없이 찾아보던 곳이였지만 신병관계로 최근 몇해동안 오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안고 서강민은 손에 든 두개의 꽃다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때는 아침시간이어서 산골특유의 청신한 맛이 온 폐부로 흘러드는듯 하여 서강민은 길게 심호흡을 하고나서 천천히 걸음을 내짚었다.

언덕길포장도로로 랑컨으로는 해묵은 잣나무림이 무성하여 산경사면을 뒤덮었다.

조용한 숲속의 아침안개발이 서서히 흩어지며 산 등성으로 소리없이 오르고있었다.

(백문철소대장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가.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협곡의 개울건너 돌층계를 올라서니 절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쪽에 은행나무 한그루가 하나의 작은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었다.

《히야, 세상에 이렇게 큰 나무도 있습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따라선 운전사가 웅장한 은행나무의 위용에 넋을 잃은듯 어린애마냥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강민은 승엄한 감정으로 나무앞에 멈추어섰다.
…

《서강민학생,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그것이 어디서 자라고있

는지 알고있습니까?》

《예?!… 저—어…》

서강민은 대답을 못하고 뒤통수기만 긁적거렸다. 다시 울리는 처녀선생님의 목소리…

《앉으세요.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학생이 있습니까?》…

추억인지 생시인지 그 한계가 분명치 않은 상념 속에서 서강민은 점도록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소대장동지!…》

서강민은 축축히 젖어드는 눈시울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다시금 눈길을 들어 키높이 자란 은행나무 우듬지쪽을 올려다보았다.

이때 뒤쪽 산아래 어디선가 먼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그리고는 쿵다당 쿵당, 쿵다당 쿵당… 렬차가 살같이 지나고있었다. 그 렬차소리를 들으며 서강민은 과거의 먼 추억속으로 빨려드는 자신을 느꼈다.

…전쟁!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날…

그날 소대는 날이 어둡자 고사포들을 렬차에 한창 싣고있었다.

《빨리 다그치시오. 1포, 2포, 3포…》

소대장 백문철의 웨침이 짙은 어둠속을 헤가르며 쟁쟁히 울렸다.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뿌—웅…

증기를 내뿜으며 용을 쓰기 시작하는 기관차의 차바퀴 움직이는 소리가 무개화차의 련결축들에 덜컹거리며 전달되었을 때에야 서강민은 《어휴!》하며 고사포곁에 자리를 잡고 털썩 주저앉았다.

렬차는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하였다.

또굴또굴 잘 여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고 떠나는 고사포병들을 바래주

러는듯 앞다투어 다가섰다가는 멀어지고 다가섰다가는 또 멀어지고있었다.

《부소대장동지, 우리 소대에 특별임무가 하달되었다면서 왜 이 렬차가 북으로 갑니까?》

소대의 막병이전사 림세혁이 서강민이옆에 슬그머니 붙어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때 렬차에 실은 고사포상태들을 다시금 간간히 돌아본 백문철소대장이 소대원들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물듯이 바라보는 소대원들의 눈길앞에 백문철은 아무 말도 없이 무엇인가 쑥 내밀었다.

《자, 한대씩 피우오.》

그의 손에는 담배쌈지가 들려있었다.

《마라초담배다. 뜻이 있는걸. 멋이 있어. 여 세혁이, 이거야, 이거. 소대장동지의 이 마라초담배쌈지가 무얼 의미하는지 알지?》

서강민은 소대장의 손에서 덩석 담배쌈지를 나꿔채듯 해가지고는 제먼저 손가락끝에 침을 발랐다. 그리고는 웅기중기 모여드는 소대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소대장동지, 이 마라초담배쌈지를 내놓는걸 보니 우리가 받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임무가 하는것이 명백히 알립니다.》

서강민이 제때답 흥에 떠서 말했다.

마라초쌈지!... 그것은 백문철소대장의 애용품이어서 아무에게나 척척 내어놓는게 아니였다. 한것은 지금처럼 소대가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게 되거나 무척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에만 맛보게 하는 소대장의 후한 씬씀이이기때문이었다.

《그렇소. 우린 이제부터 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되오. 아주 중요한 특별임무요.》

기차가 패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적비행기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려고 우정 야간렬차행군을 조직했으며 철저한 항공감시가 조직되었다.

구수한 담배연기냄새가 떠돌았고 모두가 흡족한 기분으로 불이 움푹 패여지게 담배들을 빨았다.

《부소대장... 우리 나라의 유명한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소?》

《예?!...》

백문철소대장의 뜻밖의 질문에 저 멀리 밤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모금모금 빨고있던 서강민의 두눈이 방금 렬차가 들어선 기차굴만큼이나 커졌다.

《서강민학생,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자란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다. 새파랗게 젊은 처녀선생님이 전쟁 전 성인학교에서 서강민에게 꼭 짊어서 물어보던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에 대한 꼭같은 질문을 오늘이 렬차우에서 지금 소대장이 또 묻고있다. 왜? 그 은행나무가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고가는 우리에게

무슨 련관이 있는가. 특별임무라는 흥뜬 기분과 야간렬차행군이라는 말없는 긴장감들을 녹찾혀주려고 소대장이 한담삼아 나누는 이야기일지라도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은행나무에 대한 질문이어서 서강민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렬차가 굴속에서 빠져나왔다.

패속이다. 또다시 기적소리를 길게 울린다.

《2천수십여년을 살아온다는 은행나무가 우리나라 동해안지방 어디에 있다고 전쟁전 공부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주긴 하였는데...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강민이 우연도 신통한 우연이라 생각하며 의문의 눈길을 소대장에게 던졌다.

《분해서 그러오. 미국놈비행기들이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적들까지 무참히 파괴하고있다는거요.

천연기념물인 그 은행나무에도 폭격을 가했다고 하오.》

《개새끼들, 비렬하기 짝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야만들 같으니라구.》

장탄수 김덕수가 분격해서 치를 떨었다.'

《소대장동지, 대체 우리 고사포소대가 받은 특별임무가 뭘니까?》

서강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안타까이 물었다.

허나 백문철소대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지금은 오직 고사포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신속이동시키는것뿐이요.》

더 말이 없었다.

렬차는 시간을 재촉하며 여전히 북으로, 북으로 쏜살같이 달리고있었다.

2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목숨과도 같은것이어서 오직 《알았습니다.》의 대답과 함께 그에 따르는 행동만이 필요하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유명하다는 거목의 은행나무앞에 마주섰을 때 서강민은 운명의 희롱처럼 안겨드는 놀라움에 자기자신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학생이 있습니까?》

그 은행나무다. 처녀선생님이 물었고 소대장이 물었던 그 은행나무가 지금 실물로 눈앞에 거연히 솟아있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단 말인가. 한그루 나무라는 표상밖에 가질수 없었던 바로 그 은행나무를 이 전쟁때에 우리가 굳이 고사포무력을 끌고 찾아왔단 말인가. 어째서...

은행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고사포진지를 만드는 일은 백문철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맹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고지가 아니라 한적한 골짜기... 절간... 은행나무... 그리고 수림속의 정적...

특별임무란게 결국은 전선을 떠나 후방으로 들어온것이라는 뗏뗏치 못한 생각으로 하여 가뜩이나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못하고 뺑뺑해있던 서강민의 가슴에 불이 일기 시작했다.

휘둘러대는 그의 공병삽날끝에서 흙덩이들이 여거저거 휘뿌러졌다.

《강민동지, 우리 서로 몇몇한 모습으로 전선에서 만납시다.》... 금속의 편지 한구절이다.

고향마을의 처녀 금속이가 보내오던 편지는 전선에서 싸울 때 얼마나 심장을 높뛰게 하였고 또 얼마나 큰힘이 되었던가. 언제나 그앞에 뗏뗏해지려 전투마다에서 용맹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강민은 고사포진지작업이 끝나자 삽날을 앞턱에 쿡 박았다.

《젠장, 맹랑한노릇이야. 다들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울 때 우리가 받은 특별임무란게 이렇게 절간의 나무나 지키는거라니, 헛참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전투임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싸우든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소대장동지가 강조했는데...》

소대의 막녕이로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림세혁이 물통의 마개를 열어 서강민에게 내밀며 어른스레 말했다.

그러는 림세혁을 힐끔 쳐다보고난 서강민은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이 전쟁판에 한그루 나무 지키는 전투임무가 하필이면 우리 소대에 하달됐으니 그제 속이 타서 그러는거야, 철부지같으니라구.》

그리고는 림세혁의 철갑모앞을 꺾 눌러주었다.

이때 구령소리가 울렸다.

《소대 모엿!》

백문철소대장의 웅글면서도 박력있는 웨침에 진지작업을 마친 소대원들이 텅성판에서 튀어난 쇠알처럼 날렵하게 자리들을 차고 뛰어나왔다.

소대원들이 은행나무앞에 정렬하였다.

소대장 백문철은 소대원들모두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라도 하려는듯 두려운 입술을 꺾 다물고 대렬을 일별했다. 부소대장으로서 1포장인 서강민이로부터 조준수들과 장탄수들, 함흥내기전사 림세혁이... 믿음에 찬 대원들의 눈빛을 마주보며 소대장은 침묵을 깨뜨렸다.

《동무들, 우리 소대의 전투임무를 구태여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백한것은 한개 고사포소대의 인원과 고사포 3문을 가지고 무조건 이 은행나무를 지켜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항

공감시를 강화하고 현재는 포탄을 아껴야겠습니다, 포탄이 도착할 때까지.》

백문철소대장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 항시 그러하듯 그가 중요성을 강조할 땐 긴 설명보다 이렇듯 짤막한 동안을 두는것으로 대신한다는것을 소대원들은 잘 알고있었다.

《부소대장동무.》

《엿!》

서강민이 차렷자세를 취했다.

언제나 락천적이고 얼굴에 그늘을 짓지 않는 서강민의 성격을 백문철소대장은 좋아했고 독립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자기의 대리인으로 1포장으로는 적임자를 두었다고 내심 기뻐하는터인지라 항상 먼저 찾곤 했다.

《우리 나라의 귀중한 천연기념물인 이 은행나무와 여기 안불사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해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불사를 빙 둘러감은 나지막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울방자를 틀고앉아 무릎우에 아이를 올려놓고 두손으로 감싸안은 모양으로 절간과 은행나무를 고이 품고있었다.

저녁노을의 황금빛이 나무밑등으로부터 줄기를 타고 천천히 우듬지쪽으로 기여올랐다. 록주석처럼 푸른빛으로 번쩍이던 잎새들이 순간 황홀한 불길로 타번지는듯 했다. 해빛이 사라지자 부채살처럼 퍼져오르는 노을이 하늘의 서녘기슭을 진한 붉은빛으로 물들였다.

고사포에 위장작업을 끝내고난 서강민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주머니에 손을 찔렀다.

언뜻 손에 짚이는것이 있어 무심결에 끄집어내니 그것은 이젠 네귀통이가 보풀이 일어 속지가 드러나보이는 편지였다.

(헛참, 사람의 일이란... 나무와 무슨 인연이라도 맺어져있길래 이렇게...)

서강민은 마디가 굵고 거쿨진 손으로 봉투속의 새하얀 속지를 꺼내어 펼쳐들었다.

한자한자 또박또박 박아쓴 금속의 필체가 또다시 줄줄이 안겨들었다.

《강민동지, 우리가 심은 살구나무가 이젠 키를 넘어 제법 새 아지들을 펼쳤어요. 마을사람들이 아마 래년엔 첫 열매가 달릴거라고 해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금속이... 내가 지금 이런 곳에 와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 헛참참.)

글자보다도 어쩐지 금속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밝혀와 서강민은 눈길을 들어 먼 하늘쪽을 바라보았다.

...동갑이 성철이와 함께 방아간집에 살구따러 갔던 일, 집이 비어있어 승인도 받지 못한채 나무

에 기여올라 살구파던 일, 다 큰것들이 이제 무슨 것들이냐고 고향을 지르며 달려오던 방아간집아바이, 나무에서 뛰어내려 들고뛰다가 넘어뜨린 강냉이포기들...

그때의 물덤벼술덤벼하던 행동... 그날 저녁 서강민은 아버지앞에서 진땀을 뺐지 않으면 안되었다.

《금숙이 삼촌어머니가 식사두 못하구 앓는다기에... 그 병엔 시큰 과일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루속에 살구를 담아들고 헐레벌떡 금숙이 삼촌어머니한테 달려가 털썩 내려놓을 때까지만 하여도 서강민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런 용단을 내렸고 행동을 했는지 몰랐었다.

말만 들어도 불편이 오그라드는 채 익지도 않은 살구알들을 내놓으며 《이걸 잡수십시오.》하고 투박스레 던지는 서강민의 그 행동이 너무도 우스워 눈물까지 찼끔 흘리던 금숙이 삼촌어머니를 보고서야 자기가 어떤 용감성을 발휘했는지 부끄럽고 땀망하기 짝이 없었던것이다.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이 드문듯 있었던지라 아버지까지도 《넌 하나는 잘 하는데 둘은 전혀 알고고도 하지 않는게 탈이야.》 하곤 했던것이다.

이듬해 봄날, 처녀선생님이 읍거리에 나갔다가 여러그루의 살구나무도들을 구해가지고 왔었다.

서강민은 굳이 제 손으로 심고싶었고 그래서 금숙이와 함께 학교앞마당에 정성껏 심었었다.

《은행나무도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제 고향의 살구나무까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며...

이젠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새 아지들을 펼쳤다니 무등 마음은 즐거웠었다.

고향의 추억에서 깨어난 서강민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감시병한테로 다가갔다.

《감시병!》

《옳!》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에서 불꽃이 일것처럼 영채가 도는 하사가 발뒤축을 절도있게 모았다.

《저기 보이는 역사쪽도 잘 감시하십시오. 자그마한 역이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지점이요.》

《알았습니다.》

3

특별임무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일개의 은행나무앞에서 물먹은 담벽처럼 되고만것은 단지 자신뿐만이 아닐거라고 강민은 마음을 달래고있었다.

소대장의 행동이 그저 야속하기만 했다. 왜서 전선을 떠날수 없다고 생각지라도 부리지 못했을까.

그러고보면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소대장의 얼굴에 알지 못할 그늘이 비끼고 자주 혼자생각에 잠길 때가 있곤 하는것이 그도 마음은 개운치 않은 모

양이었다. 벌써 몇번째나 절간과 나무주변을 돌면서 살피고 또 살피보는것이 이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대장은 은행나무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전투임무로 간주했으며 지키는것도 대상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더 잘 지켜낼수 있다며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때없이 해주곤 했다.

지금도 역시 고사포좌지에서는 백문철소대장의 강의가 진행되고있었다.

516년 고구려시기에 건립된 안불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고구려시기의 절간들로 이름을 남긴 평성의 안국사며 그리고 고성군 온정리의 신계사에 대해서도, 여러 절간들에 대해 폭넓은 리해를 가지도록 덧붙여 말했다.

사실 백문철소대장은 대단한 박식가였다.

언제 벌써 다 알고있었는지 안불사의 매력과 은행나무에 대해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터득하고있었다. 하긴 전쟁전에 벌써 력사와 지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력사 지리학을 배울것을 지망하였던것만 보아도 십분 리해가 깊다.

아마 우리 소대가 여기 온것도 백문철소대장의 이런 경력과도 관련되어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강민은 속으로 생각하고있느터였다.

백문철소대장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마음만으로 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그 귀중함을 알고 더 잘 지키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된다.

그럴 때마다 서강민은 고향마을 처녀선생님의 얼굴모습이 떠올랐고 은행나무이야기를 자기와는 상관없는것처럼 생각하며 귀담아들지 않은 후회까지 들곤 했다.

《여기 안불사의 은행나무는 2천수십여년을 자랐다는 기록도 있는데...》

백문철소대장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감시소쪽에서 다급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항공! 항공!...》

《소대 자기 위치로!》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소대는 날렵한 동작들로 진지를 차지했다.

우릉우릉 비행기소리가 들려왔다. 점점이 보이던 쉬파리떼같은 비행기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덮었다.

《쫓!》

《쫓!》

고사포들의 일제사격이 시작되었다.

시커먼 비행기동체들이 땅을 물어뜯을듯이 기수를 낮추고 폭탄들을 떨어우고 기총사격을 해댔다.

폭격에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흙기둥이 치솟았고 나무뿌리들이 뽑혀 나뒹굴었다.

《개새끼들.》

한적하던 산골짜기가 순식간에 판장판으로 되어 버린 듯 했다.

폭격과 포격… 판가리의 격전장이었다.

사방은 말그대로 흙먼지속에 잠겨버렸다. 고사포들의 물사격이 은행나무 상공에 밀집되자 하늘에서 소금물에 담그어진 미꾸라지새끼들처럼 어지럽게 뱅글뱅글 돌아치던 적비행기들이 달아빠기 시작했다.

《개자식들, 저것들한테는 그저 몽둥이가 제격이야. 쉬파리란 놈은 휘휘 물기만 해서는 안된다니까.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니.》

여기저기서 뽀얀 흙먼지가 떠돌았으나 서강민은 한결 속이 후련하였다. 우리 고사포가 없었더라면 저것들이 제 마음대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된맛을 보여준것이 은근히 기쁘기도 했다.

《다친데는 없소?》

백문철소대장이 고사포진지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없습니다.》

《개자식들, 미쳤지. 나무에까지 달려들어 폭탄을 떨어뜨려대는걸 보면 미쳐도 더럽게 미친 놈들이지.》

림세혁이 빈 포탄상자들을 들어내며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렸다.

백문철소대장이 무너져내린 진지들부터 빨리 보수하라고 명령했다. 첫 전투에서 고사포소대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패감으로 하여 소대원들은 다들 억척같이 삽들을 놀렸다.

진지보수가 끝나고 은행나무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아까부터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부르던 장탄수 김덕수가 갑자기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아이고 배야, 세혁이, 날 좀… 아이고, 배야…》

모두가 모여드는 바람에 림세혁이도 서강민이도 그리로 달려갔다.

《덕수동지, 아침에 뭘 잘못 잡순건 없나요?》

림세혁은 이런 때엔 제법 유능한 의사라도 된듯이 김덕수의 배를 꼭꼭 눌러보며 물었다.

《아니, 아침식사가 똑같이 하지 않았나.》

서강민이 가느스름한 두눈을 슬쩍거리며 하는 말에 백문철소대장도 정말 그렇다며 김덕수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김덕수가 아부재기를 치며 말했다.

《아니, 아니요. 따로 먹은게 있소, 내 혼자.》

《그게 뭐니까?》

림세혁이 다그쳐물었다.

《돼지대가리를 먹었어. 좀 계륜한걸 먹었더니… 아이고, 배야. 나 죽는다.》

김덕수의 말에 서로가 눈이 켜하니 마주보았다.

《아니, 돼지대가리가 어데 있었다고 돼지대加里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는 림세혁에게 김덕수는 한쪽눈만 빠끔히 뜨고 손가락으로 절간을 가리켰다.

《부처님앞에 누가 제물로 갖다놓은걸 몰래 훔쳐 먹었더니… 아이고, 배야.》

《예?!…》

그제야 배아픈 내막을 알게 된 림세혁은 《아— 그런거야 정수리에 침 한대면 알아보지요.》하며 웃주머니에 손을 넣는척 하였다. 그러자 김덕수가 《아이고, 배야. 세혁이, 날 살려라.》하며 벌떡 일어나 냅다 달아나는 바람에 골안이 들썩하게 폭소가 터져올랐다.

《엉터리, 엉터리야. 하하.》

백문철소대장도 눈물이 절끔 나도록 웃음바가지를 쏟아놓았다. 진실하고 정다운 소대원들이었다.

소대원들의 통지거리를 듣노라니 서강민은 은연중 부아가 일었다. 참지 못하고 짹 소리쳤다.

《자자, 다들 보수작업에 집중할것!》

그러자 소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지며 힐끔힐끔 눈치를 보는것이 결눈으로 알렸다.

서강민은 자신이 왜 괜히 대원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게 되는지 잘된 행동이 아니라는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억제할수 없었던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삽질소리만 두덕두덕…

얼마후 잠시 허리를 펴느라고 웃몸을 일켜세우는 데 소대장이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강민은 림세혁을 데리고 은행나무주위를 돌았다. 서강민은 림세혁에게 언제나 혼시를 많이 하면서도 그를 친동생처럼 사랑했다.

림세혁이 또한 그를 친형처럼 따랐다.

《부소대장동지, 대체 무얼 찾는다는겁니까. 빨리 갑시다, 소대장동지가 기다리겠는데.》

밀들들레가 10여메터는 실히 되는 은행나무를 따라돌며 세세히 살피는 강민에게 세혁이 물었다.

《사실은 말이야, 고주몽이 쓴 화살이 이 은행나무 어디엔가 와서 꽂혔다는데 그걸 찾는중이야.》

《예? 하하… 아니, 그거야 전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림세혁이 어치구니가 없어 웃음집을 터뜨렸다.

《그래두 그 화살이 아직도 박혀있어 나무가 고통을 받고있을것만 같은게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린단 말이야.》

서강민은 진짜 화살이라도 찾아내려는듯 나무의 아래우를 깐깐히 살폈다.

《히야, 임진왜란때 너중들이 이 절간에서 쓰던 귀물들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세혁이, 사실은 말이야, 어제 폭격때 혹시 나무가 상처라두 입지 않았나 해서 오자고 한거야. 우리의 특별임무가 있거던.》

《예?!...》

림세혁이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그러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난 서강민이 화제를 돌렸다.

《세혁인 함흥태생이라니 혹시 이 은행나무에 대해 일전에 들어본 일이 있나?》

서강민은 얼결에 질문을 해놓고도 어쩐지 처녀 선생님과 소대장이 자기에게 하던 질문을 답습하는 것만 같아 얼굴이 지지벌개졌다.

그래도 세혁은 개의치 않는다는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은행나무잎과 열매로 많은 약들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도 몇천년을 살고있는 은행나무가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나무일겁니다.》

《그래두 다 나보다는 낫구만.》

서강민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입을 다셨다.

4

서강민은 꽃다발 두개를 받쳐들고 은행나무뒤등성으로 올랐다. 키높이 자란 나무들이며 떨기나무들이 짝 들어찬 숲사이길로 서강민은 옛 추억을 하나하나 밟으며 걸었다.

고사포진지며 병실자리들은 이젠 세월이 흐르고 흘러 흔적도 찾을길 없었다.

허나 서강민은 그 자리들을 잊을수가 없었고 눈앞에 확연히 보고있었다.

《여긴 병실자리였지. 그래그래, 틀림없어.》

추억의 한페지가 또다시 번져졌다.

...그날 밤이었다.

새로 지은 병실안의 탄피등주위에 모여앉아 저녁식사가 끝난 후 서강민은 소대장을 따라 고사포좌지로 나갔다.

별많은 밤이었다. 무수한 별들이 진주보석처럼 넓은 하늘에 휘뿌려졌다.

《별이 참 많지요?》

서강민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그래 저 별들을 볼 때마다 강민동문 무슨 생각을 하곤 했소?》

《지리지 못살던 내가 해방덕에 제땅을 가져보구 글공부하구 사람대접 받으며 살게 된게 바로 다행이나 하구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구 그러느라니 긴긴밤이면 토방에 앉아, 발머리에 앉아 저 별들을 바라보며 저의 소원을 엿어보곤 했습니다.》

《어떤 소원 말이요?》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말기를 바랬구 제땅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되기를...》

저 멀리서 기적소리가 밤의 고요를 뒤흔들며 산골짜기로 메아리쳐왔다. 이밤도 렬차는 쉬임없이 싸우는 전선으로 달리고있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거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

는것도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고 우리의 땅, 우리의 푸른 하늘을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서요. 소원이라는건 바란다고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하고 지켜가야 하는거요.》

서강민은 소대장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향마을의 처녀선생님 생각을 떠올렸다.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나는 우리들에게 선생님도 바로 저 당부를 심어주었구 잊지 말기를 바랬었지. 그 당부가 포탄으로 포신에 장탄되어 적비행기를 향해 멸적의 불길로 타오르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부소대장.》

여름밤의 풀벌레울음소리들을 짓누르며 공명되어 울리는 소대장의 목소리에 서강민은 흠칫 놀라기까지 하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내 한가지 생각을 말할까? 부탁이랄가.》

《뭘니까? 어서 말하십시오. 소대장동지의 부탁이라면야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지요.》

서강민은 사업상관계에서는 소대장을 받들줄 알고 엄격한 군사규률을 지킬줄 알았지만 단둘이 생활상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서로 자치동갑인지라 허물이 없었고 노죽을 부리기도 했다.

《금속동무에게 왜 회답편지를 하지 않소?》

《예?!...》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었다. 마음속 한쪽귀통이에 틀고앉아 이따금 가슴벽을 후벼대는것만 같던 그 알찌근한 감정이 조용히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전선아닌 후방으로 들어왔다고 그러겠지. 한그루 나무나 지키는 일이 금속동무앞에 별루 떴뻔치 못한것 같아서 말이요.》

《...》

《강민동무, 나도 처음에 이곳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땐 정말 뜻밖이었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백문철소대장은 그때의 일을 조용히 더놓았다.

...또 한차례 적기들의 공습을 물리친 소대장 백문철은 고사포진지들을 돌아보고있었다.

이때 대대장련락병이 달려왔다.

《소대장동지, 지휘부에서 급히 찾습니다.》

《나를?》

《옛. 돌아가겠습니다.》

백문철은 옷의 먼지를 툭툭 털며 습관적으로 먼 하늘을 찬찬히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다.

지휘소에 도착하니 언젠가 본적이 있는 군단에서 내려온 낮익은 장령이 백문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 우리 고사포소대장이 왔구만. 잘 싸워, 잘 싸운단 말이야. 허허.》

장령은 들었던 쌍안경을 지휘탁우에 내려놓으며

만면에 희색을 담았다.

《그래 다친 병사들은 없소?》

《없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가까이 오오. 동무에게 특별임무를 주려고 불렀소.》

백문철은 차렷자세를 취했다.

《지금 적들은 마지막발악을 다하고있소. 저들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것을 알고있단 말이에요.》

장령의 말의 서두가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되어서 문철의 가슴이 은근히 죄어들었다.

《미제놈들은 지금 마지막발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여지없이 파괴하고있소.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 그 어디라없이 줄푼탄을 퍼붓고 심지어 우리의 오랜 문화유적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려 하고있소. 이와 관련하여 차후 동무의 특별임무는 고사포 한개 소대의 무력을 매일 아침 날뛴기 전까지 신속 정확히 이동시켜 동해안의 천연기념물인 금야은행나무를 무조건 지켜내는것이에요.》

《예?!… 은행나무를 말입니까?》

백문철은 어안이 병병해져 기계적으로 되물었다.

결국 새로운 전투임무란… 특별임무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준엄한 싸움마당에서 중요한 군사대상물도 아니고 군수공장도 아닌 한그루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한개 고사포소대무력을 이동시킨단 말인가. 그러지 않아도 전선형편이 어려운 때에…

백문철소대장의 이런 속생각을 환히 꿰뚫어보기도 한듯 장령은 력점을 두었다.

《소대장동무, 동무의 생각은 충분히 짐작이 가오. 하지만 이걸 단순히 한그루 나무만을 지켜내는 일이 아니라는걸 명심해야겠소.

바로 내 조국의 유구한 력사를 지켜내는 책임적인 전투임무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오.》

백문철은 바짝 마른 가랑잎마냥 마음이 쪼그라드는것을 느꼈다. 이렇듯저렇듯 특별임무의 내용이 전선에서 후방으로가 아닌가.

마음 한쪽구석이 허전해졌다.

백문철은 용기를 내어 한발자국 나서서 물었다.

《장령동지, 언제쯤 전선으로 다시 나올수 있습니까?》

《허허, 전선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거지. 지금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싸움을 하고있소.》

《그렇지만…》

백문철은 아쉬움이 돌덩이로 변하여 명치끝에 들어앉은것 같은 마음을 안고 혹여나 거의 애원에 가까운 눈길로 장령을 바라보았다.

《내 다시 말해주지. 동무의 전투임무는 고사포 한개 소대의 무력을 가지고 무조건 은행나무

를 지켜내는것이에요. 껌질 한조각이라도 상하게 해선 안되오, 전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알았는가, 소대장!》

장령의 노한듯 한 얼굴표정에 그만 백문철은 《알았습니다.》하는 대답과 함께 오른손을 군모에 가져다붙일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승리하는 날까지…》라는 마지막말이 종소리마냥 귀가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그를 더욱히 바라보던 장령은 백문철의 어깨를 가볍게 그러쥐었다. 그리고는 정색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소대장, 이것은 내가 주는 명령이 아니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이에요.》

《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전쟁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며칠전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금야은행나무를 잘 보호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나라의 국보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금야은행나무가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복구정리사업을 본때있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소.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뜻을 바로 동무들이 무조건 잘 받들어야 하는거요.》

《!…》

백문철은 그만 가슴이 찡—하니 굳어버리는것 같았다. 눈시울이 다가와지고 가슴속에선 세찬 격랑이 서서히 일어번지기 시작했다.…”

소대장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서강민은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심정으로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였다. 다음순간에야 그저 방망이질하듯 들뛰는 가슴의 박동을 인식하였으며 거친 황소숨을 더욱게 몰아쉬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에 민족의 자랑이며 국보인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전투를 직접 조직해주신 이야기며 몸소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선의 학생, 과학자들을 대학으로, 연구기관으로 불러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었었다. 그리고 복구건설의 설계도가 그려지고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신심과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었다.

《그러니 우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특별임무를 받아 수행하는 은행나무수호자들이요, 력사의 수호자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영예로운 전사들이요. 이보다 더 큰 믿음, 이보다 더 큰 자랑이 또 어데 있겠소.

그러니 몸이 백조각, 천조각이 난다 해도 우린 기여이 장군님의 특별임무를 꼭 집행해야 하는거요.》

《소대장동지…》

서강민은 이 말 한마디밖에 할수 없었다.
병실쪽에서 소대원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백문철소대장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니 금숙동무에게 꼭 회답편지를 쓰오. 몇몇하게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동지, 제 생각을 한가지 말할게 있습니다.》

《말하오.》

《고사포가 세문밖에 없는 조건에서 산등성이 여기저기에 가포들을 여러개 만들어 설치하자는 겁니다.》

《가포를 설치한다?... 그거 정말, 강민동무가 좋은 생각을 했구만. 자, 들어가서 토론해보지요.》

병실안에서는 이야기판이 한창이었다.

소대장과 서강민이 병실안에 들어섰으나 림세혁의 엉뚱한 이야기에 모두들 정신이 팔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둘은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차, 이거 답답들하구나야. 얘기할 땐 그래두 아— 하면 오— 하고 제껴덕 따라서야 이야기하는 멋두 있지. 아, 일생을 고려의학연구에 바친 재능 있는 의학자 리제마선생말이에요.》

림세혁은 마치 자기만의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두눈을 부릅뜨고 제법 사위를 두릿두릿 둘러보았다.

《리제마?》

탄피등주위에 모여든 얼굴들이 금시초문인듯 합창했다.

《그럼요. 사람의 체질과 용모, 5장6부의 크고 작은 상대적관계, 성격, 취미, 재능, 식성, 약물에 대한 반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4가지 상으로 갈라놓고 거기에 맞게 치료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4상의학자 리제마... 바로 우리 집이 리제마선생이 살던 집자리란 말이에요.》

림세혁이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하며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바람에 바싹 흥미가 당긴 눈길들이 세혁의 얼굴에 구멍을 내려 하고있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끝에나 항상 싱거운 소리를 찰떡의 불개처럼 붙여놓기 좋아하는 장탄수 김덕수가 또 한발 재우고있는 모양이었다.

《그 선생이 말하기를 머리에는 지혜가 있고 어깨엔 위용이 있으며...》

성수가 나서 말하는 림세혁의 말꼬리를 김덕수가 끝내는 잡아당기고말았다.

《어랍쇼. 대단한 리제마선생의 후손이 생겨났구만. 대궐에서 대가 나고 찌리꼴에서 찌리가 난 다더니 그 집터자리에서 의학의 피줄이 이어진가

보지. 〈동의보감〉을 쓴 허준선생은 또 옆집에서 살지 않았나?》

《절 놀립니까? 진짜라는데. 갑자기 허준선생은 왜 꺼들이면서 그러니까. 리제마선생 이야기를 하는데.》

림세혁이 얼굴이 상기되어 씩씩거리자 그 모양에 모두들 악의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세혁인 의학계통으로 나가야겠는걸. 암만 봐야 밤마다 선배의학자들의 계시를 받고있는게 틀림없어. 요전번날 소대장동지의 편두통두 뜸 몇장으로 고쳐준걸 봐선 말이야. 팬찮아. 우리 소대에 미래의 의학자가 있다는것도 참 좋은 일이지 뭐.》

김덕수가 소대원들을 보며 한쪽눈을 깜빡했다.

그러나 림세혁은 그의 말에 되알지게 반박했다.

《아닙니다. 난 그보다도 전쟁이 끝나면 건축가가 되렵니다.》

《건축가?!...》

모두가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모든것이 파괴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지어야겠나요. 저의 집도 미제놈폭격에 재더미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침울해지는 림세혁의 말에 병실안에 정숙이 흘렀다.

《세혁동무의 말이 옳소.》

소대장이 큰소리로 세혁의 말을 긍정해주는 바람에 모두의 얼굴들이 편득 들리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땅엔 복구건설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질지요. 복구와 창조의 새 력사가 펼쳐질거란 말이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모두들 앞날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희망과 포부를 가득 키우는게 아주 중요하오. 정말 기쁘구만. 이 전쟁판에서 우리 세혁동무랑 다들 얼마나 어엿하게 자라는지 말이요.》

소대장의 지원포가 과남한듯 림세혁은 뒤더수기를 굵적거렸고 그러는 그를 소대원들이 선망의 눈길로 쓰다듬었다.

5

백문철소대장의 얼굴이 그날은 별로 더 긴장되어있었다. 아니 깊은 수심에 잠겨있는것 같아보이기도 하였다.

마음속깊이 아픈 상처를 입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

...포탄운반, 마을녀인들 그리고 절간관리원...

...《포탄이 온다!》...

문득 누군가의 웨침소리가 들려오는듯 한 환각에서 강민은 흠칫 놀라며 아래쪽으로 뻗은 길에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숲속길은 고요하였다.

서강민은 다시 천천히 은행나무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한발자국, 두발자국 추억의 골짜기로 들어가듯 은행나무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날은 류다른 기쁨이 찾아든 날이기도 했다. 마을의 녀인들이 포탄상자를 이고지고 소대를 찾아왔던것이다.

소대원들은 너무 기뻐 쾅쾅쾅쾅 뛰며 그들을 맞이했다. 산중에 난데없는 경사라며...

포탄상자 인수차로 철도역에 내려갔던 림세혁이 아주머니들의 머리우에서 포탄상자를 내리우며 말하였다.

《어제 밤 철길복구장에 나갔던 동흥마을 아주머니들입니다. 밤새 일하고도 열차에서 이 포탄상자들을 부리워 또 이렇게...》

림세혁은 숨이 턱에 닿았으나 그의 얼굴엔 포탄운반을 성과적으로 맡아수행했다는 자랑과 긍지가 짙게 배어있었다.

임무가 제기되자 림세혁은 《옛, 제가 맡아수행하겠습니다.》 하고 날파람있게 돌아서더니 뒤미처 철학자연한 말을 주어섬기는것을 잊지 않고 한마디 하고는 뛰어내려갔었다.

《어른들의 힘은 팔쪽에 있고 늙은이들의 힘은 입에 있다지만 아이들의 힘은 다리에 있대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백문철소대장은 몇번이고 인사를 했다.

《원 무슨 말씀을... 고맙다는 인사야 우리가 해야지요.》

《인민군대 고사포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포탄운반은 걱정말아요. 우리가 다 맡을테니.》

이구동성으로 울려나오는 녀인들의 말이였다.

《리농맹위원장네 아주머님니다.》

림세혁이 키가 크고 두눈이 억실억실한 위장망에 나무잎들을 꽃고 치마허리에 노끈을 질끈 동인 아주머니를 가리켰다. 그중 나이가 들어보이고 현숙미가 엿보이는 녀인이였다.

그가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백문철소대장에게로 다가섰다.

《차순금이라고 합니다. 소대장동지,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이 안불사의 은행나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백문철소대장의 낯빛이 점차 상기되는것이 알렸다. 그가 다급스레 말을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 오래 살았습니까?... 이 안불사에 관리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난데없이 관리원에 대해 묻는 백문철소대장의 별스레 검붉어보이는 얼굴에서 서강민은 이상야릇한 느낌을 받았으나 더욱더 놀라는것은 순금이라

는 녀인이였다.

《관리원말입니까?... 있었습니다. 백명훈이라구 여기 절간을 관리하던 아바이가...》

흥분으로 관자노리의 피줄이 펄떡거리는것이 보였다. 백문철은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물었다.

《그의 행처를 모릅니까?》

《...》

녀인은 저고리고름을 매만질뿐 대답이 없었다.

《저... 혹시...》

백문철소대장의 얼굴에 긴장이 한껏 실렸다.

녀인은 가까스로 입을 떼었다.

《그 아바이는 그만 달포전에 잘못되었습니다.》

《예?!...》

순간 백문철소대장의 이그러진 불편이 푸들쩍 거렸다.

잠시 일손들을 멈춘 소대원들의 눈길이 소대장과 순금의 얼굴에 쏠리였다.

《그는 정말 훌륭한분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미제놈들의 비행기가 무시로 달려들어 우린 만날적마다 위험하니 마을에 내려와있으라고 그러럼 당부했는데 그 아바인 은행나무를 지켜야 한다며 여기 절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미제놈들의 비행기가 달려들어 소이탄을 마구 떨어구었습니다.》

순금은 그때의 광경이 생생히 떠오르는듯 눈가에 저고리고름을 가져다댄채 한참을 말 못하고 서있다가 폭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불길을 보고 달려왔을 때는 그가 혼자서 불을 끄다가 온통 그슬린채 나무밑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그 아바인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부탁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나라의 역사를 새겨온 자랑스러운 국보이다. 그러니 절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전쟁이 승리하고 아들이 돌아오거들랑 꼭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은행나무를 잘 관리하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금은 흐느낌으로 숨을 꺾꺾 몰아쉬면서 말했다.

《시신은 우리가 저기 등성이에 잘 안치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분합니다. 그리고 다는 몰랐습니다.》

전쟁통에 이 은행나무가 그저 한그루 나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때문에 싸워야 하는가를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백문철소대장의 눈언저리에서 물기 같은것이 언뜻했다. 피가 나도록 깨무는 그의 입술이 경련을 만났듯 바르르 떨고있었다.

서강민의 충격도 대단히 컸다.

은행나무... 그것은 단순한 한그루 나무가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를 새기고있는 재부였으며 이 땅에 억만년 뿌리내리고 푸르려 설렐어

야 할 내 나라의 자랑이었다. 그 력사를 말살하려 미제놈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서강민의 머리속에 갑자기 금속의 편지구절이 심장을 팡팡 두드리는 복수의 메아리로 울려왔다.

《강민동지, 전선원호미를 쥘는데 방아간집 발방아가 정말 큰일을 했어요. 밤마다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수수쌀이랑 기장쌀이랑 쥘어서 전선에 보내주었습니다. 방아간집아바이는 크고 잘 익은 살구들을 팡주리에 담아 내놓곤 하였는데 강민동지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글썽 그 아바이가 잘못될줄이야...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보잡이를 하던 아바이가 적비행기의 기총탄에 맞고 밭에서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쑤를 잡아달라고 그리고 올해농사를 더 잘 지어달라고 마지막당부를 남겼습니다...

강민동지, 저도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납니다. 피흘리며 쓰러진 고향사람들의 천백배 복수를 위하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오곡백과 무르익을 이 땅의 무궁번영할 행복을 위해 이 손에 총을 잡았습니다. 강민동지, 우리 서로 몇몇한 모습으로 전선에서 만납시다.》

서강민은 피가 거꾸로 치솟는것만 같았다. 이 땅의 산천초목도 원쑤격멸을 부르짖는것만 같았다.

철화속에서, 포연속에서도 은행나무는 더욱 푸르러만 가고있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국보적 옛건물들과 문화재를 무참히 파괴했다.

평양의 부벽루, 성천의 강선루터,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안주의 백상루, 강계의 인풍루가 모두 타버렸고 묘향산의 보현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무수한 절간들과 돌탑들이 무너져내렸다.

하지만... 조선은 싸우고있었다...

있이 푸른것은 뿌리가 튼튼해서이구 그리구 이 은행나무가 거목으로서의 년륜을 더욱더 아로새길수 있는것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해발이 있기때문이라고 백문철소대장이 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곤 했었지...

강민은 격정에 뿌듯해지는 가슴으로 보병삼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다음날이었다.

당장 비라도 올 모양인지 하늘은 낮추 흐려져있었다. 이런 날에는 적아간의 하늘싸움도 거의 나 없다.

이날 소대는 안불사주변과 은행나무주위에 물도랑을 쳐주고 비물에 나무뿌리가 드러나지 않게 흩다짐작업들을 진행하고있었다.

장탄수 김덕수가 또 우스개소리를 퍼놓는 바람에 소대원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이 골짜기에 웃음소리가 높은걸 보니 사기들이 부쩍 올랐구만.》

난데없이 울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에 모두가 굳어졌다. 절간마당 돌층계를 올라서는 사람...

《아니 장령동지?!... 소대차렷!... 장령동지, 소대는 지금...》

백문철소대장이 그를 인츰 알아보고 보고를 올리였다.

《됐소, 됐소. 쉬엣하라우.》

《알았습니다. 쉬엣!》

《다들 건강은 어땡소?》

《올. 모두 건강합니다.》

장령은 소대원들과 각별히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은행나무의 웅장한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팽창하구만. 멋있어. 아주 걸작이야. 하하.》

장령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골안을 울렸다.

《미국놈들이 기승을 부리며 달려들만도 해. 세상에 보기 드문 나무이고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니 까. 허나 어렵도 없지. 누구들이 지키고있다고 감히 덤벼들어.》

장령은 대단히 만족한듯 혼자말처럼 외었다. 그런 다음 포좌지며 병실과 참화를 입은 건너편산릉선과 뒤산의 폭탄구멍이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정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제 또다시 여기 은행나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소.》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놀라운 눈길들이 장령에게로 쏠렸다.

《적비행기들의 공습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고사포소대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을거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한번 가보고싶지만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었소.》

《장군님!》

소대원들이 뜨거운 감격에 눈시울들을 적시었다.

《그러시면서 전승의 날도 이젠 멀지 않았으니 신심을 가지고 더 잘 싸워주길 바란다는 뜨거운 당부의 말씀도 주시었소. 은행나무를 이렇게 지켜가고있는 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

장령은 포연에 그슬린, 그속에서 성장해가고있는 은행나무수호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손잡아주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절대로 피동에 빠지지 말고 철저히 주동에 서면 자신심이 생기는거요. 가포를 많이 만들어 적비행기들을 혼란케 한건 아주 잘한 일이요. 바로 그래야 하오.》

장령은 큰일을 한 자식들을 품안아주듯 소대원들을 다시한번 둘러보다가 백문철소대장에게서 눈길을 멈추었다.

《소대장, 이젠 전선에 보내달라고 폐질을 안할

텐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던데. 하하.》

장령의 말에 서강민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백문철소대장은 어쭙은 기색을 짓더니 인춤 자기를 다잡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장령동지, 그대신 포탄만 많이 보내 주십시오.》

《포탄 말이지. 암, 보내주어야지.》

얼마후 장령은 조용히 떠나갔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간 이야기는 서강민의 가슴을 아니, 모든 소대원들의 심금을 계속 울려주고있었다.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력사적 사실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력사적 사실자료들을 잃어버리면 력사와 전통을 잃어버린다. 력사가 없는 민족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철저히 력사적 사실자료들을 더 잘 지키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서강민은 주머니에 버릇처럼 손을 찼었다. 그러느라니 문득 금숙이 생각이 떠올랐다. 의례히 금숙이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면 고향생각이 낫고 향수에 젖어드느라면 정든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안겨오곤 했다.

금숙이도 지금쯤 총천 병사로 싸우고있을것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적엔 그에게 소식을 전할 엄두조차 못 내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지 않았다. 긍지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자 보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있는가. 미국놈들이 무엇을 없애버리려 미친듯이 덤벼드는가를 보라. 제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 나라 강토우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이 은행나무는 더욱더우뚱 솟아있을것이다. 그것은 내 나라의 유구한 반만년 력사를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때문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나라를 알아야 한다면 선생님이 가르치던 은행나무, 한목숨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고 소대장이 강조하던 은행나무, 서강민은 그 모든것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허나 그것은 우연으로 될수 없는 필연이었던.

서강민은 지금 전우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력사를 지키며 조국을 수호해가는 고사포의 역센포신을 자랑스럽게 닮고있었다.

6

《아니?!...》

서강민은 가느스름한 두눈을 크게 떴다.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무성해진 숲속길을 갈래 많은 추억으로 누비며 다달은 산중턱 두개의 묘앞에 흰저고리를 입은 한 녀인이 앉아 눈아래 굽어

보이는 푸른 은행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던 것이다.

서강민은 그가 누구인가를 먼발치에서도 대뜸 알아보았다. 잊을래야 잊을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강민학생,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그것이 어데서 자라고있는지 알고있습니까?》

전쟁전의 처녀선생님, 바로 백문철소대장의 누이동생이었다.

서강민은 엎어질듯이 덤벼치며 다가갔다.

《선생님!》

《부소대장!》

목소리들이 반가움에 젖어 떨고있었다.

서로 몇년째 만나보지 못했던 두 늙은이의 주름진 볼로 눈물이 흘러내려 치마자락우에 그리고 꼭 그러잡은 다발의 꽃송이우에 점점이 떨어져내렸다.

서강민은 두 묘앞에 꽃다발 한개씩 정히 놓고 그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대장동지, 부소대장 서강민이 여러해를 오지 못하다 오늘에야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호욱...》

둘은 다같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백문철소대장의 마지막모습을 생생한 추억속에 떠올렸다.

...전쟁이 끝날무렵의 어느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적기와와의 대결전...

《항공! 항공!...》

처음 울리는 공습경보신호가 아니었으나 습관될수도, 탕개를 늦출수도 없는 바야흐로 더욱더 긴장해만지는 적아간의 싸움이였다.

적기의 아츠러운 동음, 기총사격소리가 머리우에서 귀따갑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광! 쿵!》하는 폭탄터지는 소리와 함께 땅이 움썽움썽 뒤흔들렸다. 흩기둥과 연기가 솟구쳤다. 파편이 공중에서 뿔뿔이 퍼지고 돌부스레기들이 쏟아져내리며 땅을 두드리었다. 그럴수록 고사포불길이 《투통! 투통!》

하는 둔중한 소리를 내며 적기를 향해 대공으로 줄기차게 쏘았다. 이때였다.

《불이다!》

누군가의 고향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서강민은 편득 머리를 돌려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흙먼지가 자욱하여 도무지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이때 2포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백문철소대장이 《전체 포들은 사격을 계속할것!》 하고 소리치며 좌지를 차고 뛰어나가는 바람에 서강민은 걸따라 일떠서려다가 웅켰다.

《덕수! 은행나무... 불!》

소이탄의 불씨들이 덮쳐져 타오른 불길이 포악한 맹수의 널름거리는 혀바닥마냥 은행나무주위

로 다가오고있었다. 그런데 폭풍에 날려온 나무가지들을 휘어잡고 필사적으로 불을 끄던 백문철소대장이 그만 견잡을수 없는 타격을 받은듯 비칠거리다가 뒤로 넘어지는것이 바라보였다.

서강민은 《소대장동지!》하고 애타게 부르며 그리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어느새 적기들이 물러가고 주위에는 숨막힐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백문철소대장은 치명상이었다. 림세혁이 급히 봉대를 싸매 응급대책을 취했다. 소대원들의 부름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가다듬으며 백문철이 말했다.

《은행나무의 잎 하나... 껍질 한점... 상하게 해선 절대루...》

그의 숨결소리가 거칠어졌으나 인츰 아픔을 의식하지 못하는듯 얼굴에 느슨한 웃음을 실었다.

그것은 소대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실린 웃음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지휘관의 진정한 웃음이었다.

《부소대장...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의 강민동무를 보았더라면... 우리 문영이도...》

《예?!... 문영이라니요?》

서강민은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 처녀선생님... 그가 바로 내 동생 문영이였소. 전승광장에서 우리 다같이... 뜻깊은 상봉들을 하자고 했는데 그만...》

《소대장동지, 왜 이제야 그걸...》

백문철소대장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한통의 편지와 담배쌈지를 꺼내게 했다.

《아무래두 이 편진 부소대장이...》

그리고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백문철소대장의 시신을 안불사관리원이었던 백명훈의 묘옆에 나란히 묻을 때 이 편지로 하여 소대원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울고 또 울었던가.

《동생 문영아,

운명이 나를 여기 안불사의 은행나무옆에 데려

다놓을줄이야...》

...뜻밖에도 아버지가 미체념들의 폭격에서 은행나무를 구원하고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아니, 문영아. 울지 말아...

난 여기 은행나무를 지킬테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특별임무를 받고 이 나무를 지키는 나날에 큰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력사를 지키고 나라를 빛내이시려는 **김일성**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남먼저 마음속에 안고산 훌륭한분이었지.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함께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의 유언을 아니,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을 지킵시다 하고 뗏뗏이 말씀드리자...》

...

동쪽하늘가에 둥그런 해가 머리를 내밀었다.

몽그러진 톱날처럼 웅기중기 둘러앉은 나지막한 산봉우리들이 해빛을 받아 제나름대로의 멋을 드러내고있었다.

산아래컨 주차장쪽에서는 벌써 웃음소리, 말소리들이 자동차, 버스들의 발동소리와 함께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은행나무 있는 곳으로 내려서는 서강민은 이제 피할수 없는 로화로 가끔 휘청거리는 전쟁전의 처녀선생님을 가볍게 부축하고 걸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관리사업을 우리 딸이 내 대신 맡아한다우. 저렇게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로 조용한 날이 없으니 우리 민족의 력사를 어제에서 오늘로 만대에 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을 잊을수가 없군요.》

따스한 해빛이 안겨드는 거목의 은행나무를 감회깊이 바라보는 서강민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뿌리가 있어 나무는 자란다. 보다 무성하게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를 살찌우고 풍만한 열매를 가꾸어주는 뿌리, 하면서도 뿌리는 절대로 땅위에 자기를 드러낼줄 모른다.

뿌리위에 거목이 있다.

상 식

포탄의 피해를 막는 전자《우산》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는 포탄의 피해를 미리 막을수 있는 전자《우산》을 연구제작하였다. 이 전자《우산》은 최첨단 전자기술을 도입하여 포탄의 근거리폭파신판이 내보내는 무선신호를 재빨리 포착한 다음 신판에 허위정보를 보내어 미리 폭파시키거나 목표로부터 몇백m밖에서 폭파해

버리기때문에 지상부대의 시설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전자《우산》의 종류는 3가지인데 하나는 배낭식으로서 질량이 11~13kg, 다른 하나는 자동차적재기, 또 하나는 삼각지레대식이다.

나의 동심을 두고

전 이 련

따뜻한 4월의 봄하늘가에, 푸른 물 출렁이는 대동강기슭에 하얀 연이 폈다.

《엄마, 아까보다 더 높이 날게 하세요.》

가는 연줄이 쥐여진 어린 총각애의 손을 덧감싸쥐고 녀인이 입가에 웃음을 담고 연 띄우기를 하고있다.

연줄을 길게 풀고 높이 나는 연을 보며 좋아라 뛰어가는 총각애를 따라 녀인도 함께 달린다.

아들애와 함께 웃고 소리치며 달리는 녀인의 모습은 꼭 동심세계에 심취되어있는듯싶었다.

한참이나 행복에 넘친 모자간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나의 마음은 자못 즐거워짐을 금할수 없었고 금시라도 유년시절에로 되돌아가고싶은 심정이다.

그래! 우리 녀성들은 누구나 동심세계에 잠겨있을 때가 많다.

평시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의 녀성들도 어머니가 돼서는 아기를 달래며 잠재우고 어린 자식들의 재롱을 받으며 늘 동심의 세계에서 산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애를 키우는 나도 그런 동심의 세계에 잠길 때가 많다.

천진란만한 아이들의 눈동자, 그들의 흰눈처럼 깨끗한 티없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득 나의 머리에는 동시 《없어진 동그라미》를 쓰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전문작가는 아니지만 동시를 창작한 나로서는 그때 일을 잊을수 없다.

...지난해 나는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옆을 지나다가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노는 유치원꼬마들을 보게 되었다.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발걸음은 좀처럼 옮겨지질 않았다.

누군들 저 귀여운 모습을 보고 그저 스쳐지나랴.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아안은 경상유치원!

불러만 봐도 기쁨과 행복이 한껏 넘치는 사랑의 유치원이다.

경상유치원, 경상유치원... 이렇게 입속말로 몇 번이나 불러보던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며 이 세상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 모습 그대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서는 한해에도 두번씩이나 새로 훌륭하게 일떠선 이 경상유치원에 사랑의 자옥을 남기시었다.

나는 이 유치원이야말로 경사에 경사가 넘친 행복의 유치원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형상적인 시적소

재를 서정화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한없는 행복속에 긍지높이 노래하는 경상유치원꼬마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동시를 썼다.

없어진 동그라미에 비껴진 나의 동심.

그것은 결코 나의 고심어린 사색의 결과로 얻어진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령도의 길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복된 현실이 안겨준 노래였고 랑만이었고 기쁨이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녀성들이 잠기곤 하는 그 동심은 그대로 자식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분출이고 그를 비쳐주는 티없이 맑은 거울이다.

어린 아들과 연을 띄우던 녀인의 모습, 없어진 동그라미에 비껴진 나의 동심을 두고 나는 생각해본다.

우리 녀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간직되는 그 동심은 곧 모성의 감정이고 행복한 오늘의 우리 생활속에서 더욱 짙어지고 무르익혀진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언젠가 나는 신문에서 자본주의 어느 한 나라의 녀성이 제 손으로 세명의 아이들을 목을 눌러 죽였다는 경악할 내용의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모성을 천성으로 간직한 녀성이라지만 오직 돈밖에 모르고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녀성들에게는 행복한 삶의 현실이 없기에 그 동심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깃들수 없는것이다.

나는 우리 조국의 복받은 녀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들은 진정 행복한 동심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그 동심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베푸신 후대사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활짝 꽃피우시는 미래사랑의 현실이 안겨준것이라고 소리높이 말하고싶다.

그렇다. 그 동심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속에 이 나라 모든 녀성들의 마음속에 노을처럼 아름답게 더욱 붉게 물들여졌으리라.

지금도 눈앞에 안겨온다.

붉은넥타이를 매시고 너무도 허물없이 매여달리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6월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

인민야외빙상장의 은반우에서 귀여운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위대한 태양의 그 미소가 뜨겁게 어리여온다.

모교는 보증한다

리 진 협

얼마나 성스러운 일을
조국은 지금 너희들에게 맡기려 하는것이냐
교문을 나서게 되는 제자들아
이제는 떠날 때가 왔구나
조국이 너희들을 부르고있지 않느냐

그 부름앞에 하나같이
의젓하고 릉름한 너희들
그 부름앞에 모교가 키워온
마음의 키도 의젓하고 릉름해야 하려니

그때문에 때로는 아픈 때도 들었던 모교
하건만 함부로 대답할수가 없구나
너희들의 성장을 품는 조국앞에
모교는 땀땀이 대답해야 하거니

조국이 세워주는 곳이 진펄가운데라도
웃으며 뛰어들어다오 제자들아
모교를 믿고 조국이 세워주는 곳
누구든 청춘과 한생을 바쳐야 할 곳들에서
말해다오 어떤 량심과 신념들을
모교는 조국앞에 보증했는가를

헐치 않으리
승리만을 땀쳐야 하는 전호가
누구도 걸어 못 본 탐구의 길
초소와 공장 개간지 포전과 막장들에서
너희들의 성장을 보증한 모교도
조국앞에 땀땀이 얼굴들게 한다는것은

그 길에서 결코
모교의 수치가 되지 않을 너희들
만일 그 길에 적의 화점이 앞에 있다면
그런 곳에 남먼저 설것이라고
하늘의 별을 따오고 돌우에 꽃을 피워야 한대도

그 녀과 그 열정을 믿으라고
그렇게 모교가 조국앞에 보증한 너희들이거니

만일 모교를 떠난 너희들의 심장이
발명의 기쁨과 준공을 앞둔 그 시각
위훈의 심장 고동을 멈출수도 있으리
피에 젖은 군복과 위훈의 증서가
모교로 돌아올수도 있으려니

그런 삶으로 조국에는 영광을
원썬들에게는 멸망의 철추를
그것으로 온 나라가 그네들의 모교를
기억속에 새기도록 하여다오
조국과 모교가 잊지 않게 해다오

너희들을 가리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사상과 뜻을 함께 하는 혁명전우라고
팔을 끼고 어깨를 걸어주실 때
이런 제자들을 기다려온 모교는
아아 그날의 모교는 정녕 얼마나 기쁘랴

그것이 너희들의 희망
너희들의 행복으로 되는 그런 곳이다
우리 원수님의 사상과 뜻이 꽃피나는 곳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보람찬 전투장으로
조국은 지금 너희들을 부르거니

그 길로 어서 떠나거라 제자들아
그 길에 순결하게 대바르게
너희들은 조국을 받들어가리라
모교는 보증한다
너희들의 그 성장
너희들의 그 한생을 결코!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따스론
그 사랑은 오늘 우리 녀성들의 마음속에 더욱 솟구
쳐오르는 동심의 샘줄기가 되었다.

그 샘줄기가 흐르고흘러 이 땅우에는 동심에 넘
친 우리 녀성들의 밝은 모습만이 비쳐지고있다.

그런 동심을 어찌 우리 녀성들만 안고 산다고
만 하랴.

얼마전 신문에도 아이들과 함께 로라스케트를 타
고 달리는 한 로인의 모습이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
습으로 찍힌적이 있었다.

정녕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희망과 신심
에 넘쳐있는 천만군민의 자랑스럽고 땀땀한 모습들
을 조국땅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나의 동심, 우리 녀성들의 동심을 두고 나는 확
신한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최후승리를 향
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기어이 주
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리라고...

류다른 이해의 봄이야기

김 충 기

불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참가한
영웅들중 한사람이 자기 형님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인
우리 농장 프락프르운전수
새벽부터 논갈이 다그치는데
두벌농사포전에 덧거름 퍼느라

겉재배씨불입 마저 하느라
일손바쁜 분조원들 마음에도 불이 붙었소
우주를 정복한 과학자들처럼
알곡고지를 정복한 애국농민 되자고
누구나 심장에 불을 달고 나섰소

위성도 아는 처녀

별이 총총한 새벽
처녀는 찬이슬 내리는 모판에서
애기모들이 추위할세라 나래 덮어주는데
이때라 하늘가엔 《광명성》 우리 위성
밝은 빛 그으며 지나가는데
포전마다 일찌기 없던 풍작을 마련하여
그 모습 위성사진으로 온 나라가 보게 하자고

정초의 그날부터 별에 사는 네 모습
저 하늘의 위성은 다 알고 새겨두었으리
순간도 쉬임없이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순간도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만을 걷는
너는야 농장별의 미더운 처녀
위성도 다 아는 처녀

고 백

이 봄날 온 농장 관심속에 움터난
다수확 새 품종의 벼모야
너는 내 사랑 내 기쁨
하나같이 푸른 잎 뿜는 너희들을 보니
육종연구의 낮과 밤을 새운 피곤도
봄눈 녹듯 가뭇없이 사라지누나

너희들이 더 크고 알찬 열매 맺을수 있다면
내 또다시 몇백밤 지낼수도 있고
내 쏘는 팍방울이 피방울이래도 아낌없는
너희들은 내 살불이 내 사랑
가슴속에 시들지 않는 애국의 푸른 싹
가슴속에 주렁져 무거운 애국의 열매

큰상을 차리자누나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 한해 수고 많던 평양의 연구사들
이 봄에도 우리 농장 과학농사를 위해
밤잠도 잊고 때식도 건느며 애쓰더니
이제는 포전별 곡식들의 생육상태를

컴퓨터로 손금보듯 환히 알수 있게 되었다고
관리위원장은 한상 차리겠다는데
연구사들은 마주보며 싱글벙글
가을에 땅이 꺼지게 열린 오품백파로
흐뭇한 큰상을 조국앞에 차리자누나

이 별에서 본다

하늘엔 우주궤도를 따라
우리의 과학기술위성이 날고
땅우엔 주체의 한길을 따라
천만군민이 일심단결의 위성되어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여
곧바로 나가는 류다른 이해의 봄
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포전마다 과학농사 집약농사 꽃피워갈
애국의 그 마음 더욱 불타
뜻깊은 9월의 경축광장에
풍요한 오품백파의 설렘으로
승리의 장쾌한 축포성으로
온 나라에 환희넘칠 그 모습
나는 이 봄 이 별에서 본다

공회당 주인



박 성 진

1

하늬바람이 불며 싸락눈이 팔팔 날리고있었다.
크지 않은 산간읍거리는 초저녁무렵이 가까와오면서 더 많은 행인들로 붐비었다.

학생복을 입은 남학생들과 곤색세루치마를 입은 녀학생들, 발이 굵은 모시적삼을 입은 남정이며 숨두루마기자락을 너풀거리는 늙은이와 삼베천배낭을 멘 로파, 남색치마에 옥양목적삼을 입고 등거리를 걸친 녀인이며 토목잠뱅이를 걸친 사나이 등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길가의 음식점들에선 고소한 기름냄새와 향긋한 탁주냄새가 행인들의 걸음을 멈춰세우고 거리복판으로는 쌀과 부식물마대를 실은 말파리들이 다급히 질주했다.

양력설을 앞에 둔 이해의 마지막날이었다.

그러나 이 거리에 지배적인 약동하는 환희와 숨결의 비상한 의미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이번 양력설은 왜놈들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다.

정녕 수난도 많던 이 나라 력사에 범상히 흘러보낼수 없는 해의 마지막날이다.

그러나 유독 한사람, 이 산간읍의 공회당주인 서봉두만은 사람들의 환희에 찬 감정과는 인연이 없는듯 침울한 표정으로 밤색구두발을 두벅두벅 옮기고있었다.

40대에 들어선 보기 좋은 중키의 그는 중절모를 내려쓰고 나비넥타이를 받친 까만색제끼깃의 모직양복을 입은 우에 진회색두루마기를 걸치었다.

너부죽하게 잘생긴 얼굴의 해방에 타지 않은 허연 살색이 심술궂은 눈바람에 약간 퍼렇게 질려있다. 옷차림과 함께 지성적이고 사색적인 빛을 띤 은근한 눈매는 누가 보아도 먹물깨나 마신 개명한 사람이라는것이 대뜸 알린다.

그는 지금 막역했던 친우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었다.

그 친우란 해방전 군관청에서 나지래기벼슬을 해먹던 오춘서이다. 오춘서는 서봉두보다 세살아래지만 전문학교에서 앞뒤책상에서 공부한 학우이다. 다만 양주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약차한 재산을 모은 소자산계급이라는 처지가 서봉두와 달랐다.

서봉두가 그를 찾아간것은 요즘 세상돌아가는 형편애기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처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조국해방이라는 그 거대한 사변은 서봉두 개인에게도 환희의 물결기를 몰아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봉두는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으며 격정과 환희를 담아 경건한 얼굴로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사람도 거리도 온통 환희와 격정으로 일렁이었다. 그리고 제나름의 앞길을 모색하느라 해매었다.

서봉두도 흥분에 떠서 입에 자갈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해방된 오늘날에 마음껏 웨치도록 공회당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공시를 써서 집회들을 조직해 주기도 하였다.

《해방된 조선은 어드메로 갈것이나?》하며 싹허연 머리의 유지들이 연락을 두드리며 침방울을 튕기었고 왜놈류치장에서 고추가루물깨나 마셔본 《운동자》들이 겨금내기로 자신들의 《웅지》를 장광설로 피력했다.

하지만 서봉두는 점점 의혹의 눈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리념과 정견의 소용돌이속에 끓어번지는 공회당에서 그의 심중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목소리도 울려나왔던것이다.

《친일파 타도!》

《유산자 타도!》

《무산혁명 만세!》

그의 심중이 더욱 착잡해지기 시작한것은 해방후

한달도 못되어 일어난 사건을 겪고나서였다.

그때 주먹 깨나 씹직한 한무리의 남정들이 밀려와 공회당의 유리창을 깨고 문짝들을 짓모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공회당을 당장 허물어엎개치겠다고까지 욱옥거렸다.

리유인즉 이 공회당은 왜놈들의 전용건물로서 왜놈들의 통치에 가장 유용하게 리용됐다는 것이었다.

자위대가 달려와 제지시켰지만 서봉두의 심중에 일으킨 파문은 컸다.

이 공회당은 1930년대 중엽 서봉두의 선친과 군내 유력자들이 약소국의 후진성과 민족의 우매성을 털어버리고 각계층 군중을 애국애족의 정신과 독립사상으로 계몽시킨다는 리념을 담아 건설한 석조건물이었다.

왜놈들도 인민들의 반일투쟁에 질겁하여 무단통치를 표면상 《문화통치》로 바꾸어 눈가림하던 때라 공회당이 건설되는걸 막지 못하였다.

공회당은 문을 열자마자 많은 군중들이 들며나며 활발히 운영되었다.

중학생들이 웅변대회를 열고 팜을 쥔 주먹을 내흔들며 일제의 문화말살책동에 맞서 민족적인 모든것을 고수하자고 부르짖었고 유지들은 또 그들대로 물고뿌가 텅기도록 연락을 내리치며 봉건적 질곡인 낡은 생활인습을 타파하자고 계몽을 부르짖기도 하였다.

또한 류랑극단이 찾아와 극적줄거리를 가진 장절의 민요가락을 코맹맹이소리로 뽑기도 하고 흥행단의 사당패가 울긋불긋한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찾아와선 웅심깊은 징소리, 쟁쟁한 새납소리, 구성진 통소소리를 울리며 왜색왜풍의 탁류속에 사라져가는 민간무용의 춤가락들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 파정에 공회당이 불온적인 마당이라고 왜놈들에게 인식되기도 하면서 서봉두자신이 왜놈구류장에 붙들려들어가 구린내나는 인분냄새를 맡으며 경찰놈들에게 시달림의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그 나날에 공회당을 점차 왜놈들도 리용하기 시작했다.

공회당에서 조선청년들을 태평양의 전쟁터에로 끌여가는 학도병출정식도 몇번 있었고 왜병들이 모인 속에 《천황》의 칙령을 전달하는 모임도 진행되었다.

친일사회단체인 《애국부인회》가 주최하는 황군에게 바치는 《국방헌금》기금식과 현해탄을 넘어온 일본의 오염한 녀가수들이 황군남아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위문공연이 이 공회당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군내의 면장, 구장들이 모여 《치안》유지면담을 하고 공출계획들을 할당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공회당은 왜놈들의 전용건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회당을 매국배족의 음침한 소굴로 보며 경원시하는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 공회당주인 서봉두 나는 대체 누구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언하는것처럼 왜놈들의 통치를 제일 앞장에서 협력하고 협조한 친일파로 되는것이다. 지금도 《친일파 타도!》라는 글발이 퍼런 뺨끼로 공회당 우측벽면에 쓰여져있다.

해방열에 돌아올랐던 서봉두의 심장은 점차 소낙비 맞은 잉겔볼처럼 싸늘하게 식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괴로움의 보파리도 펼쳐보이며 울적한 심기도 달랠겸해서 오춘서를 만나보고 오는 길이다. 하지만 방금전 오춘서의 알팍한 입술에선 더 힘악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여기서는 운명의 칼날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출로는 어드메 있는가.

얼굴이 갱뿔한 오춘서는 노란 비단방석우에 틀고앉아 혼시조로 입을 열었다.

《서형!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은 하나,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으로 나가는겁니다. 나가되 공회당은 흔적도 없이 폭파해야 해요. 그래야 서형이 남으로 나가도 미국량반들앞에서 반공투사로서의 명분을 당당히 세울수 있습니다.》

서봉두는 한순간에 심장이 졸아들었다. 공회당을 폭파하다니?!...

그러기엔 공회당이 자기의 집이고 살붙이와 같은 것이었다. 더우기나 선친들과 우국지사들의 애국의 넋이고 유산이기도 한것이다. 그런 건물을 제손으로 폭파하다니?!... 공원가는 길 물으니 묘지가는 길 가리키는 격이다.

서봉두는 서글프게 입을 열었다.

《난 반일은 못했음장정 반동은 아닐세.》

퍼런 공단조끼를 입고 틀고앉은 오춘서는 일본제 담배를 지독스레 빨며 력설했다.

《그걸 누가 알아준답니까? 서형!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어요. 이제 질서가 잡히면 곧 우리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겁니다.》

읍거리에선 벌써 해방전에 왜놈들을 끼고 풍청대던자들이 적잖게 도주한 상태였다.

송년술이나 나누며 만취되어보자는 오춘서의 호의를 뿌리치고 나와 답답해진 가슴을 불안고 지척지척 걸어온 서봉두는 어느덧 읍거리를 지나 공회당이 자리잡고있는 채등에 올라섰다.

양상한 살매나무들이 눈바람에 떨고있었다.

금시 날아갈듯 새까만 기와로 추녀와 용마루를 우아하게 올린 공회당도 이날엔 꾀꾀 얼어붙은 돌조각마냥 차디찬 랭기를 뿜고있었다.

한동안 긴숨을 내쉬며 새뽀얀 눈발속에 음울하게 서있는 우중충한 공회당을 응시하던 서봉두는 천천히 그옆에 아담하게 서있는 솟을대문앞에 다

가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찰뜨락찰뜨락 신발끄는 소리와 함께 강아지가 왈왈 짖는 소리가 울리더니 대문이 요란스레 열렸다.

올해 정초에 갓 머리를 올린 서봉두의 유일한 누이동생이 아련한 얼굴을 내밀며 《지금 오세요?》 하며 반긴다.

서봉두는 덩덤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와있었니?》

《형님이 오늘부터 모여 함께 명절을 쇠자고 하더군요.》

서봉두의 누이동생은 공회당의 회계원이며 관리원이다. 그러니 이 애의 운명도 자기와 한닝쿨에 얹혀있다.

미닫이문을 드득—열어제끼며 노전칸 방안에 들어서니 대뜸 색동저고리를 입은 일곱살난 딸애가 서봉두에게 감겨든다.

고소한 기름냄새 풍기는 부엌에서 유순하게 생긴 서봉두의 처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문대며 올라온다.

서봉두는 우수가 비낀듯 한 얼굴로 방안 분위기를 일별했다. 산수화 그린 병풍앞에서 열살난 아들과와 함께 사진첩을 보던 때부 진석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는 서봉두의 권고로 영화기술원견습을 받기 위해 평양에 올라가다가 해방이 되자 내려왔다.

고향에 내려와서 그는 밤에는 공회당경비를 서고 낮에는 군공청에 나가 청년들과 함께 분주히 뛰어다니고있다.

서봉두는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진석을 외면하며 처에게 힐책조로 입을 열었다.

《뭐가 흥겹다구 야단스레 명절준비 하오?》

남편의 흐려져있는 얼굴에서 상스럽지 못한 그 무엇을 느꼈는지 처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봉두는 처의 복성스런 얼굴에 금시 수심이 비끼는걸 보며 괜히 명절분위기를 잡치게 했다고 속으로 자신을 질책했다. 그래 애써 혼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잘 쇠야지, 앞으로 인상에 남게.》

서봉두는 딸애를 무릎에 앉히고 《그렇지?》 하며 짐짓 너스레를 떨었다.

진석이 바투 다가앉으며 심중해서 입을 열었다.

《요즘 세월이 소연하다보니 형님이 무슨 말들은 모양이군요.》

《...》

《형님, 나도 공회당을 농구 돌아가는 소릴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왜놈들도 공회당을 리용한건 사실입니다. 우리 선친들의 애국적인 취지를 왜놈들

이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회당이 애국유지들의 뜻을 따라 민족문화전통을 계승하고 계몽에 이바지한 사실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해방된 오늘날에도 역시 웅당 우리 공회당은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하는 자기 몫이 있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진석은 중학시절부터 좌익비밀독서회에 망라되어 운동한 경력도 있어 정치기류에 민감한지라 주견이 확고하게 말을 했지만 서봉두는 씩스름히 도리를 저었다.

《공회당의 흥망성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망이 문제지.》

진석은 서봉두에게 런던의 눈길을 보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신문 한장을 꺼내 펼쳤다.

《형님! 우에서부터 군공산당에 새로 내려왔다는 사람이 오늘 우리 공청에 왔었습니다. 젊은분인데 우리 공청일군들과 담화하고나서 주교간 신문입니다.》

《뭐가 실렸게?》

《여기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 전문이 실려있습니다.》

《뭐?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

서봉두는 급히 딸애를 무릎에서 일으켜세우고 그 신문을 받아들였다.

가슴이 쿵쿵 울린다.

여기에 온 민족이 숭상하는 바로 그분,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지.

자못 경건해진 표정으로 걸탐스레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에 인생을 새롭게 채색할 운명의 빛발인양 점차 불그레한 화색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2

최욱, 서봉두에게 있어서 그의 방문은 정말 뜻밖이었다.

해방전 적색로조의 활동력있는 간부로 활약했으며 몇개월동안 왜놈류치장에서 옥고를 치르었다는 나이 서른여덟에 중량감이 느껴지는 거울진 체구가 상대에게 벌써 위압감을 자아낸다.

길쭉하면서도 검스레한 철색얼굴에 쪼프려진 작은 눈이 서봉두의 내장을 파헤칠듯 들여다보고있다. 갓 면도하여 푸르끼레한 날카로운 턱마저도 계급투쟁에서 타협을 모르는 그의 투철한 신념을 강조하는듯 했다. 해방이 되어 오라를 풀어팽개치고 뛰쳐나온 그는 지금 군공산당간부로 활약하고있다고 했다.

한 젊은 사람과 함께 온 최욱은 문기척도 내는 등마는등하고 제때담 서봉두의 방에 들어와 버티고 서있다.

《서주인, 요새 어떻게 지내오?》

《뭐, 별로… 해방바람에 떠있다고 할지…》

《그 해방바람에 수입원천은 마르지 않았소?》

서봉두는 자신이 수전노로 치부되는듯 하여 그 질문이 불쾌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왜놈꼴 안 보니 좋습니다.》

《그렇다?!… 그럼 우린 어떻게 보시우?》

《예?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최옥이가 마루판자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두버덕두버덕 거닐었다.

《우린 여기서 인차 볼셰비크들의 회의를 열자고 하오. 헌데 우린 말그대로 무산자요. 비용을 부담할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도 당신은 우리가 달갑겠소?》

또다시 중떠보는듯 한 눈길로 서봉두를 바라보았다.

《내 나라 정치를 론하는데 달갑고말고가 있겠나요.》

서봉두의 공손한 대답에 최옥이는 껄껄 웃다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래 그건 모든걸 체념하고 하는 소리요 아니면 바람따라 돛 단다는 격이요?》

《예?!…》

《우리가 회의에서 당신 문제를 극단적으로 처리해도 우리를 좋게 볼수 있는가 하는거요?》

마치 자신이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지엄한 존재처럼 뻗뻗이 서서 한쪽눈을 찌물서하고있는 최옥을 보며 서봉두의 마음이 금시 싸늘해졌다.

운명의 칼날은 벌써 칼집에서 뽑혔는가.

서봉두는 갑자르다가 주눅이 든 어조로 물었다.

《그래 나에게 뭘 바라는가요?》

《당신 문제 아직 두고봐야겠소. 그러나 황군의 전용건물이었던 이 공회당을 적산으로 몰수하여 우리 볼셰비크들의 전용건물로 쓸수도 있다가 거요.》

서봉두의 눈앞은 뿌릿해졌다.

오춘서의 말이 옳았구나. 그러고보면 난 너무 우유부단한게 아닌가. 하지만 나라를 위하고 민중을 위하자던 나의 그 마음만은 결코 어지러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일은 못했어도 그렇다구 친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알아줄이가 도대체 누구일가.

최옥이가 간 다음 서봉두는 결상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연기만 풀풀 날리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봉두는 천천히 손더듬하여 품속에 간수했던 신문을 꺼내들었다. 벌써 몇번씩이나 곱씹어읽어 이제는 뜬금으로 외울 정도가 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문이다.

하지만 서봉두는 이 순간 다시 보고싶었다. 다시

심장에 쏘아박아 새기고싶었다.

국한문으로 찍혀진 활자체가 확 안겨온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 다.》

아!…

서봉두의 가슴속엔 다시금 희망의 봄씨가 머리를 쳐들었다.

이것이 바로 영명하신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장군님의 하늘같은 뜻이다! 파란만장의 험난한 길을 헤쳐온 이 나라 각계층의 동포들을 뜨겁게 품어안아주는 애국의 대경륜이며 또 내 삶의 기둥인것이다.

인생에 뜻을 세우지 못하면 키없는 배와도 같다.

개화의 뜻을 달고 떠나온 공회당이라는 전함은 오늘날 장군님 부르시는 애국의 항로를 따라가야 한다.

서봉두는 일찍부터 항일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영명하신 장군님의 춘추가 60을 훨씬 넘긴 백발의 수염 날리시는분이라는 소문을 전해듣고 그렇게 상상해뒀던 서봉두였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30대의 청년장군이시라니 우리 민족의 앞길은 얼마나 창창한것이나.

거대한 산악의 품에 둘러싸인듯 서봉두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온해졌다.

공회당은영문제를 놓고 매부와 진지하게 토의해보자. 내가 우리 장군님의 뜻을 따르겠다는데 최옥이도 공산당의 간부라는 사람인데 어쩐단 말인가. 하지만…

불안감이 또다시 불쑥 머리를 쳐든다.

그래, 최옥이의 말은 결코 가볍게 스칠 마파람 소리가 아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군공산당간부가 친일파라고 몰아대면 친일파로 락인척힐것은 뻔한 리치다.

종잡을수 없이 극에서 극으로 갈팡질팡하는 무거운 생각에 잠긴채 저녁에 집에 들어서니 오라고 연락한 진석은 보이지 않고 그대신 왜놈들 기름을 문대여 까만 머리칼이 하르르하고 반짝거리는 오춘서가 담배를 빨며 앉아있었다.

《요즘 분망하신 모양이군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나직이 입을 여는 오춘서의 말뜻은 그 의미를 알수 없게 아리송했다.

서봉두의 미간은 알뜰듯말듯 좁아졌다.

전번에 만나 공회당폭파요, 남쪽으로 뛰라느니 하는 훈시를 들은 후에는 왜서인지 선풍한 불안과

의혹을 느끼게 하는자이다.

해방된 이 땅의 모든것을 찌뚱해서 가로보며 김치독처럼 집안에 꼭 박혀있던자가 또 무슨 쑥덕질을 하고싶어 나타났는가. 반갑지 않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오춘서가 작은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그래 공산당에서 무슨 반응이 없어요?》

《글쎄 회의장을 보러 왔으며 나와선 공회당을 물수할 소리도 비치더군.》

개다리소반에 주안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오던 처가 가볍게 비명을 질렀다.

《여보, 그게 적실한 소리에요?》

오춘서가 저로서도 분하다는듯 짐짓 역증스레 재털이에 담배꽂조를 짓이키며 머리를 끄덕였다.

《흠, 놀랄진 없어요. 예견했던바 그대로니까. 그래 서형은 어쩔셈이요?》

서봉두는 잔에 술을 따르며 머리를 저었다.

《그렇다구 차마 어떻게 공회당을 폭파하겠소.》

물수요, 폭파요 하며 번져지는 파편같은 말마디들이 가슴을 조이는양 처는 아예 얼혼이 빠져 버렸다.

《세상에…》

오춘서가 부어놓은 술잔을 들이키며 짐짓 상심한 얼굴을 만들었다.

《우린 물러설수 없는 극단에 서있지요. 그들의 정치리념을 모르시우? 저 아라사에서도 쏘베트가 서며 얼마나 많은 유산자들이 탈출한지 압니까.》

오춘서가 부어주는 술잔마다 짹짹 비우며 력설했다.

《이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존재할 터전을 찾는다는건 장마철에 마른땅 찾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지요. 좌우간 그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니까 촉각을 세워서 나한테 그 날자나 정확히 알려주시우.》

입가로 술잔을 가져가던 서봉두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왜, 임자 무슨 셈을 굴리고있는건가? 무슨 일을 치자는거야?》

오춘서는 서봉두가 한심하다는듯 뽀족한 턱을 쳐들고 하—하고 외마디소리를 내질렀다.

《아직도 저렇게 우유부단하시니… 그래 그 공회당에서 우리에 대한 사형판결문이 올려야 정신을 차리겠나요? 공산당에 미련을 걸구 팔자를 시험해볼 생각은 아예 그만두는게 좋습니다.》

오춘서가 사라진 후에도 서봉두는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그자의 말만 들으면 속이 막히고 마음이 번거로와지는게 저도 모르게 화가 났다.

얼마 안있어 서봉두의 매부 진석이가 들어왔다.

그는 방안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감촉하고나서

직방 서봉두앞에 마주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최옥과 오고간 대화며 오춘서가 왔다간 이야기를 듣고나서 한동안 제 생각에 음해있다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구름장 보구 우산 펴순 없지요. 형님, 우리가 애국의 초지를 버리지 말라는건 선친들의 유지였지요.》

형님도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을 읽어보며 얼마나 흥분하셨습니까.

장군님께서선 우리가 해방된 오늘 선친들의 유지대로 민족과 더불어 애국의 한길따라 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난 오늘 우리가 무산대중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 조선의 새 인간이 되자면 공회당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밖의 말이였다.

나라에 바친다?!… 아니, 결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소유였던 공회당을 나라에 바친다는건 그 순간부터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진다는걸 의미했다.

그러나 서봉두는 인차 머리를 저었다.

해방된 오늘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회당을 바친다고 하여 최옥이의 이마살이 퍼지고 눈길이 부드러워지겠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서봉두를 건국의 길에 함께 갈 동행자로 쳐주겠는가 하는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처신을 두고 애국심의 발현이 아니라 칼날앞에 머리 숙이고 아부굴종하는 유약한 처사로, 혹은 약삭바르게 바람따라뫼를 다는 처사로 비난할수도 있다.

서봉두는 덤덤히 앉아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문젠… 좀더 생각해보세…》

3

다음날 공회당에서 일을 보던 서봉두는 저녁녘에 자기 방의 일본제구식전화기에서 귀따갑게 울리는 종소리에 흠칫 굳어졌다.

요즘 공회당리용과 관련하여 찾는데가 많지만 그래도 왜서인지 전화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서봉두의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후두두 뛰군 하였다.

서봉두가 조심히 송수화기를 쥐자 상대는 군공산당청사라고 알려고나서 이제 한 간부가 나가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간부라?!… 분명 최옥이가 또 나울것이다.

서봉두는 불안으로 서늘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나의 립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

누가 뭐라든 영명하신 장군님의 애국의 웅지를 받들어가려는 나의 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장군님을 따라서는 애국의 그 향로를 리탈한다면 우리 공회당은 해방전처럼 사나운 풍랑에 시달리는 난파선이 될것이다.

서봉두는 절반도 타지 않은 가치담배를 늦재털이에 비비고나서 품속을 더듬었다. 자기가 가는 앞길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끼는것 같으면 펼쳐보군 하는 영명하신 장군님의 연설문이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장군님의 연설 전문을 다시금 자자구구 새겨가니 서봉두의 가슴은 무쇠가마처럼 서서히 달아올랐다.

이 연설은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이야. 나라잃은 설움에 통탄만 하던 우유부단한 반생을 결별하고 온넛과 몸마져 성큼 애국의 대하속에 뛰어들라고 바로 나에게 내려보내신 사랑의 성서, 하늘의 성서야.

현데 나는 공회당을 나라에 바치는걸 주저하고있지 않는가. 왜? 무엇때문에?!...

공회당을 세우면서 우리 선친들이 것처럼 녀원하던 해방조선을 바로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가져다주시지 않았는가.

이 공회당도 결국은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내 나라의 한 살점인것이다. 공회당이 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나라의것이 될 때만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지에 맞게 더 잘 운영되리라는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다시금 전화종소리가 울려했다. 이젠 또 어디서 오는것인가.

서봉두가 송수화기를 드니 뜻밖에도 오춘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기여나왔다.

《형님, 지금 거기 혼자 있겠지요?》

《왜 그러나?》

《내 묘안을 하나 생각했수다.》

《묘안?...》

《내 좀 생각해보니 마음해픈 형님으로서는 공회당을 그렇게 처리한다는게 무척 피로울겁니다.》

폭파를 처리라는 은어로 쓰는 오춘서의 말에 서봉두의 눈살이 찡찡해졌다.

《본론을 말하게!》

《예, 내 묘안이란 공회당을 팔자는겁니다!》

《웅?!...》

《지금같은 세월에 그런 건물을 사겠다는 작자도 쉽지 않아 겨우 물색했습니다. 돈도 어차피 필요할 땐데 그냥 하늘로 보내겠나요.》

금시 서봉두의 말투는 자신도 의식할새없이 거칠어졌다.

《그래 그 작잔 이 공회당을 사서 어찌자는건가?》

《그건 우리가 상관할바 아니지요. 차후에 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기와 한웅맹이물로 치는 오춘서의 말에 서봉두의 입이 쓰거워났다.

《그렇게는 못해!》

서봉두가 매정스레 내쫓며 송수화기를 놓으려는데 오춘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 형님, 그럼 눈 편히 뜨고 그냥 몰수당하자는겁니까.》

《차라리 그제 더 맘 편하지!》

서봉두는 송수화기를 확 놓아버리고 지그시 한 곳을 응시했다. 마음이 번거로와진다.

돈과 권세가 인생판으로 굳어진 오춘서라는 인간자체는 무시해버렸지만 그의 말만은 결코 가볍게 스쳐들게 되지 않는다.

공회당을 판다?!...

이 소연한 때에 그제 현명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개인소유인 공회당을 판다고 누가 시비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서봉두는 두눈을 꼭 감고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흔들리지 말자!

재생의 환희와 건국열로 들끓는 해방된 이 나라 강산에, 이 민족앞에 서봉두가 것처럼 치졸하고 약삭바른 한 인간으로 서있을수는 없다.

그 수난의 세월 공회당의 운명을 위해 내 어쩔수 없이 왜놈들에게 숙여든적은 있지만 이제는 떳떳이 해방된 조선사람으로 나서고싶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그 어른이 오셨군. 서봉두는 은연중 자신이 긴장해짐을 느꼈다. 그의 오른손이 저도 모르게 신문을 간수한 품속을 더듬었다.

호신부처럼 품고있는 빨간 비로도로도 정히 쓴 하늘의 성서가 손끝에 미친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든든해진다.

자, 이젠 들어와보시오. 어르신... 서봉두는 마음속으로 호기있게 웨쳤다.

《주인님 계십니까?》

생각외로 퍽 유정한 목소리가 먼저 울려왔다.

문을 여니 전번에 최육이와 함께 왔던 사람과 함께 보위색군복을 가꾼히 차려입은 젊은이가 영민해보이는 눈을 반짝이며 준수한 얼굴에 미소를 담고 서있다.

새하얀 목달개가 유표하게 안겨오며 절제있게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가름한 얼굴이 풍상에 그을린듯 검실검실한 보위색군복 입은 젊은이가 깎듯이 인사를 했다.

《저 뉘신지?》

서봉두가 의아하여 물었다.

《제 군공산당에서 일보는 박명준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 언제부터 한번 나와본다는것이 좀 늦었습니다.》

서봉두는 그 순간 군공청에 나와서 매부 진석에게 장군님의 개신연설이 실린 신문을 준 우에서 내려왔다는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함께 온 젊은이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서주인님! 이분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빨찌산파견원동지입니다.》

서봉두는 전류에라도 감전된듯 흠칫 몸을 떨었다.

《예?! 그럼...》

서봉두는 저도 모르게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넘적 었디었다.

《이거 인사가 늦었습니다. 산에서 나라 찾자구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까.》

그러자 온화한 얼굴로 서있던 파견원이 급히 서봉두를 부축했다.

《서주인님! 이리저 마십시오. 그 인사는 우리 장군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절절하면서도 진중했다.

《장군님께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원해주신분도 **김일성**장군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구세주도 우리 장군님뿐이십니다.》

서봉두는 벌써 사람됨됨이 다르게 안겨오는 파견원의 겸허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충의전사들을 거느리신 영명하신 장군님의 위인상을 직접 느끼는것만 같아 두눈을 습벅이었다.

《그런데 나같은 놈두 장군님께 감히 인사를 올릴 체면이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과거가 어쨌든 서주인님은 지금 공회당을 인민의 의사에 맞게 운영하며 건국사업에 이바지하고있지 않습니까.》

잠시 말을 끊은 파견원은 따뜻한 눈길로 서봉두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서주인님! 제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예, 어서...》

서봉두는 황급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주인님, 아마 1938년도쯤 될겁니다. 이른봄에 왜놈경찰의 추격을 받던 한 젊은이를 공회당에 숨겨주었다가 로자를 쥐여보내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을 더듬는 서봉두의 머리에 편뜻 지나간 일의 장면들이 스쳐지나갔다.

...고드름이 녹아 처마끝에서 똑똑 떨어지던 락수물의 소연한 소리, 밤중에 조용하나 다급히 울리던 손기척소리, 초불빛에 비추이던 영채로운 눈동자의 반짝임...

《도와주십시오. 제 지금 경찰의 추격을 받고있습니다.》

그때 서봉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단지 어려움에 빠진 한 젊은이의 침착하면서도 절절바른 언행에 마음이 끌려 그리고 도의상 쫓기는 한 인간을 밖에 내보낸다는것이 사람 할짓이 아니어서 그 청년을 공회당 지하실에 숨겨주고 식사를 보장해주었었다.

그 젊은이는 날났을무렵에 서둘러 떠나갔다. 로자를 쥐여주는 서봉두의 손을 꼭 잡고 그는 말했다.

《주인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주인님,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이 꼭 옵니다.》...

서봉두는 추억의 단편들을 간중그리며 파견원에게 물었다.

《그 일을 파견원어른이 어떻게 아십니까?》

파견원은 웃었다.

《사실 그 동무는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었습니다. 공작나왔다가 추격에 들었는데 주인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 꼼짝없이 왜놈들에게 잡혔을거라고 도착보고를 하면서 말해서 알았습니다.》

《예?》

서봉두는 크게 놀래여 소리질렀다. 그리고는 나직이 이었다. 《글쎄 어쩐지 사람됨이 남다르다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동무들은 주인님을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동무는 이번에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저 북쪽지방에 파견되어갔는데 저를 보고 꼭 주인님을 만나 인사를 드려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후날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제 다시한번 인사드립니다.》

서봉두는 파견원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원, 황송합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거야 초보적인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세월이야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마저도 지키기 힘든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님의 그 마음을 크게 사는겁니다.》

서봉두는 참으로 마음이 훗훗해왔다. 코언저리가 다 시큰해왔다.

두손을 마주친 서봉두의 얼굴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파견원어른, 제 아뢰 말에 있습니다. 이 공회당을 나라에 바치는게 어떻게 하고 계속 생각하던 중입니다.》

《나라에 바친다구요?》

서봉두가 어쭙게 미소지었다.

《예, 보다싶이 건물이 마사진데가 많구 초라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받겠다면 제 힘자라는

것 원상복구해놓구 비품들도 새로 장만하자고 합니다.》

감심한 파견원이 서봉두를 긴의자으로 이끌며 담배를 권하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예, 전 사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방황했습니다.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접하고서야... 저도 조선사람답게 살고싶었습니다.》

파견원이 생각깊은 얼굴로 머리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결심은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애국심이라구요? 파견원어른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파견원은 숙연한 얼굴로 눈웃날리는 창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서봉두의 눈앞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아래 결속된 노동자, 농민만이 아닌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청년학생들까지도 포함한 반일애국민중의 장엄한 대군상이 끝없이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간악한 삼도왜적에게 이 땅을 강탈당한게 결코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애국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적어서도 아니었다.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뜨겁고 열렬했지만 그 애국심을 지켜주고 그 애국의지를 참된 애국의 길로 이끌어줄 진정한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파견원이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다.

《바로 해방된 오늘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각계층 우리 인민모두를 차별없이 애국의 넓은 길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맞이하는게 아니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서주인님은 그 용단으로 하여 오늘 나라의 주인으로 운명개척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과 나란히 애국의 한대오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뒤늦게나마 우리 장군님의 건국위업에 이 심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서봉두는 여느때없이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아니, 오늘 당신 어찌된 일이에요?》

화색이 도는 남편의 얼굴을 미심쩍게 보며 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 일이 있소. 오늘 이 서봉두가 글썄 우리 장군님 보내주신 파견원어른을 직접 만났소.》

《아니, 그런분을요?!...》

《여보, 글썄 해방전에 우리가 한 젊은이를 숨겨줬던 그 일을 그 파견원어른이 알고있지 않겠소. 그 젊은이가 글썄 항일유격대어른이었다지 않소. 날 보고 애국자라오, 애국자. 파분하게...》

《예?!》

노전바닥에 나란히 앉아 시종 놀란 얼굴로 서봉두의 이야기를 듣던 처가 이윽해서 문득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당신 공회당을 바치군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아무렴, 마른강 사공처럼 할일이 없을라구. 걱정두 팔자지. 그건 그렇구 여보, 래일 먼길 떠날 준비나 해주소.》

《먼길이라니요?》

《남포에 다녀와야겠소. 우선 깨진 유리부터 새로 갈아야지.》

처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금을 좀 건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봉두는 그 말에 무춤 굳어졌다.

앞으로의 일이라?!...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닌가. 하지만 서봉두는 왜놈들밑에서 순간순간 위태위태한 공회당의 운명을 지켜 한결옴에 열생각을 하며 살얼음판우를 걸으며 굳어져버린 자신의 타성에 쓴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는 해방된 조선사람이다.

장군님을 믿구 따라가는 그 앞길이 환한데야 부디 살피며 우려할 필요가 있는가.

서봉두는 자신의 결심을 굳히며 처를 한동안 눈여겨보다가 품속에서 간수하고다니던 신문을 꺼내 들었다.

《당신도 이 신문을 봐야겠소. 해방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다 있소!》

《예?!》

서봉두는 다음날 공회당일을 처와 매부에게 말기고 총총히 남포를 향해 떠나갔다.

4

목탄차를 얻어타고 이틀만에야 겨우 수백리가 넘는 남포에 도착한 서봉두는 어디서도 유리 한장 구할수 없었다.

유리공장에 있던 유리들은 왜놈들이 달아나면서 거의다 박살낸데다가 얼마 남지 않은 유리마저 거간꾼들이 빼돌려 유리 한장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험치 않았다.

사흘동안 공장과 시장에서 맴돌다가 허탕친 서봉두는 그날도 려관에 터벌터벌 돌아와 땀기서린 방에 알팍한 담요 한장을 깔고 벌렁 누워버렸다.

자금을 아끼느라 점심끼니도 강낭지집 뒤쪽으로 굶때고보니 배에선 연방 쪼르륵소리가 난다.

온몸이 노그라들고 매시시해온다.

이젠 어떻게 할것인가. 공산당에서 인차 그 무슨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그런 어수선한 곳에서 어떻게 중요한 모임을 할수 있겠는가.

사실 오늘 우리를 사려면 뒤굴목거래를 해야 한다면 나선자를 한명 만나기는 했었다. 알선로가 약차했지만 서봉두에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걸 사들고나섰다가 자위대원들에게 걸려들면 괜한 험터구를 쓸수 있다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눈을 꼭 감고 팔베개한채 죽은듯이 누워있던 서봉두는 벌떡 웃음을 일으켰다.

가만, 여기도 공산당청사가 있을텐데 거기 찾아가 사정애기를 하면 어떨까.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제 머리를 탁 치며 밤색중절모를 벗겨드는데 갑자기 푹푹푹 문기척소리가 매우 다급하고 불손스럽게 울려왔다.

이건 뭐가? 혹시 유리거간군들이 왔는가....

서봉두는 급히 다가가 문고리를 달그락 제끼었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개털솜옷에 장총을 멘 두명의 보안서원이 찬 공기를 확 뚫기며 다가들었다.

《?!...》

그들은 눈이 커져있는 서봉두에게 ××군공회당 주인이 맞다고 묻고나서 다짜고짜 《손 내밀어!》하며 거칠게 명령조로 말하였다.

《왜 그러시오?》

《어서! 반항할 생각은 말구.》

그들은 막무가내로 서봉두의 두손목을 악살스레 꼬당기더니 절박하고 녹이 쓴 수갑을 채웠다.

《대체 무슨 일ियो?》

《가면 알게 돼!》

어쩔수없이 그들에게 떠밀리워 바다바람 세찬 밖으로 나온 서봉두는 풍을 친 자동차적재함에 올랐다. 다른 보안서원이 그의 가방과 배낭을 날라다 함께 실어주었다. 그들에게 압송되어 시보안서라고 하는 건물에 당도한 서봉두를 곧 어두침침한 심문장의 차거운 쇠의자에 앉히었다.

밤색칠감이 드문드문 벗겨진 낡은 책상우에 켜진 전등빛을 내비치고있는 탁상등만이 놓여있었다.

미구하여 얼굴이 표표한 보안서원이 들어와 그 책상에 마주앉더니 두툼한 책을 벌척거렸다.

《여긴 어떻게 왔소?》

보안서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봉두는 아직 종잡을수 없어 느릿느릿 대답했다.

《우리 공회당에 우리를 새로 끼워야했기에... 그걸 사러 왔습시다.》

《그럴듯한 각본이군.》

《각본이라니?!...》

보안서원의 얼굴에 비양기가 어리였다.

《흠, 아직도 모르쇠를 하겠는가. 오늘 아침 받은 긴급통보에 의하면 어제 당신의 그 공회당에서

군공산당회의가 있었는데 반동들이 그 지하실에 폭약을 설치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오. 체포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전부터 당신은 그들과 공모했다고 했소. 그 두목은 오...》

보안서원은 책을 흘끔 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래 오춘서라고 하오. 이자는 도주했소. 당신이 그 오춘서와 동창이며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는게 맞소?》

《그건... 옳습니다.》

《당신은 그 공회당폭파사건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맴돌고있었소. 틀리오?》

아차! 서봉두는 속으로 제 머리를 쳤다.

내가 왜 그자의 기도에 대해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그자의 력설에 공감한것도 아닌데... 해방전부터 치부에 열을 올리고 권세에 눈자위를 굴리던 오춘서. 그때는 왜놈들에 대한 일종의 항거정신으로 오인했다. 왜놈들을 딛고 올라서려는...

하지만 해방된 이 땅에 반기를 든 오춘서에 대해 왜 무관심했는가.

이젠 운명의 칼날은 피할수 없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서봉두는 끝없는 미궁속에 휘뿌려진듯 눈앞이 아득해왔다. 절망과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짓물려진 눈가에 저도 모르게 핑- 하니 맑은 눈물이 괴여올랐다.

순간 보안서원이 책상을 팡! 내리치며 준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조선사람이 맞소? 지금 많은 유산자들이 우리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소.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구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새 민주조선건설에 일떠섰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게 배가 아픈가?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억척같이 다시 일어서는게 그렇게도 배가 쏘는가 말이요.》

보안서원의 증오와 경멸로 불꽃튀는듯 한 눈길을 받으며 서봉두는 흠칫했다.

그의 격노한 어조가 복처럼 흥벽을 팡팡 치며 소스라치게 했다.

그렇다! 나도 우리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자구 여기 온게 아닌가. 그래서 추위에 떨구 강낭지 짐짝으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이 거리를 못 떠나고 있지 않는가.

《난... 난 그런 놈이 아니요!》

서봉두는 벌떡 일어서며 항변하듯 웨쳤다.

하지만 보안서원은 책을 접고 일어서며 랭정하게 지시했다.

《이자를 끌고가시오!》

그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린다.

서봉두가 끌려온 구류장에는 시퍼런 유리를 댄

작은 환기창이 있고 낡은 나무침대우에 거무튀튀한 알팍한 담요가 개여져있었다.

철문창살로 복도의 희미한 빨간 불빛이 간신히 새어들어오는 썰렁한 구류장안에서 서봉두는 한동안 말뚝처럼 굳어져 서있었다.

그는 악몽같은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서봉두는 해방전에도 두번 이런 구류장출입을 했다. 공회당운영에서 불온적인 색채가 있다고 하여 구류장에 처박힌채 우악스런 왜놈들의 시달림을 받으며 벌금까지 물었다. 그런데 해방된 오늘날에는 내가 왜 또 이런 곳에 들어와있는가.

서봉두는 자신이 수난자로 생각되었다.

이것이 나의 숙명이란 말인가.

망연한 얼굴로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서봉두의 머리속에 가까운 사람들의 눈물젖은 얼굴들이 육박해온다.

그리고 새 조국건설에서 자신을 때놓으려고 것처럼 비렬하게 놀아댄 오춘서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얼른거리고 계급투쟁에서 《투철한》 최옥이의 모습도 심신을 압박한다.

그러나 한사람의 모습, 그 목소리만은 상처입은 온몸을 따듯이 어루쓸어준다.

인간의 운명은 맞이하는게 아니라 창조하는것이라고, 장군님만 믿고 애국의 한길로 함께 가자던 젊은 파견원의 유정한 그 목소리...

그래,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내 설사 억울한 루명의 거미줄에 칭칭 감기운다 해도 장군님따라 애국의 한길을 가자던 그 마음만은 꺾이우지 말아야 할게 아닌가. 왜놈들 채찍밑에서도 지켜온 애국의 초지가 해방된 이 땅에서 물거품처럼 잿아든다는게 어디 될 말이나.

다음날 아침 서봉두는 보안서원의 방에 이끌려 갔다.

어제 서봉두를 심문하던 보안서원이 책상에 마주앉아 흰 종이우에 부지런히 펜대를 날리다가 얼핏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당신을 현지까지 압송해오라는 지시요!》

쭈뼌뻗은 표정으로 서있던 서봉두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어리었다.

《가겠소, 가야지. 하지만 그냥은 못 가겠소!》

《응?!》

보안서원이 벌떡 일어서더니 뚫어지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할일이란 뭐요? 무슨 음모를 또 꾸미자는거요?》

그러나 모든것을 체념한 서봉두는 침착했다.

《난 유리를 가지고 가야겠소. 자금은 요구대로 내놓겠으니 유리를 좀 구해주시오.》

《누굴 놀리는거요?》

《아니요. 재삼 말하지만 난 유리때문에 왔소. 공회당은 나라에 바치는 건물인데 내 성의를 다해서 온전하게 손질을 해서 바쳐야 할게 아니요.》

서봉두의 곡진한 어조에 보안서원이 쓴 미소를 지었다.

《요술을 부리지 마시오! 그렇다면 이번 사건혐의에서 벗어날상심은가?》

보안서원의 내뱉는 말에 서봉두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여기서 나를 변호할 생각은 없소. 운명에 맡기겠소. 하지만 공회당은 이젠 나라의 건물이요. 나라의 재산이란 말이요. 거기에 끼울 유리 몇장 도와준다고 당신에게 루가 미칠거야 없지 않소.》

종잡을수 없는 얼굴로 앉아있던 보안서원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단호한 결심이 어린 얼굴로 근무서던 보안서원을 불렀다.

《우리 창고에 거간군에게서 물수한 유리가 있지?》

《예.》

《한 열댓장 차에 실으시오. 어쨌든 나라건물을 위하는 일이라고 간청하니 도와주고 봅시다.》

서봉두는 벌떡 쇠의자에서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현금충화는 하겠습니다.》

보안서원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건 가서 총화하시오. 당신은 참 이해할수 없구만.》

서봉두는 웃몸을 쭉 펴며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나도 조선사람입니다.》

잠시후 서봉두가 풍을 친 자동차적재함에 오르니 버짚우에 유리꺀짜이 놓여있었다.

서봉두는 수갑찬 두손으로 유리를 어루쓸며 보안서원에게 시름없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보안서원동무, 고맙수다. 그리구 이 귀한 유리가 상하지 않게 차를 좀 천천히 물게 해주시오.》

싸늘한 하늬바람이 풍막자락을 들춰대며 사정없이 불었다.

하지만 서봉두의 마음은 유리를 구해가지고간다는 기쁨으로 차분히 가라앉아있었다.

5

현지에 압송되어온 서봉두는 군보안서에서 또다시 취조를 받게 되었다.

저녁무렵에 최옥이와 파견원이 함께 찾아왔다.

밖의 찬바람을 안고들어온 최옥이의 체취에서 싸늘한 행기가 서봉두의 얼굴에 끼여어졌다.

최옥이 보안서원에게 돌아섰다.

《그래 이자가 자기 범죄를 인정했소?》

《공모한건 인정 안하는데 그자들의 기도에 대해선 알고있었답니다.》

《그게 공모지 다른게 공모요? 헛참, 하마트면 우리 군내 볼셰비크들의 씨가 마를번 했소. 교훈이요!》

뒤에 서있던 파견원이 흐려진 얼굴로 서봉두앞에 다가왔다.

《서주인님, 그게 옳습니까? 공모했다는게 말입니다.》

최옥이 파견원에게 불만스런 눈길을 던졌다.

《파견원동무, 저런자에게 주인님이라고 피어발리는건 대체 뭐요?》

하지만 파견원은 그 무엇을 묵새기듯 어금이를 짓찧고나서 다시금 저력있게 물었다.

《주인님! 어서 대답해보시오!》

서봉두는 처연한 얼굴로 머리를 저었다.

《난 공모한게 없습니다. 다만 그자가 공회당을 폭파하구 남으로 나가자고 했기때문에 그자의 기도에 대해선 짐작하고있었을뿐입니다.》

최옥이 한걸음 다가섰다.

《헌데 왜 신고하지 않았소?》

《그자가 지하실내막을 잘 모르니 나와 토론하지 않고는 감히 그런 음모를 꾸밀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자에게 회의날잔 말하지 않았소?》

《회의를 하게 된다는 말은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 떠날 때까지 정확한 회의날자를 몰랐습니다.》

《파연 립기웅변술이 여간 아니군그래. 보안서에서 좀 맏짜게 다뤄야겠소.》

파견원이 최옥을 제지시켰다.

《잠간 최옥동무, 이 서주인은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무슨 담보루?》

파견원이 품속에서 붉은 비단천에 싼 보풀 인 신문 한장을 꺼냈다.

《난 어제 그의 집에서 료해과정에 서주인이 이 신문을 언제나 품고다니며 장군님의 개선연설문을 이렇게 보풀이 일도록 보고 또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옥동무! 우리 장군님의 애국사상을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반역할수 없습니다.》

최옥은 뒤짐을 지고 뺑소지였다.

《쟁개비가 뿔었다구 쌀알이 다 익은건 아니요. 난 동무가 파견원으로서 우경을 범할가봐 우려되오!》

《이 문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이미전에 군당에서 결정한 문젠 어떻게 할셈이요?》

《취소할수 없습니다.》

《음... 동무가 계속 강경하게 나오니 할수 없군. 좋소. 제가 기른 말발굽에 밟히지 않길 바라오!》

최옥이가 사라지자 파견원이 서봉두를 아늑한 다른 방으로 이끌었다.

그를 난로가까이 앉힌 파견원은 꿇고있는 놋주전자에서 더운물을 따라 권하며 각근히 물었다.

《객지에 나가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식사량은 제대로 하고 다녔습니까?》

서봉두의 눈언저리가 불깃해졌다.

《제 할바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왜 할바를 못했습니까. 그런 참담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서주인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우리 장군님을 따라선 정의로운 길임을 잘 알기에 그런 배짱을 내대고 제 할바를 다할수 있었습니다.》

서봉두는 자신도 몰랐던 자기를 새삼스레 발견하게 하는 그 말에 큰 눈을 깜박거렸다.

《제가... 그랬던가요?》

《왜, 자신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허허.》

유쾌한듯 미소짓던 파견원이 이내 정색해졌다.

《서주인님, 군당위원회에선 공회당을 인민회관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서봉두가 놀란 눈길로 파견원을 마주보았다.

《아니, 공산당회관이 아니구 인민회관이란 말씀인가요?》

《왜 놀랍니까. 공산당도 바로 인민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필요하며 복무하는겁니다.》

《!...》

《그리고 군당에선 서주인님을 그 인민회관 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봉두는 제 귀를 의심했다.

《이자 누구라구요?》

《바로 서주인님이 관장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봉두는 황황히 손을 내저으며 뒤걸음쳤다.

《아니, 전... 공산당에서 경원시하는 소자산계급이올시다.》

파견원이 서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 장군님의 개선연설문을 다시 봐야겠구만요.》

《?...》

《우리 장군님께서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주신 전 민족속에는 바로 서주인님도 있는겁니다!》

《그래도 나같은걸 어떻게...》

몸둘바를 몰라하는 서봉두를 보며 파견원이 진중해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었다.

《이 신임은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이며 인민의 믿음입니다. 축하합니다, 회관관장동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운명의 극적전환에 서봉두는 자신을 망각하고 굳어져 안면근육만 실룩거렸다.

서봉두의 불깃해진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고 있었다.

6

인민회관 판장이 된 서봉두는 더욱 분주히 뛰기 시작했다.

새 조국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따라 회관에서도 할일이 부쩍 많아진 것이다. 정말 사는 맛이 있었다.

회관운영은 그야말로 치차처럼 맞물려 진행되고 있었다.

구리빛얼굴의 광산로동자들이 굵은 팔뚝시들을 휘저으며 들어와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마라초냄새 배인 농민들이 의젓하니 앉아 김일성장군님께 땅을 주십사 하고 편지를 올리는 모임을 열기도 하였다.

뒤골방에서 뛰쳐나온 녀성들은 녀성동맹을 조직하고 제법 당돌해져서 삼강오륜이요, 칠거지악이요 하는 케케묵은 낡은 봉건사상을 지탄하는가 하면 이리떼같은 왜놈사무라이들과 총 들고 싸운 항일빨찌산녀대원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장군님술하에선 러염집의 연약한 아녀자들도 모두 남정네들 째떡먹을 녀걸이 된다고 흥분에 떠 작은 종주먹을 내흔들기도 하였다.

어쨌든 남녀로소가 다 류다른 건국열의와 활기에 넘쳐 육육 밀려들나들며 해방된 새 조선의 진짜 모습을 제일먼저 벽치게 펼쳐보이는것이 바로 인민회관인듯싶었다.

서봉두는 약동하는 민주조선의 체모에 맞게 인민회관을 더 번듯하게 꾸리기 위해 밤낮 나가살다 싶이하며 회관운영은 매부 진석에게 떠맡기다싶이 했다.

진석은 인츰 중도에서 그만두었던 영화기술원 강습소에 가기로 되어있지만 공청과 회관에서 할일이 많아 발을 뽐지 못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석봉이 못지 않은 서예숨씨까지 가지고있는 진석은 회관일뿐아니라 짬짬이 공장과 농촌의 민주선전설마다 찾아가 구호들과 표어들을 쓰느라고 너무 바빠 결혼한지 1년남짓한 처의 얼굴도 잊어먹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어쨌든 건국의 도가니속에 너나없이 사는 보람이 있었다. 더우거나 군공산당파견원은 얼마전 서봉두를 만나 이제 곧 인민회관에서 당회의와 군적인 강습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러니 그전에 회관을 보다 번듯하게 꾸리는 일을 다그쳐야 했다.

그래서 서봉두는 며칠전에 면목있는 가구공장 주인에게 회관 책걸상들과 연탁을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쾅쾅 싸두었던 자금을 선금으로 먼저 주었던터였다.

서봉두는 오늘 아침 출근하자바람으로 전화로 그를 찾았다.

그런데 전화를 주인대신 너희계원이 받았는데 그와 통화하던 서봉두의 얼굴은 금시 컴컴하게 죽어들어갔다.

목재가구공장 주인과 그의 처자가 이틀전에 행 불되었다는 소식이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가구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사라졌다는 것이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소리에 서봉두는 눈앞이 아찔해왔다.

서봉두가 생각하건대 가구공장 주인은 신용위주의 경영리념을 표방하던 사람이였다. 그는 자명종시계처럼 정확한 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서봉두는 문득 며칠전 가구공장에 갔을 때 그 주인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공회당이 인민회관으로 명명된 소식을 들었다며 진지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자기가 해방전에 왜놈포탄상자를 주문받고 만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친일의 표현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넌지시 물었다.

그때 서봉두는 애매한 표정을 짓고 미처 대답을 못했었다. 최옥의 얼굴이 선참 떠올랐던것이다. 최옥이가 그걸 어떻게 보겠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는 분명 자신이 소자산계급이라는 출신성분과 과거행위를 놓고 고민한것 같았다.

서봉두는 속으로 자신을 타매했다. 아! 내 왜 그때 그에게 우리 장군님의 건국사상에 대해 차근차근 말해주지 못했는가. 군공산당 파견원을 만나 보라고 귀뜸조차 할 생각을 왜 못했는가. 그러니 오늘같은 결과가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는가. 이제 자금문제는 어떻게 할고... 파견원동지에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연기를 길게 뿜으며 한동안 전전긍긍하던 서봉두는 도리를 저었다.

어떻게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이 문젠 내 힘으로 풀어야 한다. 나야 이제 공회당 주인이 아니라 인민회관 판장이 아닌가.

서봉두는 처진 걸음으로 러벌러벌 집으로 돌아오며 자기 집 재산중에서 돈이 될만 한것을 두루 생각해보았다. 축음기도 팔수 있고 삼면경대도 팔수 있다. 자전거도 돈이 될수 있다. 그래도 모자랄것 같애. 또 뭐가 있던가. 안해의 은비녀가 있다. 헌데...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인데 처가 그걸 내놓겠다고 하겠는지...

집에 들어온 서봉두는 될수록 태연해지려고 애썼다.

서봉두는 요즘 노상 정찬 미소를 짓고있는 처가 소반에 김이 물물 오르는 점심식사를 챙겨가지고 들어오자 지나가는 말처럼 혼연히 입을 열었다.

《여보, 회관 꾸리는데 자금이 딸려서 그러는데 저것들을 없앨가 하오.》

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의아한 빛이 어린다.

《저축했던 자금은 벌써 다 썼어요?》

《쭌… 모자라서 그러오.》

그는 차마 자금 협잡맞은 일을 말할수 없었다.

처의 얼굴이 금시 흐려지는것을 느끼며 망설이던 서봉두는 내쳐 생각했던바를 다 터쳐놓았다.

《거, 당신 은비녀도 돈이 될것 같은데… 그건 힘들겠지?》

《당신 정말 실성하지 않았어요?》

처는 남편이 당장 은비녀를 쭈— 뽑아가기라도 하는듯 쪽진 머리에 황황히 두손을 가져갔다.

해방전에는 왜놈들의 공출바람에 잃을가봐 자개박이장농에 봉어열쇠 채우고 깊숙이 간수해두었던 은비녀다.

아수한 눈길로 남편을 보던 처가 의논조로 물었다.

《이제 공회당이 개인소유가 아니구 나라건물인데 인민위원회에 좀 방조를 받으면 안될가요?》

상심한 얼굴로 있던 서봉두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갓 해방된 이 땅에 무슨 자금이 있겠소. 설사 좀 있다 한들 지금 나라에서 돈 쓸데가 오죽이나 많소.》

《?!…》

서봉두의 얼굴이 숙연해졌다.

《여보, 돌이켜보면 우린 나라찾는데 총 한자루, 쌀 한톨 보태준게 없구려. 오히려 왜놈들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지.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선 피흘려 찾은 소중한 이 땅의 주인으로 불초한 우리도 당당히 내세워주셨소. 여기에 제것이란게 그 무슨 숨털만 한 가치라도 있소? 머리칼이라도 베여 신을 삼아드린대도 아까울것이 없을 심정이라고 당신도 말하지 않았소.》

긴 속눈섭을 살뚫이 떨구고 새초롬히 앉아있던 처가 곱게 가리마를 내고 뒤에 튼 쪽진 머리에서 아무말없이 은비녀를 뽑아들었다. 그 은비녀를 남편쪽으로 밀어놓는 가느다란 흰 손가락이 가볍게 떨린다.

서봉두는 처를 위안할 말마디를 골랐지만 가슴이 저릿해오며 아무 말도 꺼낼수 없었다. 오히려 처가 남편의 심중을 이해하고 유정한 목소리로 여쭙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오늘 돈이 없어 못살겠네요. 우리가 해방된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살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겠나요.》

량끝에 툇대가리모양을 하고 꽃잎이 또렷이 새겨진 은비녀를 응시하며 서봉두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중요한거요. 금수처럼 구복이나 채우며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존엄높은 사회적존재로 사는게 중요한거요.》

다음날부터 서봉두는 필요한 목재구입으로 울리 뛰고 내리뛰며 밤낮으로 돌아갔다. 매부와 누이동생도 사들였던 목재를 내놓겠다며 찾아왔다. 그 목재들은 신살림하며 세방살이하던 그들이 집 한채를 마련하겠다고 툼툼이 구하고 사들이기도 한것들이었다.

서봉두는 차마 그것만은 손댈수 없어 거절했지만 누이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며 간청했다.

《오라버님, 난 죄인으로 압송되어온 오라버님이 인민회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을 땐 믿어지지 않는 꿈같은 현실에 온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장군님만은 오라버님의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아주시는것 같아…》

진회색코트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옆에 서있던 진석이도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형님, 형님만이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애국위업에 나설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서봉두는 새삼스레 그들을 둘러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장군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함께 가자구. 좋은 날 진수성찬보다 어려운 날 죽한술이 더 귀하다고 나라가 갓 해방된 어려운 이때 푼전이나마 건국에 보태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서봉두는 번거롭고 답답하던 가슴이 밝게 열리며 따스해짐을 느꼈다.

7

서봉두는 다음날부터 애써 마련한 자금과 함께 목재까지 싣고 가구공장으로 내려갔다. 노동자들과 톱질도 망치질도 함께 하며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회의기일이 박두해왔던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의를 다합시다. 혹시 알겠소, 우리 인민회관에 영명하신 장군님을 모시게 될지…》

서봉두는 은연중에 그 말을 해놓고는 자신이 지금껏 우리 장군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있다는걸 깨달았다.

그렇다! 장군님이 그리웠다. 자기의 운명을 지켜주고 애국의 넓은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이 이 어려운 시절 사무치게 그리웠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회관에 필요한 연락이며 책결상, 문짝들을 새롭게 다 만들었을 때 불쑥 과견원이 나타났다.

그는 서봉두의 작업복웃자락에 묻은 대패밥들을 뜯어주며 질책어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관장동무! 그동안 왜 혼자서 속을 썩였습니까.》

《...》

《우린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동지가 된다고요?》

《그럼 관장동문 공산당의 시중군으로 자신을 생각했습니까?》

파견원이 서봉두를 통나무와 눈무지가 무덕무덕 쌓여있는 마당으로 이끌었다.

파견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 잘못도 큼니다. 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관장동무가 돈을 험잡당하구 남몰래 속썩인 걸...》

아니?!... 그건 처에게도 말하지 않은건데...

《회관관장동무, 그 가구공장 주인이 숨어있던 오춘서의 꼬임을 받구 그놈과 함께 남으로 나가려다가 38도선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예?!...》

《가구공장 주인은 잘만 이끌어주면 우리와 한 길을 갈 사람이었는데 인민의 토양에 애국의 뿌리를 박지 못했지요. 밀둥잘린 나무는 결국 골려가 기마련이구...》

파견원은 품속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받으십시오. 그자에게서 회수한 회관자금입니다.》

한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굳어져있던 서봉두는 두손을 황황히 내저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 돈은 변통했으니 나라에서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그러면 안됩니다. 회관을 건국의 사상문화의 거점답게 꾸리자면 할일이 많습니다.》

서봉두의 손에 억지로 돈봉투를 쥐여주고난 파견원은 빨간 천으로 싼것을 또 꺼내 펼친다.

《그리구 전당포에서 다시 찾아온 부인의 은비녀입니다.》

아, 은비녀까지?!...

파견원이 서봉두의 손에 은비녀를 쥐여주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런 놈들때문에 가산을 없애구 부인의 은비녀까지 팔아야 했으니 심중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서봉두의 눈굽은 금시 불깃해졌다. 짝 잠긴 목소리로 겨우 말을 떠듬떠듬 읊었다.

《괴로웠습니다. ... 가산이 없어져서 괴로운게 아니라... 해방된 이 땅의 첫 겨울이 너무... 차거운 것 같아...》

파견원은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답답한듯 외투웃단추를 활 열어놓는다.

그가 진중해서 입을 열었다.

《관장동무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장동무의 이번 일을 놓고 군당위원회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육이를 비롯한 일부 일군들이 아직도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데 대해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었습니다. ...》

서봉두가 축축해진 눈길로 먼 산발을 응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파견원동지... 사람답게 산다는게...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박고 산다는게 험치 않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장군님만 따라 꾀끗이 갈겁니다.》

《관장동무! 고맙습니다.》

파견원이 서봉두의 손을 감싸잡으며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관장동무! 앞으로의 인생길에 피로움과 난관이 어찌 없겠습니까. 민족과 더불어 후회없이 땀땀하게 산다는게 결코 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을 신념과 의지로, 뉘으로 땡땡 다져넣을 때엔 누구나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서관장동무! 바로 그 길에서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영광도 있는겁니다.》

《파견원동지!》

그로부터 며칠후 해방조선의 회관답게 번듯하니 새 모습으로 일신된 ××군인민회관에서는 토지개혁법령발포를 환영하는 모임이 열렸다.

×

해방직후 온 나라가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던 그때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신의 진심을 성실히 다 바쳐온 서봉두는 그해 여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중엽에는 군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다.

서봉두는 생의 말년에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었다.

《내가 나라에 바친건 마음 하나뿐인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백으로, 천으로 헤아릴수 없구나. ... 사실 돌이켜보면 자그마한 공회당의 주인에 불과했던 내가 그 공회당을 나라에 바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새 주인이 될수 있던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애국의 작은 마음을 크게 사주셨기때문이다.》

그가 누구이든 애국으로 존엄높은 삶을 짙그리 불태울 때 바로 우리 수령님 이끄시는 내 조국이 천하제일루 강해질수 있는거야. 명심들 하거라.》

정약용의 산문에 담겨진 봉건사회비판정신

18세기말-19세기초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재능 있는 작가였던 정약용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산문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여 우리 민족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었다.

정약용이 창작한 산문들은 현실반영의 폭이 넓고 사회비판적기백이 매우 강렬한 특징으로 하여 그의 창작에서뿐아니라 18세기말-19세기초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실학과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정약용의 산문들은 대부분 1801년 《신유사옥》 이후 18년간에 걸치는 류배생활기간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창작된것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풍부한 생활체험과 해박한 식견,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봉건기에 직면한 조선봉건사회의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깊이있게 파헤치고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다.

정약용의 산문작품의 특징은 우선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정신과 적극적인 사회개혁적지향이다.

이와 같은 창작적개성은 정론작품들에서 보다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정약용은 류배생활기간 《환자론》, 《감사론》, 《통치자론》, 《토지론》, 《서얼론》, 《간리론》 등 여러편의 정론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정론들에서 그는 봉건사회 말기의 온갖 불합리성을 깊이있게 밝혀내고 인민의 착취자, 약탈자로 군림한 량반관료배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환자론》에서 《이 세상에 환자법보다 더 나쁜 법은 없다. 환자법은 아버지와 자식간에서도 실행할수 없다.》라고 환자제도의 해독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허구적형상으로 밝혀냈으며 《감사론》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실례들어 감사의 가혹한 약탈행위와 부패타락한 생활리면을 폭로하면서 지방장관인 감사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적놈들이라고 략인하였다. 이 작품들은 그 비판의 예리성과 예술적형상력에 있어서 이전시기 어느 정론에서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당시 정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되고있다. 다른 정론작품들인 《향리론》, 《간리론》에서 정약

용은 통치관료들을 범이나 매보다 더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하였으며 통치관료들에게 붙어서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악착하게 감행하는 아전들을 가장 가증스러운 인간들로 타매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정론들과 함께 봉건적질곡을 해소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할데 대한 실사구시적견해를 적극적으로 구현한 《신포징수법의 개정에 관한 건의서》, 《서얼론》, 《인재등용에 대한 건의서》, 《토지론》 등과 같은 정론들도 창작하였는데 이 정론들에서 조선봉건사회의 지반을 이루어온 량반제도가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하나의 질곡으로 되어버린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위도식하는 량반들을 없앨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옛글이나 읍조리는 량반유학자들이 민생문제와 국방문제에는 무관심한데 대하여 《참다운 유학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문무어느것에나 다 능통하는것이니 어찌 글장과 글구를 따지며 옛날옷을 입고 절하는 절차만을 익힐따름이겠는가?》고 조소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담에서 벗어나 현실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연구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봉건적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관리선발을 인재본위로 할데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정약용은 다른 정론들인 《통치자론》과 《탕론》에서 불공평한 량반제도와 적서차별을 비롯한 온갖 신분차별정책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통치자론》에서 통치자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아니면 백성이 통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통치자가 백성을 무시하는 당시 봉건전제제도를 비판하면서 비록 황제라도 백성이 찬성하지 않을 때에는 갈아치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실학적인 경제사상을 피력한 《토지론》에서는 사회에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하며 공리공담만 일삼는 무능한 선비들을 타매하였다.

정약용의 정론들은 어느것이나 다 풍부한 자료와 명백하고도 짜인 논리, 격동적인 언어표현과 허구적인 문학형상으로 강한 비판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당대 사회현실의 부정면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그를 개혁할것을 주장한 자신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견해들을 뚜렷이 표현해주고있다.

이것이 정론작품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그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정론문학은 당시 우리 나라 정론이 도달하였던 높은 발전정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정약용의 산문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징은 다음으로 평범한 생활세부에서 의의있고 절박한 사회적문

제들을 도출해내고 독특한 형상수법으로 자신의 사상미학적리상을 밝혀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성격을 위주로 보여준 《장천용전》, 《몽수전》, 《죽대선생전》 등의 인물전기작품들과 《창옥동기행》, 《세검정기행》, 《진주의기사기문》을 비롯한 기행형식의 작품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초야에 묻혀사는 인간들의 강요하고 락천적인 성격미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주었고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레찬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나간 력사적시대의 애국적인물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고 빈궁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깊이 동정하였다.

정약용은 《장천용전》, 《몽수전》, 《죽대선생전》 등의 인물전기작품들에서 량반출신으로서 뛰어난 예술적재능을 소유하였지만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는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 장천용, 왕족출신이지만 준비귀천을 가리지 않고 홍역에 시달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몽수, 송죽같은 절개를 지켜 진보적인 사람들 편에서서 무능하고 포악한 통치관료들을 타매하는 강요한 성격의 소유자 죽대선생 등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신분제도의 불합리성과 추악한 당파싸움의 폐해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정약용의 인물전기들은 대체로 한 인물의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활과 사건들을 취급하던 당시까지의 력사인물전기의 틀거리를 크게 벗어나 한 인간의 성격적미를 보여줄수 있는 단면적인 또는 한 시기의 이야기에 모든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는것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있다.

《장천용전》에서는 작가가 곡산원으로 있을 때 장천용을 만났던 사실을 위주로 그의 성격적특질을 보여주었고 《몽수전》에서는 홍역이 휩쓸고 있던 시기 서울에 왔던 몽수가 사람들의 병치료에 헌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런가 하면 《죽

대선생전》에서는 《신유사옥》을 전후한 시기 죽대선생의 생활을 기본으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다.

정약용은 《창옥동기행》, 《세검정기행》, 《진주의기사기문》을 비롯한 산문들에서도 재치있는 예술적수법을 통하여 당대 사회현실의 부정면을 폭로비판하고 자신의 사회정치적견해를 뚜렷이 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정약용은 단순히 자연경치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찬양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환기되는 체험세계를 통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와 자신의 사회미학적견해들을 펴력하는데 력점을 두었다.

《창옥동기행》에서는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옥동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신분과 문벌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천시하는 불합리한 인재등용정책에 대한 비판적립장을 표명하였으며 《진주의기사기문》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장놈을 그러안고 서슴없이 죽음의 길을 택한 진주기생 론개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찬양하였다. 순수 자연경치나 건물의 유래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느낀 자신의 소감이나 미학적견해, 사회정치적 견해들을 밝히고있는것은 이전시기 작품에서 찾아볼수 없는 정약용의 작품에만 고유한 특성이며 창작적개성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정약용이 창작한 산문들에는 명백하고도 제인 론리와 격동적인 언어표현, 구체적인 사물현상에 대한 깊은 관찰과 해박한 식견, 강렬한 주정토로와 독특한 예술적형상에 기초한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자신의 비판적립장과 태도 등 그의 창작적개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이러한 창작적개성으로 하여 정약용의 산문작품들은 민족문학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수 있게 되었다.

김진국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4호 (루게 제786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4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4월 5일

ㄱ-3609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02